



정답과 해설

고등국어

하 6~9단원

6. 세상을 바라보는 예리한 눈

(1) 매체를 통해 보는 세상

본문 확인 문제



본문 008~010쪽

- 01 ④ 02 ㄱ, ㄷ 03 ⑤ 04 ④ 05 ⑤ 06 표제
07 ⑤ 08 ④ 09 ④ 10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홍보 호
과를 거두기 위해 11 표현 방법

01 텔레비전 매체는 전파를 이용하기 때문에 인쇄 매체보다 많은 정보를 다수에게 빠르게 전달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텔레비전 매체는 본질적으로 일시적이어서 녹화를 하지 않는 한 정보의 보존이 어렵다.

② 텔레비전 매체는 주로 음성 언어, 영상, 자막 등을 활용하여 내용을 전달한다.

③ 방송국에서 프로그램을 제작하므로 개인이 정보 생산자가 될 수 없다.

⑤ 복잡한 내용을 논리적으로 자세히 전달할 수 있는 매체는 인쇄 매체이다.

02 ㄱ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주한 뉴질랜드 대사가 보령 머드 축제의 기술과 비법을 배우러 축제장을 찾은 것(ㄱ)과 보령시가 로토루아 시에 머드 원액, 머드 체험 시설, 머드로 만든 제품 등을 수출하는 협약을 체결한 것(ㄷ)이다.

오답 풀이 ㄴ. 보령 시장은 머드 축제의 콘텐츠를 뉴질랜드에 수출하여 축제의 세계화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이것이 머드 축제의 콘텐츠를 전 세계에 수출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ㄷ. 기사의 내용이나 자료 사진을 통해 볼 때 보령 머드 축제는 한국인과 외국인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축제이다.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축제라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03 보령 머드 축제에 관한 사실 정보와 기자의 긍정적 관점이 담긴 의견이 혼합되어 내용이 전달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보령 머드 축제가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하고 있다고 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② 앞서 보령시가 뉴질랜드와 수출 협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언급함으로써 보도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

③ 주한 뉴질랜드 대사와 보령 시장의 인터뷰 내용을 제시하여 보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④ 축제가 세계적인 축제로 커 가고 있다는 뉴스 진행자의 말을 기자가 끝부분에서 다시 반복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04 신문과 같은 인쇄 매체는 문자 언어를 통해 많은 양의 정보를 전달할 수 있으므로 복잡한 내용을 논리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내용을 단순화하여 전달한다는 것은 인쇄 매체의 특성과 거리가 멀다.

오답 풀이 ① 인쇄 매체를 사용하면 동일한 내용을 많은 독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② 인쇄 매체는 정보를 독자에게 일방향적으로 전달한다.

③, ⑤ 인쇄 매체는 주로 문자 언어를 통해 내용을 전달하며 사진, 그래프, 그림 등의 보조 자료를 사용하기도 한다.

05 보령 시장의 말을 인용하여 머드 축제의 전망을 제시하고 있을 뿐 독자에게 머드 축제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표제는 '축제 한류 이끄는 '보령 머드 축제'', 부제는 '스페인 이어 뉴질랜드에 수출, 외국인 관광객 약 44퍼센트 늘어나', 전문은 '국내 대표 축제인 ~ 26일 밝혔다.', 본문은 전문 이후 모든 내용이 해당한다.

② '43만 9,000여 명', '30만 4,000여 명', '44퍼센트' 등 올해 머드 축제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의 수를 구체적 통계 수치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③ 전문과 본문에서 보령시가 로토루아 시와 머드 축제 수출 협약을 맺었음을 전하고 있다.

④ 보령 머드 축제와 관련된 사실적 정보를 비교적 객관적 태도로 전달하고 있다.

06 ㄴ의 기사문은 '표제 - 부제 - 전문 - 본문'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데 글쓴이의 관점은 보령 머드 축제에 대하여 '축제 한류'를 이끈다며 긍정적으로 제시한 표제에서 가장 먼저 드러난다.

07 제시된 사진은 보령 머드 축제의 사진으로, 많은 외국인들이 즐거운 얼굴로 축제를 즐기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 사진을 통해 보령 머드 축제가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참여하는 세계적인 축제임을 뒷받침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머드 축제가 진흥을 이용한다는 것은 굳이 사진 자료를 활용하지 않더라도 대부분 배경지식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며, 글의 주제와 관련성도 떨어진다.

②, ③ 보령 머드 축제의 사진이므로 로토루아 시에서의 축제나 외국에 수출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지는 못한다.

④ 보령 머드 축제에 외국인이 많이 찾는다고 하였을 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지는 않았다.

08 ㄴ는 인쇄 광고로서 이미지와 문자 언어를 모두 활용하여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현장의 영상이나 사진 자료 등을 통해 현장감 있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지만 인쇄 광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② 포스터와 같은 인쇄 광고이므로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전달하기에 적합하며 많은 정보를 전달하기는 어렵다.

③ 인쇄 매체이므로 정보의 보존성이 뛰어나다.

⑤ 영상과 자막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텔레비전 매체이다.

09 ㄴ에서 사물놀이 복장을 한 우리나라 사람을 맨 앞에 그리고 그 옆에 외국인을 그려 넣은 것은 전통놀이 체험이 행사의 핵심임을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오답 풀이 ① 문자 언어를 통해 머드 축제의 날짜 및 장소를 제시하고 있다.

② ㄴ는 인쇄 광고로 머드 축제에 대한 홍보가 목적이다. 따라서 주최측은 많은 관광객이 참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이미지와 문자 언어를 활용하여 행사 내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하고 있다.

⑤ 외국인인 한국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을 이미지를 통해 표현함으로써 보령 머드 축제가 세계인들이 함께 즐기는 축제라는 점을 알리고 있다.

10 ㉔는 많은 사람들에게 축제를 알리고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인쇄 광고이다. 한국에서 열리는 축제이나 축제명을 영어로 표기한 것은 한국인뿐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도 홍보 대상으로 삼아 축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1 <보기>는 광고의 정의와 목적, 광고를 볼 때 유의할 점에 대한 설명이다.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 광고에서 어떤 표현 방법을 사용하였는지 살펴보면 광고의 의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소단원 평가

본문 011~017쪽

01 ③ 02 ③ 03 ② 04 ⑤ 05 ③ 06 보령 머드 축제의 장점과 문제점을 함께 제시하고 그 개선 방안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07 ⑤ 08 ⑤ 09 ② 10 ③ 11 ③ 12 ③ 13 ⑤ 14 ② 15 ④ 16 내용이 편견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한가? 17 ① 18 ② 19 ③ 20 (가)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의 수를 조사한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으며, 축제를 즐기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사진을 사용하여 보령 머드 축제가 세계적인 축제임을 뒷받침하고 있다. 21 ⑤ 22 ④ 23 ④ 24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홍보 효과를 의도한 것이다. 25 ⑤

01 (가)는 보령 머드 축제의 긍정적인 측면만을 부각하고 있고, (나)는 보령 머드 축제의 긍정적인 면과 함께 부정적인 면도 지적하며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가)가 공정하고 (나)가 공정하지 않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가)는 보령시와 뉴질랜드 로토루아 시 간의 머드 축제 수출 협약 체결 소식을 전달하는 기사문이고, (나)는 보령 머드 축제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기사문이므로 (가)와 (나) 모두 보령 머드 축제를 제재로 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② (가)에서는 ‘축제 한류’라는 말을 통해 보령 머드 축제가 세계적인 축제로 거듭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나)에서는 공연과 머드를 활용한 체험 행사가 재미있지만 대기 시간이 아쉬움을 보여 준다. 표제와 부제를 통해 본문에서 이야기할 내용을 드러내고 있는데, (가)는 긍정적인 데 비해 (나)는 긍정적인 면과 아쉬운 면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④ (나)에서는 보령 머드 축제가 세계적인 축제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반면, (가)에서는 보령 머드 축제가 세계적인 축제임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그 사실을 부각하고 있다.

⑤ (가)에서는 보령 머드 축제의 문제점에 대한 내용은 지적하지 않았고, (나)에서는 머드 체험장의 시설물과 먹을거리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02 [C]에서 보령 머드 축제가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해 왔다고 한 진술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축제를 바라보는 글쓴이의 긍정적인 시각이 반영된 정보라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A]에서는 보령시가 뉴질랜드 로토루아 시와 수출 협약을 맺은 사실을 전달하고 있다.

② [B]에서는 뉴질랜드 대사가 직접 축제장을 찾고 협약의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는 사실을 전달하고 있다.

④ [D]에서는 보령시가 집계한 보령 머드 축제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의 수와 관련된 통계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⑤ [E]에서는 보령 시장의 말을 있는 그대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글쓴이의 관점이 담긴 의견이 아닌 사실 정보로 볼 수 있다.

03 (가)는 보령시에서 집계한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제시하여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은 기사문의 구성 방식인 ‘표제-부제-전문-본문’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③ 축제의 관계자인 보령 시장의 말을 인용하여 축제의 전망을 생생하고 현장감 있게 전달하고 있을 뿐,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고 있지는 않다.

④ 이 글은 신문 기사로 보령 머드 축제에 대한 정보를 비교적 사실적이고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지, 개인의 주장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⑤ 보령 머드 축제의 수출 협약 체결 소식을 전달하고 있을 뿐 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담고 있지 않고, 사람들이 축제에 참여할 것을 유도하고 있지도 않다.

04 2문단의 “뉴질랜드로의 두 번째 머드 수출을 위해 보령시는 지난달 보령 시장 등이 로토루아 시를 방문해 협약을 맺은 바 있다.”라는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수출 협약은 뉴질랜드 로토루아 시에서 맺었다. 주한 뉴질랜드 대사가 축제장을 찾은 것은 협약을 맺은 이후에 보령 시장과 구체적인 협약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었다.

오답 풀이 ① 1문단에서 ‘국내 대표 축제인 보령 머드 축제가 수출길에 오르는 등 세계적인 축제로 거듭나고 있다.’라고 하였다.

② 2문단에서 스페인 토마토 축제에 머드 체험장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처음 해외에 전파했다고 하였다.

③ 4문단에서 ‘해마다 대천 해수욕장 일원에서’ 열린다고 하였다.

④ 3문단에서 로토루아 시는 뉴질랜드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 머드 축제를 개최한다고 하였다.

05 (나)는 인터넷 기사로 사진, 그림과 같은 시각 자료뿐 아니라 동영상 자료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ㄴ은 “유료로 이용할 수 있는 머드 체험 구역의 시설물 대기 시간이 한두 시간에 이르러, 입장료 대비 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낮았다.”라는 부분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적절하다. ㄷ은 “음식 선택의 폭이 좁으므로 먹을거리를 다양화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 실을 수 있는 자료로 적절하다.

오답 풀이 ㄱ. (나)는 보령 머드 축제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중 머드 광장에만 인파가 집중적으로 몰린다는 점을 꼽았다. 그러나 머드 광장의 시설물 고장으로 다친 사람이 있다는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자료이다.

ㄹ. (나)는 올해 열린 보령 머드 축제의 발전 방안을 논의한 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이다. 따라서 작년과 올해에 연속으로 축제에 참여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제시할 필요가 없다.

06 (나)를 <보기>에 제시된 ‘내용이 편견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한가?’의 기준에 따라 평가해 보면, (나)는 ‘축제 발전 방안’을 주체

로 한 토론회에서 외국인 홍보 단원이 머드 체험 행사에 만족감을 드러냈음을 전달하고 이어서 대기 시간, 먹을거리, 교통수단 등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어 긍정적인 면과 문제점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개선점도 언급하고 있어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공정한 내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07 (가)는 인쇄 광고로 이미지, 배경, 광고 문구를 통해 내용을 전달하고 (나)는 텔레비전 뉴스로 음성 언어와 자막, 영상 등을 통해 내용을 전달한다. (나)는 (가)와 다르게 음성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두 매체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오답 풀이 ① (가)는 문자 언어와 이미지를 통해 내용을 전달하지만 주로 문자 언어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한다. 포스터는 주로 홍보를 목적으로 하므로 전문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다.

② (나)는 영상을 통해 내용을 전달하는데, 내용으로 보아 사실을 전달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나)는 전파를 이용하므로 인쇄 매체인 (가)보다 더 빠르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④ (가), (나) 모두 발신자와 수신자 간에 쌍방향 소통이 불가능하다.

08 보령 시장의 인터뷰에서는 보령 머드 축제가 뉴질랜드에 수출된다는 내용만 언급되고 있을 뿐, 세계 여러 나라에 수출된다는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① 뉴스 진행자와 기자의 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② 주한 뉴질랜드 대사의 인터뷰 내용을 직접 제시하여 그가 축제장을 찾아 즐겼다는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③ 뉴스 진행자가 보령 머드 축제가 세계적인 축제로 커 가고 있다고 한 것과, 기자가 끝부분에서 보령 머드 축제가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하고 있다고 한 데서 긍정적인 관점을 읽을 수 있다.

④ 기자의 말을 통해 보령시가 로토루아 시와 머드 축제와 관련한 수출 협약을 체결했음을 알 수 있다.

09 보령 시장의 인터뷰 내용은 축제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보령 머드 축제의 콘텐츠를 뉴질랜드에 수출하여 세계인이 함께하는 축제로 만들겠다는 내용이다.

오답 풀이 ① 기자가 보령 머드 축제의 현장에 나가 취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축제를 즐기는 모습을 영상으로 제공하여 현장감을 전달하는 것은 적절하다.

② 기자가 앞서 보령시가 뉴질랜드 로토루아 시와 머드 원액 수출 협약을 맺은 사실을 전달하고 있으므로 협약 증서를 자료 화면으로 보여 주면 기자의 말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

④ 주한 뉴질랜드 대사의 인터뷰 장면을 자막과 함께 보여 주면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

⑤ 주한 뉴질랜드 대사가 머드를 얼굴에 바르며 신기한 듯 미소를 띠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얼굴을 클로즈업하여 축제의 즐거움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

10 뒷부분에서 축제에 가고 싶어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지만 자신이 직접 한산 대첩 축제에 참여한 적이 있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은 통영 한산 대첩 축제를 홍보하는 의도로 쓴 글로, 통영 한산 대첩 축제의 기간, 장소, 성격, 내용 등에 대한 정보가 잘 드러나 있다.

② 글의 첫부분에 ‘죽고자 하면 살 것ियो,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라는 이순신 장군의 명언을 인용해서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축제라는 점을 잘 드러내고 있다.

④ 글을 실을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동영상과 사진 등 다양한 자료를 첨부하여 독자에게 보여 줄 수 있다. 따라서 축제와 관련된 사진이나 동영상을 함께 제시하면 축제를 홍보하고자 하는 의도가 더 효과적으로 드러날 것이다.

⑤ ‘이런 축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서도 가지 않는다면,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지 않는다는 것이겠조?’는 지나친 비약으로 편견에 치우친 표현이다. 따라서 공정한 내용이 되도록 고쳐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11 (가)는 인터넷 기사로, 텔레비전 뉴스인 (나)와 달리 표제와 부제를 사용하고 있다. 표제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이 보령 머드 축제에 대해 평가한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부제에서는 표제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덧붙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는 보령 머드 축제의 장단점과 개선 방향을, (나)는 주한 뉴질랜드 대사의 축제장 방문 및 보령시와 뉴질랜드 간의 수출 협약 체결을 객관적인 태도로 전달하고 있다. (가)와 (나) 모두 보령 머드 축제 참여를 유도하고 있지는 않다.

② (가)와 (나) 모두 보령 머드 축제가 열리는 날짜와 장소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④ (나)는 인터뷰 내용을 소개하고 있으나, 이를 의사소통 참여자들의 대화로 볼 수는 없다.

⑤ (가)와 (나)의 예상 독자는 불특정 다수이므로, 특정 대상을 예상 독자로 설정했다고 볼 수 없다.

12 (가)는 보령 머드 축제의 장점, 문제점, 개선 방향을 모두 언급하였고, (나)는 보령 머드 축제의 긍정적인 면만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가)가 (나)에 비해 더 공정하게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가)는 인터넷 기사, (나)는 텔레비전 뉴스이다. (가)와 (나)는 이처럼 다른 매체를 이용하고 있지만, ‘보령 머드 축제’라는 동일한 제재를 다루고 있다.

② (가)와 (나)는 모두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매체가 전달하는 내용이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하지 따져 보아야 한다.

④ (나)는 텔레비전 뉴스이기 때문에 뉴스가 전달하는 정보가 수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전달된다. 하지만 (가)는 인터넷 기사이므로, 댓글을 이용하여 정보의 수용자와 생산자가 쌍방향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

⑤ (가)는 음악, 그림, 사진, 영상 등을 모두 이용할 수 있음에도 문자 언어로만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가)에 머드 광장에 인파가 집중적으로 몰리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과 같은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면 독자가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13 (가)에서는 외국인 홍보 단원이 ‘공연과 머드를 활용한 체험 행사에 만족감을 나타냈다.’고 했고, (나)에서는 주한 뉴질랜드 대사가 ‘정말 즐겁습니다.’, ‘멋졌습니다.’라고 인터뷰한 내용을 담았다. 따라서 (가)와 (나) 모두에서 외국인들이 보령 머드 축제에 만족감을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가)는 보령 머드 축제의 시설과 기술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지만, (나)는 이와 관련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나)는 보령 머드 축제가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하고 있다는 내용만을 전달하고 있다.

② (나)는 보령 머드 축제를 수출하는 협약을 체결했다는 정보를 전달하고 있지만, 수출 협약 체결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가)는 이와 관련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③ (가)에서 보령 머드 축제의 문제점을 다루고는 있지만, 내국인들을 위한 행사가 부족하다는 내용은 언급하고 있지 않다. (나) 역시 이와 관련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⑤ (가)에서 보령 머드 축제의 문제점을 언급하고는 있지만, 이는 축제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 방향을 생각해 보기 위함이지, 세계적인 축제로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을 지적한 것이 아니다. 또한 (나)는 보령 머드 축제가 세계적인 축제가 되어 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14 (가)는 기사문으로 표제와 부제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표제는 기사의 주제를 압축적으로 드러내며, 부제는 표제의 내용을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 (나)의 주제는 주한 뉴질랜드 대사의 축제장 방문 및 보령시와 뉴질랜드 간의 수출 협약 체결로 보령 머드 축제가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답 풀이 ① 표제가 뉴스의 주제를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부제와 관련된 내용은 뉴스에 나타나 있지 않다.

③ 뉴스에서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하고 있는 보령 머드 축제의 위상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표제는 적절하지만, 부제와 관련된 내용은 뉴스에 나타나 있지 않다.

④ 주한 뉴질랜드 대사가 보령 머드 축제에 매년 참가한다는 부제와 관련된 내용은 뉴스에 나타나 있지 않다.

⑤ 주한 뉴질랜드 대사의 축제장 방문 및 보령시와 뉴질랜드 간의 수출 협약 체결과 같은 뉴스의 주요 내용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15 (가)에서 외국인 관광객의 의견을 중심으로 보령 머드 축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나, 축제 관계자의 인터뷰 내용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부제는 '좋아요!'와 '아쉬워요!'와 같이 축제에 대한 상반된 평가 내용을 대조하고 있다.

② 머드 축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시설에 대한 낮은 만족도, 특정 행사에 인파가 집중되는 현상, 선택의 폭이 좁은 먹을거리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③ 표제는 "재밌지만, 대기 시간 길어"와 같이 외국인의 의견을 직접 인용하는 방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⑤ 기사의 내용은 '주한 외국인 충청권 세계 축제 홍보단' 40여 명이 직접 체험하고 토론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보령 머드 축제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을 드러내고 있다.

16 <보기>의 글쓴이는 (가)의 글쓴이가 외국인들이 생각한 보령 머드 축제의 장점과 단점을 함께 언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까지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대상에 대한 정보를 공정하게 전달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는 (가)의 내용이 편견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한지 따져 본 것이라 할 수 있다.

17 (나)의 매체는 '텔레비전'이다. 텔레비전은 음성 언어, 문자 언어, 영상을 함께 사용하여 내용을 전달하며, 전파를 이용하여 많은 양의 정보를 빠르게 전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오답 풀이 ㄷ. 신문과 같은 인쇄 매체의 특징이다.

ㄹ. 블로그, 누리소통망(SNS)과 같은 인터넷 매체의 특징이다.

18 보령시와 로토루아 시의 협약 장면을 보여 줌으로써 정보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사람들이 봄비는 머드 축제장의 모습과 축제를 즐기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의 모습을 통해 축제가 성황

리에 진행되고 있음을 부각할 수 있다.

오답 풀이 ㄴ. (나)에서는 보령 시장이 아니라 주한 뉴질랜드 대사가 머드 축제장을 찾아 체험을 즐겼다고 보도하고 있다.

ㄷ. (나)에서는 주한 뉴질랜드 대사가 축제장을 찾아 머드 체험을 즐겼다고 보도하고 있을 뿐, 뉴질랜드 대사에게 축제장의 시설과 기술을 설명하였다는 내용이 없다. 보령시가 뉴질랜드 로토루아 시에 머드 원액을 수출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를 설명하기 위해 자료를 넣는다고 하더라도 기자가 주한 뉴질랜드 대사에게 머드 축제장의 시설과 기술을 설명하는 모습을 제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19 (가)와 (나)는 모두 인쇄 매체를 이용한 자료이다. 하지만 (가)는 신문 기사로, 문자 언어를 주로 사용하여 복잡한 내용을 논리적이고 자세하게 전달하고 있지만, (나)는 광고지로 문자 언어를 이용하여 축제에 대한 정보를 간략하게 전달하고 있을 뿐 내용을 논리적이고 자세하게 전달하고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가)는 '보령시와 뉴질랜드 간의 '보령 머드 축제' 수출 협약 체결'이라는 정보를 전달하는 기사문이다. (나)는 "보령 머드 축제"의 날짜 및 장소 홍보'라는 정보 전달 및 설득의 목적을 지닌 인쇄 광고이다.

② (가)에서 '보령 머드 축제를 즐기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들'이라는 사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나) 역시 그림을 사용하고 있다.

④ 주로 문자 언어를 이용하여 내용을 전달하는 것은 (가)이다. (나)는 인쇄 광고로 이미지를 중심으로 하여 문자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⑤ (가)는 보령 머드 축제의 긍정적인 측면만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균형 잡힌 시각에서 내용을 공정하게 전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역시 보령 머드 축제에 외국인 관광객이 참여하도록 유도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으므로 내용을 공정하게 전달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20 '지난 15~24일 열린 ~ 보령시는 집계했다.' 부분에서 보령시가 집계한 외국인 관광객 수에 관한 통계 자료를 제시하여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또 기사의 마지막 부분에 축제를 즐기고 있는 외국인들의 사진을 제시하여 '보령 머드 축제'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참여하는 세계적인 축제임을 뒷받침하고 있다.

21 로토루아 시는 보령 머드 축제를 본보기로 한 머드 축제를 개최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주한 뉴질랜드 대사가 직접 축제를 체험하고 보령 시장과 수출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하였다. 그러나 로토루아 시에서 머드 축제를 개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기사에 드러나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뉴질랜드 대사가 보령 머드 축제장을 찾아 직접 축제를 체험하고 보령 시장과 머드 원료 수출에 대한 구체적인 협약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하였다.

② 축제를 처음 시작한 때는 1996년이며, 2014년부터 2년간 스페인 토마토 축제장에 머드 체험장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머드 축제를 수출했다고 하였다.

③ 올해 머드 축제 외국인 관광객 수는 43만 9,000여 명으로, 지난해의 30만 4,000여 명보다 약 44퍼센트가 늘어난 수라고 하였다.

④ '이번 수출은 머드 축제가 한류 문화를 이끄는 세계 유명 축제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보령 시장의 말을 통해 앞으로의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22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하고 있는 '보령 머드 축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보령시가 스페인에 이어 뉴질랜드와도 머드 축제의 수출과 관련한 협약을 맺었음을 알리고 있다. 하지만 다른 나라 축제와의 차이점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23 (나)는 인쇄 광고로, ‘보령 머드 축제’가 열리는 기간 및 장소를 문자 언어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 이 광고에서는 축제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이미지로 표현하였지만, 시설물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오답 풀이 ① ‘2016. 7. 15.(금)~24.(일)’이라고 표기하여 축제가 열리는 기간과 장소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② ‘머드에 풍덩! 축제에 활짝!’이라는 문구는 대규모 표현으로, 축제의 재미와 즐거움을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이미지의 상단에는 머드 놀이 기구를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 중간 부분에는 온몸에 머드를 묻힌 사람의 모습, 하단에는 음료를 마시거나 사물놀이를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드러나 있는데 이는 축제에서 진행될 행사들을 간략하게 제시한 것이다.

⑤ 사물놀이 복장을 한 우리나라 사람과 외국인이 함께 어울려 축제를 즐기는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보령 머드 축제가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축제라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4 축제명을 ‘Boryeong MUD Festival’이라고 영어로 표기한 것은 외국인 관광객의 이해를 돕고 축제의 홍보 효과를 의도한 것이다.

25 <보기>는 현우가 사는 지역의 축제를 소개하고 홍보하는 글이다. 통영 한산 대첩 축제의 역사와 명성을 주제로 하여 글쓴이의 긍정적·우호적 관점이 드러나는 글이지만, 축제에 참여한 사람을 인터뷰한 내용이나 축제에 대한 그들의 반응을 인용한 내용은 찾을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와 같은 이순신 장군의 명언을 글의 도입 부분에 활용하여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② 멋진 볼거리뿐만 아니라 활 만들기 체험, 수군 체험, 노 젓기 체험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되어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③ ‘2000년 8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 동안 열리며, 각종 행사가 통영시 문화 마당 및 통제영, 이순신 공원 등 통영시 일원에서 진행된다’고 하여 축제가 열리는 기간과 장소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④ ‘이 축제는 ‘한산 대첩’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만큼 한산 대첩의 역사적 현장을 재현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여 축제의 이름과 연관 지어 축제의 특색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다.

(2) 마지막 째

본문 확인 문제

본문 019~029쪽

- 01 ① 02 ④ 03 ⑤ 04 ④ 05 ④ 06 한재산 단단히 붙잡았다 07 ④ 08 ③ 09 ② 10 강 노인의 땅에 생동이 빌딩을 짓고, 거기에 초호화판 위락 시설이 들어서면 동네가 환해질 것이다. 11 ④ 12 ③ 13 ③ 14 ④ 15 ③ 16 ③ 17 ① 18 ⑤ 19 ⑤ 20 ② 21 ② 22 ④ 23 땅을 판 돈으로 해결해야 할 것 24 ⑤ 25 ① 26 ⑤ 27 ② 28 ② 29 팔육인가 팔팔인가, 도로 주변 미화 사업 30 강 노인의 며느리가 돈을 갚지 못하더라도 동네 지주인 강 노인이 대신 갚아 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31 ② 32 ⑤ 33 도시화 열풍(개발 열풍) 34 ② 35 ③ 36 ③ 37 ④ 38 미련, 애정

01 ‘원미동 아이들은 집 안에서 틀어박혀 지내는 법은 애당초 배운 적이 없다.’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이 글은 작품 밖의 서술자가 인물과 사건을 분석하는 전지적 작가 시점을 취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② 서술의 초점이 한 인물에 맞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동네 아이들, 지물포 주 씨 등 여러 명의 원미동 주민들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③ 서술자가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는 것은 1인칭 시점이다.

④ 인물의 회상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⑤ 공간적 배경인 원미동의 생동감 있는 모습이 나타나 있을 뿐, 신비로운 분위기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02 검댕투성이가 된 아이들의 얼굴을 묘사한 것은 불장난을 한 아이들의 얼굴이 그을음 때문에 검정색으로 변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일 뿐 이들이 열악한 환경에 처했음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바람이 부는 상황을 배경으로 제시하여 황량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② ‘그을음’을 ‘나방 떼’에 비유하여 대상을 생동감 있게 드러내고 있다.

③ ‘원미동’이라는 구체적 지명을 제시하여 사실감을 부여하고 있다.

⑤ ‘달아나 버린다.’에서 현재 시제를 사용하여 현장감을 주고 있다.

03 (라)에서 강 노인 말고는 강남 부동산이 원미동 23통에 가장 오래 터를 잡고 있는 가게라고 하였으므로, 원미동 23통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은 강 노인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박 씨가 원미동에서 한재산 단단히 붙잡았다는 사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② ‘강 노인이라고 부르기도는 지주라고 칭해야 더 잘 알았고’와 아직도 팔지 않은 땅이 삼백 평 남짓하다는 서술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③ 강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 말고 용문이를 부르면 그의 이층집에 있던 막내아들 용문이가 금세 튀어나오곤 했다는 내용에서 알 수 있다.

④ ‘혈값의 원미동 땅들이 ~ 눈부실 정도였다.’를 통해 알 수 있다.

04 “고흥댁 말에 의하면 그가 막내아들 용문이를 어쩌나 깐깐하게 다루는지 이날 이때껏 아들하고 다정히 말을 주고받는 것을 본 적이 없노라고 했다.”라는 부분을 통해 강 노인의 성격이 다정다감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05 이 작품은 전지적 작가 시점을 취하면서 ‘고흥댁 말에 의하면 ~ 본 적이 없노라고 했다.’, ‘그의 말을 그대로 믿는다면, ~ 거간꾼이 돼 버렸다는 박 씨였다.’ 등에서 작품 속 인물인 고흥댁의 말을 전해 듣는 형태로 서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 활약상은 눈부실 정도였다.’,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와 같이 서술자가 작품에 직접 개입하여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06 박 씨가 한때 서울 강남땅을 떠 주무르듯 했다는 사실과, 혈값인 원미동 땅들을 황금값으로 올리는 데 눈부신 활약을 했다고 한 것을 통해, 그가 원미동을 이익 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고 큰 이익을 챙겼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 이러한 면모는 박 씨가 원미동에서 ‘한재산 단단히 붙잡았다’라는 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07 강 노인은 비싼 땅에다가 푸성귀 따위를 가꾸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절대 땅을 팔지 않겠다는 의사를 강력히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아 땅값이 오르는 것에 크게 관심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어느 놈 하나 생활비 보태 줄 자식은 없어서’를 통해, 강 노인의 자식들이 강 노인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줄 형편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동네 사람들이 강 노인의 밭에 연탄재를 버리는 행동으로 불만을 표출해도 강 노인은 올해 봄에도 어김없이 밭농사를 짓고자 한다.

③ 강 노인이 동네가 개발될 것이라는 박 씨의 말을 믿지 못하는지는 이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없다.

⑤ 강 노인이 농사를 고집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농사를 짓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유리하다는 생각을 지녔다고 볼 수는 없다. 강 노인은 땅의 전통적 가치를 중시하는 인물로, 땅을 생명의 근원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밭농사를 계속하는 것이다.

08 강 노인이 말하는 ‘서울 것들’이란 농사를 짓는 그의 밭에 연탄재를 함부로 내다 버린 동네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땅의 소중한 가치를 모르는 몰상식한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연탄재를 버린 사람들을 지칭하므로 땅이 없는 가난한 존재로 보기 어렵다.

② 땅의 소중한 가치를 모르는 것일 뿐 농사일을 천박하게 여기는지는 알 수 없다.

④ 연탄재를 버린 사실만으로 푸성귀를 훔대한다고 보기 어렵다.

⑤ 농사보다 도시 발전에만 관심을 갖는지는 이 부분에서 확인하기 어렵다.

09 강 노인은 박 씨의 얼굴을 보는 것을 괴로워하고 있다. 이 이유는 ㉠의 뒤에 제시되어 있다. 즉 강 노인은 땅을 팔 생각이 없는 데 박 씨가 얼굴을 마주칠 때마다 땅을 팔아 보라고 회유를 했기 때문이다.

오답 풀이 ①, ④ 강 노인이 박 씨의 외모를 질투하거나 못마땅하게 여기는지는 이 글을 통해 알 수 없다.

③ 강 노인이 한사코 농사를 짓겠다고 한 데서 그가 이전부터 지금까지 땅을 팔 생각이 없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⑤ 박 씨가 강 노인의 차림새를 보고 그를 무시했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10 ㉠ 뒤에 이어지는 ‘강 노인의 나머지 땅을 한꺼번에 사들여서 ~ 동네가 삼시간에 환해질 것이라고 했다.’를 통해 박 씨가 늘어놓는 온갖 ‘감언이설’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다. 쌍둥이 빌딩을 지어 부천의 명물로 만들고, 초호화판 위락 시설이 들어서서 동네가 환해질 것이라고 말했음을 알 수 있다.

11 고흥택은 자기네는 셋방 소개로 받는 것으로도 얼마든지 살 수 있고, 강 노인의 땅을 팔아 주기 위해 애를 쓰는 것은 ‘한동네 사는 정’ 때문에 하는 일임을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그들 부부가 땅을 팔 생각이 없다는 강 노인을 끈질기게 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강 노인의 이익을 위해 땅을 팔라고 권유하는 것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다. 강 노인의 땅에 대한 소개료나 그 외 이익을 얻기 위함일 것이다.

오답 풀이 ① “아직도 유 사장 마음은 이 땅에 있는 모양이니께 ~”라는 박 씨의 말을 통해 알 수 있다.

② 강 노인이 자신에게 땅을 팔라고 회유하는 박 씨 부부에게 ‘서울 것들’이라 비난하고 원미동 사람들을 모두 서울 고평이라고 한 데서 짐작할 수 있다.

③ “영감님도 욕심 그만 부리고 이만한 가격으로 임자 나셨을 때 후딱 팔아 치우시요.”라는 고흥택의 말을 통해 그는 강 노인이 땅값을 더 받으려고 땅

을 팔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⑤ “건물 용도부터가 강 노인 마음에는 들지 않았지만” 부분에서 짐작할 수 있다.

12 박 씨는 팔팔 올림픽 전에 북에서 쳐들어온다는 소문이 돌아 집 매매가 끊겼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이라도 땅을 산다는 임자가 나셨을 때 팔아야 한다고 강 노인을 설득하고 있다. 앞으로 북의 위협이 실제로 일어나거나 계속될 것이라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더 이상 땅값이 오를 수가 없게 돼 있다 이 말씀입니다.”라는 박 씨의 말을 통해 알 수 있다.

② “경국이 할머니도 팔아 치우자고 저 야단이다…….”라는 고흥택의 말을 통해 알 수 있다.

④, ⑤ “영감님, 유 사장이 저 심곡동 쪽으로 땅을 보러 다니나 봅니다.”라는 박 씨의 말과 “아직도 유 사장 마음은 이 땅에 있는 모양이니께 금액이야 영감님 마음에 맞게 잘 조정해 보기로 하고, 일단 결정해 뿌리시요!”라는 고흥택의 말을 통해 알 수 있다.

13 “이제는 참말이지 더 이상 땅값이 오를 수가 없게 돼 있다 이 말씀입니다.”, “팔팔 올림픽 전에 ~ 매기가 톱 끊겼다 이 말입니다.” 등에서 앞으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땅값이 오르지 않을 것임을 예측하며 상대방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강 노인의 마음을 돌리려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강 노인이 과거에 행한 잘못은 제시되지 않았다.

② 쟁점에서 벗어난 화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④ ‘여름마다 똥 냄새 풍겨 주는’을 주위 사람들의 불만을 전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⑤ 강 노인이 가진 땅에 대하여 ‘똥 냄새 풍겨 주는’ 밭으로 두고 있다며 땅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있다.

14 (자)에서 강 노인은 용문이에게 밭을 지키게 하다가 때로는 자신이 직접 나서서 밭을 지켰다고 했다. 용문이를 믿지 못해서 강 노인이 나선 것인지는 이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청소차가 일정한 시간에 오는 것이 아니라서 동네 사람들이 연탄재를 버리는 데 불편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강 노인의 밭에서 나는 인분 냄새에 대한 분풀이로 동네 사람들이 강 노인의 밭에 연탄재를 내던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서울 고평들의 극성 때문에 실컷 장만해 둔 밀거름조차 제대로 쓰지 못하고’에서 알 수 있다.

⑤ ‘중략 부분 줄거리’ 중 “강 노인에게는 딸 하나와 아들 넷이 있는데, ~ 땅 판 돈을 고스란히 아들딸 밑에 쏟아부었으나 거두어들이는 게 없었다.”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5 (자)는 겨울이면 강 노인의 밭이 쓰레기장으로 변하는 결과와, 동네 사람들이 강 노인의 밭에 연탄재를 버리는 이유를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서술자는 전지적 위치의 서술자로, 앞부분과 달라지지 않았다.

② 서술자는 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서술할 뿐 중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

④ 대화와 행동 위주의 극적 제시가 아니라 서술자의 분석을 통해 사건을 제시하고 있다.

⑤ 사건에 대한 원인과 결과를 사실 그대로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추리 소설적 기법이나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표현 방식을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

16 ‘서울 것들’이 강 노인 발에 내다 버린 연탄재로 인해 강 노인과 ‘서울 것들’, 곧 동네 사람들 간에 갈등이 유발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강 노인을 소외된 인물로 보기는 어렵다.

② 이 글의 시대적 배경인 1980년대에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연탄을 때서 난방을 하였으므로 연탄재가 꼭 고달픈 삶을 암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강 노인의 발농사를 망치는 것이므로 강 노인의 농사에 대한 의욕을 불러일으킨다고 볼 수 없다.

⑤ 연탄재를 매개로 강 노인과 동네 사람들이 소통하는 모습은 드러나지 않는다. 오히려 연탄재로 인해 동네 사람들과 강 노인의 갈등이 유발된다.

17 ‘내력’은 ‘지금까지 지내온 경로나 경력’을 의미한다. ‘내림’은 ‘부모나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유전적인 특성’을 뜻하므로 ㉠와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② ‘실정’은 ‘실제의 사정이나 정세’라는 뜻으로, ‘실제의 상황’을 뜻하는 ‘실황’과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다.

③ ‘허사’는 ‘보람을 얻지 못하고 쓸데없이 한 노력’이라는 뜻으로, ‘아무 보람도 없이 애를 씀. 또는 그런 수고’를 뜻하는 ‘헛수고’와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다.

④ ‘생돈’은 ‘쓸데없는 곳에 공연히 쓰는 돈’이라는 뜻으로, 같은 뜻을 지닌 ‘날돈’과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다.

⑤ ‘속셈’은 ‘마음속으로 하는 공리나 계획’이라는 뜻으로, 같은 뜻을 지닌 ‘속공리’와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다.

18 미용실 여주인은 정미 엄마와 무궁화 연립 사람들을 언급하며 강 노인에게 반사회에 참석할 것을 권하고 있다. 반사회에서 정미 엄마가 가만있지 않을 것이고, 무궁화 연립에 사는 이들과 지내며 물러와 한바탕 쏟아 놓고 갔다는 내용을 통해 동네 사람들이 강 노인 발의 인분과 물것 때문에 불만이 많음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6반 반장인 미용실 여주인은 이들의 불만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강 노인에게 반사회에 참석하기를 권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미용실 여주인은 강 노인에게 우호적이므로 그가 발농사를 포기하겠다는 다짐을 받기 위해 반사회 참석을 권유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강 노인과 임 씨 사이에 앙금이 있는 것은 맞지만 미용실 여주인이 두 사람을 화해시키려 하는지는 이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없다.

③ 5반장인 형제 슈퍼 김 씨보다 우리 정육점의 임 씨가 똥 냄새 문제에 앞장서고 있다고 하였을 뿐 김 씨가 강 노인의 발농사에 문제를 제기했다는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④ 무궁화 연립은 5반에 속하므로 6반 반사회에서 직접 강 노인에게 자신들의 요구 사항을 전달한다고 보기 어렵다.

19 강 노인의 발농사를 ‘노는 땅에 푸성귀를 갈아먹는 심심풀이 농사’라고 한 것은 임 씨가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낸 진정서에 대한 시청의 답변 내용이다.

오답 풀이 ① 이태 전 강 노인이 임 씨에게 쇠백정이라고 한 일로 임 씨가 아직도 강 노인을 바로 보지 않는다고 한 데서 알 수 있다.

② “무궁화 연립이라면 5반인데 ~ 임 씨가 올해 또한 집주인들을 부추기는 것이 틀림없었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③ “임 씨가 애초 미용실 자리를 욕심냈다가 강 노인에게 퇴박을 당했던 까닭에 임 씨 스스로 강 노인에게 대한 감정이 좋지 못하였다.”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④ 임 씨는 강 노인에게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똥 냄새 문제를 들어 동네 사람들을 부추겨서 시청에 진정서를 내는 등 강 노인의 발농사를 막으려 하고 있다.

20 제시된 부분에서는 동네 사람들, 그중에서도 집주인들과 강 노인의 갈등, 강 노인의 아내와 강 노인의 갈등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개인과 개인의 갈등’이 주된 갈등의 양상이라 할 수 있다.

21 (타)의 ‘동네 신수가 흰해야 집값도 오를 터인데 모름지기 강 노인 발이 저러고 있어서야 제값대로 보지 않는다는 불만들이 클 것임은 자명했다.’에서 집주인들이 강 노인의 발농사를 반대하는 이유가 집값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③, ④ ‘도로변의 땅에다가 인분 뿌리며 ~ 동네 모양새가 영말이 아닌 것이다. 동네 신수가 흰해야 집값도 오를 터인데’에서 비위생적인 환경, 인분 냄새, 동네 경관 훼손 등은 집값 상승에 걸림돌로 작용할 뿐이므로 근본적인 이유가 아님을 알 수 있다.

⑤ 집주인들이 강 노인이 시대 흐름에 맞추어 살기를 바라는지는 이 글에 드러나 있지 않다.

22 ㉠에서 강 노인은 자식들을 도와주라는 아내의 말에 대꾸하지 않고 있다. ㉠의 뒤에 이어지는 자식들의 부정적 행태를 고려할 때 항상 선부른 행동으로 떼돈을 날리는 자식들을 다시금 도와주어야 하는 상황이 마음에 내키지 않았기 때문임을 짐작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강 노인의 아내는 땅을 지키고자 하는 남편의 생각을 존중하기보다는 땅을 팔아 그 돈으로 자식들을 돕고 싶어 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아내에게 강 노인이 화가 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펌프의 물을 뽑아 올리는 일이 아내의 말에 응대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일이라 보기는 어렵다.

③ 강 노인이 자식들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자신에게만 돈을 쓰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동안 자신이 땅을 판 돈이 모두 자식 뒷바라지를 하는데 들어갔기 때문이다.

⑤ ‘누구 돈이든 쏟아붓고 보자는 저 선부른 행동이 결국은 그의 땅덩이로 막아져야 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노릇이었다.’를 통해 강 노인이 자신의 돈으로 자식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3 ‘누구 돈이든 쏟아붓고 보자는’은 자식들의 행태를 말하는 것이고, 이 행동이 결과적으로 ‘땅덩이로 막아져야’ 함을 고려할 때, 강 노인은 결국 자식들이 벌여 놓은 일을 자신의 땅을 팔아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4 손주인 경국이 말에 의하면 큰머느리는 돈을 구하러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반사회에 참석하였다. 그것이 강 노인을 걱정해서 한 행동인지는 이 글을 통해 알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반사회에) 한번 들여다보라는 그의 언질에 마누라는 금세 통박이다.”에서 강 노인의 아내가 남편을 대신하여 반사회에 가는 것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임을 알 수 있다.

② ‘반사회 끝의 독기 어린 동네 사람들이 저지른 것’에서 동네 사람들이 반사회에서 강 노인의 땅 문제를 성토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③ ‘경국이 녀석이 저녁밥도 안 먹고 ~ 큰며느리가 돌아오는 길에 아예 반상회에 참석한 모양이니’를 통해 알 수 있다.

④ ‘목숨이 붙어 자라고 있는 밭에 연탄재를 내던진 것은 ~ 반상회 끝의 독기 어린 동네 사람들이 저지른 것임은 대번에 알 수 있었지만’을 통해 알 수 있다.

25 ㉠은 강 노인이 고추 모종이 자라는 자신의 밭에 동네 사람들이 연탄재를 내던진 것을 보고 놀라서 말문이 막힌 상황이므로, ‘황당한 일을 당하거나 어찌할 줄을 몰라 정신이 나간 듯이 멍함.’을 뜻하는 ‘망연자실’이 가장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② 반신반의(半信半疑)는 ‘얼마쯤 믿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의심함’을 의미한다.

③ 함구무언(緘口無言)은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함’을 의미한다.

④ 자업자득(自業自得)은 ‘자기가 저지른 일의 결과를 자기가 받음’을 의미한다.

⑤ 비분강개(悲憤慷慨)는 ‘슬프고 분하여 울분이 북받침’을 의미한다.

26 ㉡는 김 씨가 건넨 인사말로, 김 씨는 아내에게 들은 말을 전하며, 이미 팔기로 한 땅에 공들여 농사를 지을 필요가 있느냐는 뜻을 전할 뿐 강 노인이 정말 땅을 팔기로 했는지 그 진위를 확인한다고 볼 수는 없다.

오답 풀이 ① 연탄재 폭격을 당한 모종들이 짓뭇개지고 쓰러져 있다고 하였으므로 연탄재는 모종의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이다.

② 고추 모종을 심어 놓은 밭에 연탄재를 뿌린 동네 사람들을 향해 강 노인이 벌은 말로, 생명을 해치려 한 그들의 행위를 짐승의 처사라고 하는 것으로 볼 때 동네 사람들에게 대한 부정적 인식이 담긴 말이라고 할 수 있다.

③ 강 노인은 모종을 심어 놓은 밭에 연탄재를 뿌린 것을 보고, 서울 것들이라 이러한 해코지를 한다고 생각한다. 즉 이는 서울 것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는 동시에, 서울 것들은 땅의 가치를 모른다는 강 노인의 인식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④ 연탄재를 뒤집어 쓴 고추 모종을 보며 그것들을 살리기 위해 허둥대고 있는 강 노인의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고추 모종에 대한 강 노인의 안타까움이 드러난다.

27 “아니, 누가 그런 소리 해?”, ‘벽력같이 고탍을 지르는’에서 강 노인은 자신이 땅을 내놓았다는 소문에 분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김 씨는 팔기로 한 땅을 가꾸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 뿐 강 노인이 땅을 내놓은 처사 자체를 비난하는 것은 아니다.

③ 강 노인의 아내는 남편에게 자신들의 땅에 은행이나 병원이 들어설 계획이 있다고 말하는데, 이는 박 씨에게 들은 내용을 전하는 것이지 자신이 기대하는 바는 아니다.

④ ‘그냥 해 본 소리겠지요.’ 등을 고려할 때 강 노인의 며느리가 강 노인을 걱정한다고 보기 어렵다.

⑤ 강 노인의 며느리는 반상회에 가서 시아버지인 강 노인이 땅을 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마누라’는 이것을 ‘그냥 해 본 소리’일 것이라고 짐작하는 것으로 보아 며느리와 시어머니 간에도 합의가 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28 앞의 내용에서 강 노인의 아들들이 직공들 월급도 밀리고 처가에 돈을 꾸러 다니는 것은 확인할 수 있지만, 그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은 반상회에서의 일과 관련이 없다.

오답 풀이 ① 땅을 팔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자 강 노인의 아내는 ‘또 한차례 오금을 박’듯이 땅을 팔자고 종용한다.

③ 강 노인이 반상회에 참석하지 않자 동네 사람들은 그에 대한 분풀이로 강 노인의 밭에 연탄재를 내다 버렸다.

④ 반상회에 참석한 큰며느리가 강 노인이 땅을 팔 것으로 이야기한 후, 이 소문이 동네 사람들에게 퍼지게 된다.

⑤ 반상회에서 큰며느리의 이야기를 들은 은혜 엄마는 강 노인을 찾아와 큰며느리가 빌린 돈을 대신 갚아 줄 것을 하소연하였다. 강 노인이 땅을 팔았더니 계약금을 받았을 것이라 생각하고 찾아온 것이다.

29 이 글은 1980년대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팔육인가 팔팔인가’는 1986년 아시안 게임과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이르는 말이고, ‘도로 주변 미화 사업’은 앞의 국제 대회를 앞두고 정책적으로 실시했던 국가 사업을 말한다. 따라서 이들은 모두 이 작품의 시대적 배경인 1980년대의 모습을 보여 주는 소재라고 볼 수 있다.

30 ‘이 동네 지주의 큰며느리라 해서’를 통해 동네 사람들은 큰며느리가 돈을 갚지 못하더라도 강 노인이 대신 갚아 줄 것이라고 믿고 돈을 빌려주었음을 알 수 있다.

31 강 노인은 땅을 팔아 큰돈이 들어왔지만 쉽게 생긴 돈인 만큼 씹씹이도 허망했던 경험이 있다. 그래서 마지막 땅 조각이라도 붙들어서 그곳에 농사를 지어 수확하는 재미를 맛보고 싶은 마음을 쉽게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를 통해 볼 때, 강 노인이 땅을 큰돈을 벌 수 있게 하는 공간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⑤ ‘해마다 씨를 뿌리고 수확을 거두는 재미만큼은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그였다.’를 통해 강 노인이 자신의 땅을 생활의 터전이자 씨 뿌리고 수확하는 재미를 맛보는 공간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마지막 땅 조각을 붙들고 있다는 위안이 강 노인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 등에서 강 노인의 땅에 대한 애착을 알 수 있다.

④ ‘씨 뿌린 땅에서 거두어들이는 수확이 아닌 담에야 어찌 땅 팔아서 그 돈으로 쌀 사고 채소 사며 살 수 있을 것인가.’를 통해 강 노인이 땅을 필요한 먹을거리를 제공해 주는 공간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2 강 노인은 아내와 말싸움을 한 뒤에 땅을 파는 문제로 고민하느라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어울리는 한자 성어는 ‘누워서 몸을 이리저리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함.’이라는 뜻의 ‘전전반측’이 가장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고립무원(孤立無援)은 ‘고립되어 구원을 받을 데가 없음’을 의미한다.

② 전전공공(戰戰兢兢)은 ‘몹시 두려워서 발발 떨며 조심함’을 의미한다.

③ 수원수구(誰怨誰咎)는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겠느냐’는 뜻으로, 남을 원망하거나 탓할 것이 없음을 이르는 말이다.

④ 암중모색(暗中摸索)은 ‘은밀한 가운데 일의 실마리나 해결책을 찾아내려함’을 의미한다.

33 ‘서울 것들 때문에 여기까지 땅값이 들먹거리는’, ‘서울 바람이 몰아닥쳐요 모양으로 설익은 도시가 되지 않았더라면’ 등을 통해 ‘서울 바람’은 동네에 불어닥친 도시화 열풍 또는 개발 열풍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34 ‘철거 보상금을 삼 부 이자로 놓아 주겠다’는 고흥덕의 말은

뒤에 나오는 ‘강 노인의 땅을 밟고 빌려준 돈이니까’를 고려할 때 김영진을 속이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돈을 빌려주어도 폐일 염려가 없음을 강조하기 위한 말로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속이 터질 지경’이라고 하여 생돈을 떼에게 생긴 은혜 엄마의 심리를 서술자가 직접 제시하고 있다.

③ 은행 대출 기간이 차서 은행으로부터 경고장이 날아왔음을 언급함으로 써 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④ 떼뎌하지 못한 일을 과감하게 털어놓는다고 생각하는 강 노인의 관점에서 강 노인 아내의 행동이 서술되고 있다.

⑤ 강 노인과 다툰 후 눈물을 흘리다가 아들 방으로 가 버리는 강 노인의 아내의 행위를 제시하여 강 노인에 대한 섭섭함과 아들을 도와주지 못하는 속상함을 드러내고 있다.

35 이 글에서는 땅의 본래적 가치를 외면한 채 땅을 개발의 대상 또는 이익 창출의 수단으로만 인식하는 동네 사람들 및 강 노인의 가족들과 땅의 전통적 가치를 지켜 내고자 하는 강 노인 사이의 갈등을 다루고 있다. 작가는 이러한 갈등을 통해 산업화·도시화의 흐름 속에서 삶의 터전인 ‘땅’이 개발의 대상이자 이익 창출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세태를 비판하고, 인간과 공존하는 생명의 공간으로서의 ‘땅’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강 노인을 압박하기 위해 동네 사람들이 연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웃과의 교류가 사라지는 세태를 비판한다고 보기 어렵다.

② 동네 사람들이 강 노인의 밭농사를 막으려는 것은 전통적인 먹거리를 외면하여 농사를 못 짓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밭에 번듯한 건물이 들어서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④ 강 노인이 아내와 자식들에게 가부장적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는 인물의 성격적 특성을 나타내는 것일 뿐 비판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

⑤ 강 노인의 자식들이 자식의 도리를 다하지 않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지만 이는 땅에 대한 가치를 소홀히 여기는 세태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므로 주된 비판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36 ‘빛쟁이들이 물려오는 줄 변연히 알면서도 들여다보지 않고 모르는 척하고 있는 용규 내외를 생각하면 꽤심하기 짝이 없었지만’을 통해 용규 내외가 진 빛을 강 노인이 땅을 판 돈으로 갚아 주어야 한다는 내용이 이어질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37 ㉠은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쬘고 아이들이 즐겁게 노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이는 땅을 팔기로 결심한 강 노인의 허탈한 심정과 대비되는 아이들의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강 노인의 심리를 부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② 강 노인이 땅을 팔기로 결심하고 마지막으로 채소에 물을 주는 내용과 이어지고 있으므로 행복한 결말이나 주제 의식을 암시한다고 보기 어렵다.

③, ⑤ 강 노인의 허탈한 심정을 부각하므로 명랑하고 쾌활한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인물 간의 갈등 해소를 암시한다고 보기 어렵다.

38 강 노인은 부동산으로 가던 발길을 돌려 시름없이 밭을 돌려 보고는 밭에서 나는 것들에게 목이나 축여 줘야겠다는 생각에 물을 가지러 간다. 이를 통해 강 노인이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땅에 대한 미련을 아직 버리지 못하였음을, 그만큼 땅에 대한 애정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010 정답과 해설

학습 활동 짚고 가기

본문 030쪽

01 ⑤ 02 ⑤ 03 ② 04 문득 05 ③

01 화자가 시의 표면에 ‘나’로 등장하고 있지만 자신의 태도에 대한 반성을 담고 있을 뿐 자신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화자가 출근길에 경험한 내용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② 화자의 경험을 시간순으로 서술하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③ ‘깃털 색깔이 다른 새 여러 마리가 물결을 타고 있었다’에서 깃털 색깔에 관계없이 잘 어울리는 새와 자신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제시하여 차별적 시각을 가진 자신을 성찰하고 있다.

④ ‘돌아가는 중이지 않을까’에서 의문형으로 시상을 종결함으로써 독자의 공감을 유발하고 있다.

02 ‘저이들도 일자리로 돌아가는’을 통해 화자가 ‘저이들’에 대해 동질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시에는 화자나 ‘저이들’의 삶이 힘들다거나 고달프다는 것을 짐작할 만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통해 ‘고달픈 삶’을 이끌어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아시안 젊은 남녀’를 말하는 이로부터 멀리 있는 대상을 가리키는 대명사를 사용하여 ‘저이들’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이들에게 느끼는 거리감을 나타내고 있다.

② ‘저이들이 무엇하려고’는 아시안 남녀가 국철을 탄 이유에 대한 화자의 천박한 호기심이 드러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③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는 화자가 그들을 쳐다보았음에도 그들은 서로 마주 보며 떠들 뿐 화자에게 관심이 없었음을 알 수 있는 표현이다.

④ ‘깃털 색깔이 다른 새 여러 마리가 물결을 타고 있었다’는 것은 편견 없이 어우러져야 한다는 화자의 깨달음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03 이 시의 화자는 국철에서 아시안 남녀를 발견하고 이들을 천박한 호기심으로 바라보다가 자신의 호기심과 달리 평범한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태도를 반성하고 있다. 따라서 이 시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과 편견을 버리고, 다문화 사회에서 조화와 공존의 가치를 실천해야 한다는 사회·문화적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우리 전통문화와 관련된 내용은 이 시에 나타나 있지 않다.

③ ‘저이들’과 ‘나’ 모두 국철 안에서 남에게 불편을 주는 행동을 하고 있지 않다.

④ 이 시의 화자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반성하고 있을 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은 드러나 있지 않다.

⑤ 다문화 사회에서 외국인들의 문화적 전통과 관련된 내용은 이 시에 언급되어 있지 않다.

04 화자가 아시안 남녀를 차별적 인식을 가지고 쳐다보다가 그들의 평범한 모습을 보고 문득 자신의 천박한 호기심을 깨닫게 된다. ‘문득 ~ 돌렸다’는 부분부터 화자가 깨달음을 얻는 순간이므로 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05 ‘자기 계발’은 자신의 재능이나 능력을 살리어 더 나아지게 하는 것이므로 공동체가 지향하는 사회·문화적 가치가 아니라 개인적 차원의 가치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01 ② 02 ③ 03 연탄재, 팔팔 올림픽 04 ③ 05 ②
06 현실적 가치, 물질적 가치를 추구한다. 07 ④ 08 강 노인네 땅
이 팔려 거기에 번듯한 건물이 들어서야 동네 신수가 흰해져 집값이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09 ⑤ 10 ⑤ 11 ① 12 ⑤ 13 ①
14 ⑤ 15 ② 16 ① 17 땅의 정신적 가치만을 중시하여 동네
사람들의 불안과 가족의 성화를 알면서도 땅을 팔지 않고 계속 농사를
지으려고 함. 18 ② 19 ⑤ 20 ② 21 ② 22 ②
23 ② 24 ① 25 ① 26 ⑤ 27 A: 동네 사람들의 이익, 자
식의 행복 B: 인간과 공존하는 생명의 공간이자 삶의 근원인 땅을 중시

01 부동산의 박 씨가 강 노인에게 집요하게 땅을 팔 것을 회유하
는 것이나 강 노인의 땅을 사들인 후 쌍둥이 빌딩을 지어서 부친의
명물로 만들 것이라는 감언이설을 늘어놓는 것 등을 볼 때 이 작품이
급속한 도시화가 일어나던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2 강 노인이 박 씨에 대해 사치를 부린다고 생각할 만한 단서를
이 글에서 찾기 어렵다. 강 노인이 박 씨와 마주치기를 꺼려 하는
것은 그의 외양 때문이 아니라 그가 만날 때마다 땅을 팔라고 회유
를 했기 때문이다.

오답 풀이 ① 고흥댁은 박 씨의 동업자로, 박 씨를 거들며 함께 강 노인을
설득하고 있다.

② 얼굴만 마주쳤다 하면 은근히 회유를 거듭하더니, '지난겨울부터는 임자
가 나섰다고 숯재 집까지 찾아와서 온갖 감언이설을 다 늘어놓는' 데에서
회유의 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용문이가 지난날 내내 연탄재들을 거두어 내고 겨우 맨땅을 내놓았다고
한 꼴이 요 모양이었다.'라는 서술에서 알 수 있다.

⑤ 박 씨는 땅을 팔아보지 않겠냐고 중용하거나 '임자가 나섰다고' 하는 것
으로 보아 부동산 중개인임을 알 수 있다.

03 (가)에서 '연탄재'는 80년대 난방을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하
던 연탄을 사용하고 남은 것으로 당시의 생활상을 보여 주는 소재이
다. (나)에서 '팔팔 올림픽'은 1988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서울 올림
픽을 이르는 것으로 이 작품의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는 소재이다.

04 (나)는 강 노인과 박씨 부부와의 대화 장면이다. 땅 문제로 박
씨 부부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는 강 노인의 처지가 드러나고, 그들
의 회유에도 불구하고 땅을 팔지 않겠다는 태도를 견지하며 무대
응으로 일관하는 데서 강 노인의 강직한 성격이 드러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박 씨와 고흥댁이 번갈아 강 노인에게 말을 거는 모습을 그리
고 있을 뿐 인물 간의 고조되는 갈등은 드러나지 않는다.

② 주로 대화를 통해 내용을 전개하고 있으므로 서술자의 장황한 해설이 제
시되어 있지 않다.

④ 과거의 사례를 잠시 제시할 뿐 과거와 현재의 교차 서술이라고는 볼 수
없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하고 있다.

⑤ '팔팔 올림픽'을 통해 시대적 배경을 짐작할 수 있지만 당대의 모습을 섬
세하게 묘사하고 있지는 않다.

05 '5반이나 6반이나 정육점 임 씨를 빼고 나면 집주인들을 주축
으로 시비가 있어 왔었다.'를 통해 볼 때 임 씨가 집주인들을 대표

하여 강 노인과 갈등하고 있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남들 다 하는 월급쟁이는 마다하고 떼돈 벌 공리에 떼돈만
날리는 녀석들이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③ '간덩이만 부어서 일만 크게 벌여 놓고 뒷감당은 모두 아버지에게 떠넘기
는 짓들이 오늘까지 계속이었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④ '지물포 주 씨와 사진관 엄 씨도 코앞에 발을 두고 있는 처지이지만 강
노인과 마주치면 깍듯이 어른 대접을 갖추었'고 '셋방 신세인 진만이 아버
지도 그렇고 청소원 김 씨도 하루에 몇 번씩 마주쳐도 공손히 알은체를 해
왔'다는 것에서 동네 사람들 모두가 강 노인이 농사를 짓는 것에 불만을 드
러내고 있었던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⑤ "아, 그러기에 좀 도와주시구려. 남도 아니고 당신 아들 둘이 벌여 놓은
일인데 넘 보듯 하지 말고……."라는 강 노인의 아내의 말을 통해 알 수 있다.

06 이 글과 제시된 내용으로 볼 때 동네 사람들은 개인주의적인
도시의 삶에 적응한 채 자본을 중시하는 현실적, 물질적 가치를 지
향하고 있고, 강 노인의 아내와 자식들도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생
활을 원하고 있으므로 전통적 가치보다는 현실적 가치를, 정신적
가치보다는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07 (라)에서 강 노인은 모종이 심겨진 밭에 연탄재를 버린 사람들
을 비난하며 모종을 살리기 위해 허둥대고 있다. 이와 같이 강 노
인은 도시화 과정에서 자신에게 정서적 위안을 주는 땅을 지켜
내고자 하므로 땅을 삶의 터전이자 인간과 함께 생명을 나누는 공
간으로 생각하는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중시한다고 볼 수 있다.

08 집주인들은 강 노인의 밭이 동네의 격을 떨어뜨리고 집값 상
승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즉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강
노인의 농사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볼 때 집주인들이
극성을 부리는 것은 강 노인의 땅이 개발되어 동네 신수가 흰해져
야 땅값이 오르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09 (다)에서 강 노인은 자식들을 도와주라고 말하는 아내 쪽을 보
지도 않고 물을 뽑아 올린다. 아내의 말을 못 들은 척하는 것으로
보아 강 노인은 자식들이 고생하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
식들의 돈 문제를 자신이 또 해결해야 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㉓는 (다)에서 강 노인의 아내가 남편에게 한 말을 종합해 보
면 알 수 있다.

② ㉓는 '직공들 월급을 몇 달째 거르고 있대요.'에서 알 수 있다.

③ ㉓는 '그러기에 좀 도와주시구려. ~ 넘 보듯 하지 말고.'에서 알 수 있다.

④ ㉓는 '제 형이 보낸답디다. 처가 돈이라도 꾸어 오라고.'에서 알 수 있다.

10 강 노인은 땅의 가치를 중요시하여 땅을 팔지 않기를 원하고
자식들은 강 노인이 땅을 팔아 자신들의 빚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
다. 따라서 강 노인이 땅을 팔지 않는 것이 자식들에게 희생을 강
요하는 일이라고 볼 수 없다.

11 ㉓은 땅을 팔아 자식을 도와주자는 아내의 말에 지금까지 자
식들 뒷바라지를 하느라 대부분의 땅을 팔았다고 하며 거절의 의
사를 밝히는 말이다. 강 노인의 입장에서는 많은 땅을 팔아 지금까
지 자식들을 뒷바라지를 해 주었지만 소용이 없었고 또다시 땅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으므로, 아무리 애를 써도 보람이 없다는

뜻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속담을 활용하면 효과적으로 거절의 뜻을 밝힐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쉬운 일이라도 협력하여 하면 훨씬 쉽다는 말이다.

③ 강한 자들끼리 싸우는 통에 아무 상관도 없는 약한 자가 중간에 끼어 피해를 입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④ 돈을 벌 때는 천한 일이라도 하면서 벌고 쓸 때는 떳떳하고 보람 있게 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⑤ 모양이나 형편이 서로 비슷하고 인연이 있는 것끼리 서로 잘 어울리고, 사정을 보아주며 감싸 주기 쉬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12 ㉠은 강 노인이 고민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함을 나타내고 있다. ㉠의 이어지는 내용에서 강 노인은 자신에게 삶의 보람과 위안을 느끼게 하는 공간인 땅을 끝까지 지키고 싶어 하지만 결국에는 팔기로 결심한다. 이를 통해 강 노인은 땅을 팔지 말지 고민하느라 잠을 이루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③ 땅을 팔지의 여부가 가장 큰 고민이고 자식들에 대한 감정은 지엽적인 문제이므로 자식들에 대한 감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땅을 팔면 그 돈으로 자식들을 뒷바라지해야 하므로 땅을 팔아 생기게 될 돈의 사용처를 걱정하며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예전에 땅을 팔아 버린 것에 대해 강 노인은 ‘다 부질없는 노릇’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해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3 <보기>는 이 글의 배경이 되는 1980년대 사회·문화적 상황에 대한 설명이다. [A]에서 강 노인이 땅을 팔기로 결심했음에도 생명이 자라나고 있는 밭에 물을 줘야겠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아, 작가는 인간과 공존하는 생명의 공간으로서의 땅의 소중한 가치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작가는 땅을 삶의 근원으로 보고 있지만 극단적으로 모든 개발 행위를 반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강 노인이 땅을 팔기로 결심한 것은 형편이 어려워진 아들들 때문이므로 강 노인의 땅에 대한 인식이 시대의 흐름에 맞게 변화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④ 땅을 개발하더라도 최소한의 농지를 남겨 두어야 한다는 입장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⑤ 이 글에서 땅의 개인적 소유권을 둘러싼 갈등이나 이와 관련된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14 독자는 작품에 드러난 작가의 생각을 자신의 가치관에 비추어 평가하면서 작품을 수용해야 한다. 이때 작품의 주제나 사회·문화적 가치가 자신의 가치관과 맞지 않는다고 하여 자신의 가치관을 수정할 필요는 없다. 하나의 사회·문화적 가치에 대해 다양한 인식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주체적으로 작품의 주제나 사회·문화적 가치를 해석하고 평가하며 작품을 수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② 작품을 생산할 때에는 사회·문화적 가치에 대한 자신의 경험, 생각이나 느낌을 바탕으로 관점이 잘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

③. ④ 작품을 수용할 때에는 작품에 드러난 다양한 삶의 방식 및 사회·문화적 가치를 파악하고, 작가의 생각에 공감 또는 비판하도록 한다.

15 강 노인에게 땅은 먹거리와 정신적 위안을 주는 존재로, 강 노인은 자신이 밭에 쏟은 정성에 비해 땅값이 싸다고 인식하여 땅을 팔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땅의 전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땅을 팔라는 회유에도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는 것이다.

오답 풀이 ① (나)에서 고흥택은 강 노인의 아내도 땅을 처분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들어 강 노인을 설득하고 있다.

③ (다)에서 강 노인은 동네 사람들이 자신의 밭에 연탄재를 버리는 이유가 인분 냄새를 풍기며 농사를 짓는 것에 대한 반감 때문이라고 짐작하고 있다.

④ (마)에서 강 노인은 자식들이 큰돈을 벌 궁리에 일단 크게 벌여 놓고 돈만 날리는 것에 대해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다.

⑤ (라)를 통해 원미동 사람들이 강 노인의 밭으로 인해 동네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6 (가)의 허름한 옷차림으로, 맨발 위에 검정 고무신을 신은 모습은 전형적인 농부의 차림새이다. 이는 강 노인이 꾸밈이 없고 소탈한 성격임을 보여 준다.

오답 풀이 ② 땅을 팔라는 회유에도 불구하고 대꾸조차 않는 강 노인의 모습에서 그가 주관이 뚜렷하고 무뚝뚝한 성격의 소유자임을 짐작할 수 있다.

③ 강 노인이 도로 변의 땅에다가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은, 농사일에 대한 애착 때문인지 세상물정에 어둡기 때문은 아니다.

④. ⑤ 박씨 내외가 들어간 후 “서울 것들이란.”이라고 내뱉은 것은 땅의 진정한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17 <보기>에서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욕구가 충돌하는 경우 이를 조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으로 보면 물질적 이익을 추구하는 원미동 사람들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원미동 사람들은 인분 냄새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으며 발농사 때문에 동네가 발전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보기>의 관점에서는 원미동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전통적 방식의 농사를 고집하는 강 노인의 행동을 비판할 수 있다.

18 (다)에서 동네 사람들은 강 노인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동시에 연탄재를 쉽게 처리하기 위해서 강 노인의 밭에 연탄재를 버리고 있다. 이는 공동체적 삶의 모습이 사라진,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삶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19 <보기>를 참고할 때 원미동 사람들은 서울이 아닌 전국 각지에서 온 사람들인데 강 노인은 이들을 모두 서울 꼬나풀이라고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원미동에 오래전부터 터를 잡고 살아 온 강 노인이 볼 때 그들이 서울의 산업화·도시화적 삶의 모습이나 가치관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답 풀이 ① 원미동 사람들은 농사를 포기하지 않는 강 노인에 대해 불만을 지니고 있을 뿐 서로를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는다.

② 원미동 사람들은 농사를 포기하지 않는 강 노인에 대해 불만을 지니고 있을 뿐 지역 간 갈등을 일으키고 있지는 않다.

③ 원미동 사람들이 자본을 중시하는 물질적 가치를 지향하고 있으나 이를 자기 분수에 넘치는 허영심을 지닌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④ 원미동 사람들이 도시화·산업화로 변화하는 세대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거나 이러한 시대 변화를 부조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0 ㉠은 강 노인의 땅이 시가 몇 억의 가치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 노인이 땅을 팔지 않고 푸성귀 따위를 가꾸고 있어서 남는 이익이 크지 않음을 나타낸 것이다. 이는 큰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발농사를 고집하고 있는 상황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21 [A]에서 고흥택은 경국이 할머니의 의견을 언급하며 강 노인에게 땅을 처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B]에서 박 씨는 유 사장이 강 노인의 땅에 관심이 있음을 언급하며 강 노인에게 땅을 팔라고 요구하고 있다. 즉 [A]와 [B] 모두 제삼자의 생각을 언급하며 강 노인이 땅을 팔도록 설득하고 있는 것이다.

22 땅을 내놓지 않았다는 김 씨의 말에 시뻘건 얼굴을 뺨 돌리며 벽력같이 고향을 지르는 강 노인의 모습에서 강 노인이 분노하였음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강 노인은 며느리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들에게 땅을 팔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을 뿐이므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③ 강 노인의 아내가 자식의 뒷바라지에 헌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강 노인이 아내에 대해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④ 강 노인은 아내로부터 큰아들 용규네의 어려운 상황을 전해 듣고 나서도 땅을 팔지 않겠다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⑤ 강 노인은 서울 바람에 땅을 처분한 자신에 대해 울화를 느끼고 있을 뿐이므로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없다.

23 <보기>는 이 소설의 서술상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이 소설의 서술자는 주로 강 노인의 관점에서 사건을 서술하고 있는데, 이는 독자들이 강 노인의 처지와 심리에 공감하게 만듦으로써 자본주의적 도시화의 세태와 땅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라는 주제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 오답 풀이** ① 이 글은 강 노인의 일대기를 서술하고 있지 않다.
 ③ 강 노인의 관점에서 서술된 것이 강 노인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오히려 강 노인과 독자의 거리를 가깝게 하여 강 노인에 심정적으로 동조하게 한다.
 ④ 강 노인의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으므로 강 노인이 겪는 갈등을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게 한다고 볼 수 없다.
 ⑤ 이 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 아닌 전지적 작가 시점이므로, 강 노인이 자신이 관찰한 사건을 직접 전달한다고 볼 수 없다.

24 <보기>는 산업화·도시화의 영향으로 삶의 근원으로 인식되던 땅이 이익 창출의 수단으로 그 인식이 변화하게 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강 노인이 원미동을 ‘설익은 도시’라고 인식하는 것은 ‘서울 바람’과 관련이 있다. <보기>를 참고할 때 ‘서울 바람’은 땅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투기 현상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은 땅의 가치를 잃어 가는 원미동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오답 풀이** ② 원미동은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산업화·도시화의 중심지로 볼 수 없으며, 이제 서울 바람이 불기 시작한 공간이다.
 ③ 가족 공동체의 의미가 퇴색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④ 강 노인의 큰아들이 최신 기계 설비만 갖추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에 처한 것을 통해 최신 기계 설비를 이용한 사업이 유행하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으나 이는 땅의 가치를 잃어 가는 원미동의 상황과는 거리가 멀다.
 ⑤ 강 노인이 소유한 땅의 처분을 둘러싼 갈등을 다루고 있을 뿐, 소유권과 관련된 갈등은 다루지 않고 있다.

25 강 노인은 ‘원미동 장대봉’을 보면서 나무하러 술하게 산을 오르내렸던 젊은 시절을 떠올리고 있다. 따라서 이는 강 노인이 과거를 회상하게 하는 매개체로 기능한다고 할 수 있다. 강 노인은 또한 자신이 참 질기게도 오래 산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그가 시대가

많이 변했음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변하지 않은 원미산 장대봉과 달리 자신이 땀방울을 흘리며 가꾼 땅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비롯된 인식이기 때문이다.

- 오답 풀이** ㉠ 강 노인이 땅을 팔기로 마음을 바꾼 것은 자식들의 곤란한 상황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 강 노인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삶을 추구하고 있지만 속세를 떠나려는 의지를 비치는 않았다.

26 ㉢에서 강 노인은 강남 부동산으로 걸어가다가 고추 모종에 물을 주어야겠다고 생각하며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이런 강 노인의 행동 변화는 땅을 팔기로 결심했어도 땅과, 그 땅에서 자라는 생명들에 대한 진실한 애정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27 강 노인은 마을 사람들의 계속된 항의에 부딪히고 있으며, 자식들이 경제적으로 곤란한 처지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따라서 강 노인이 땅을 처분하는 것은 마을 사람들의 이익과 자식의 행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강 노인은 땅을 삶의 근원이자 인간과 공존하는 생명의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다.

(3) 책으로 세상 읽기

학습 활동 응용문제

본문 040~042쪽

01 ③ 02 ④ 03 통계 자료를 인용하고 있다. 04 ② 05 ③
06 ④ 07 ④ 08 ① 09 ① 10 ⑤ 11 ㉠:매체 ㉡:재구성

01 ‘최악의 저출산 해결책은 공동 육아’와 같은 이 글의 제목과 ‘출생률을 높이려면’, ‘출생률을 실질적으로 높이려면’ 등을 참고할 때 이 글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사회적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산 현상’임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② 여성들의 경력 단절이나 공동 육아 시설의 부족은 저출산 현상을 심화시키는 요인이다.
 ④ 고령화 현상은 저출산과 함께 문제시되고 있는 사회 현상이다.
 ⑤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감소는 저출산이 낳는 결과이다.

02 글쓴이는 사회적 문제인 저출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다자녀 가정의 행복을 홍보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하였을 뿐, 다자녀 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을 문제 해결 방안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 오답 풀이** ① 2문단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출산에 대한 사회 인식을 높이고 새로운 육아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고 하면서 출산에 대한 사회 인식 고취의 일환으로 저출산이 심각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② 4문단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중 새로운 육아 문화 형성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정의 행복함을 홍보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③ 5문단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새로운 육아 문화 형성의 일환으로 남녀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육아 문화를 하루빨리 정착시켜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⑤ 3문단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사회 인식 고취의 일환으로 국내 적정 인구 규모를 오늘날에 맞게 정확히 계산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03 이 글은 저출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주제로 쓴 칼럼으로, 글쓴이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신생아 수에 대한 통계 자료를 인용하고 있다.

04 이 글은 사회적 문제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과 해결 방안을 담고 있다. 이와 같은 글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머릿속에서 자기만의 독창적인 의미를 구성하거나 자신을 둘러싼 상황 맥락 및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자신의 의견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른 사람들의 대안을 모으는 것은 자신의 생각 형성하기가 끝난 뒤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여 최적의 대안을 찾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오답 풀이 ① 문제를 바라보는 글쓴이의 관점을 이해해 보고 자신의 의견과 비교해 봄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형성할 수 있다.

③, ④ 자신이 속한 구체적인 상황과 자신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글의 의미와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⑤ 글쓴이의 생각에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부분을 그 이유와 함께 정리해 봄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형성할 수 있다.

05 제시된 생각그물을 통해 볼 때 ‘환경’이라는 핵심어를 통해 환경 오염과 관련하여 생각을 펼쳐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농촌의 환경 낙후 문제’는 환경 오염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제시된 생각그물을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삶의 문제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대기 오염’을 통해 떠올릴 만한 문제로 적절하다.

② ‘지구 온난화’와 ‘해수면 상승’을 통해 떠올린 문제로 적절하다.

④ ‘화학제품’인 ‘농약’을 통해 떠올릴 문제로 적절하다.

⑤ ‘화학제품’을 통해 떠올릴 내용으로 적절하다.

06 <보기>의 독서 일지를 보면 학생이 읽은 책이 화학제품의 위험성을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생은 이 책을 읽고 우리가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살충제가 생태계뿐만 아니라 인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는데, ‘인류의 생존 위기를 불러오는 요인’이라는 화학제품 이외의 문제를 떠올린 것은 이 책의 주제에서 벗어난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독서 일지의 ‘인상 깊은 내용’을 통해 이끌어 낼 수 있다.

②, ⑤ 벌레를 잡기 위해 뿌리는 살충제가 사람과 동물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한 내용을 통해 이끌어 낼 수 있다.

③ 독서 일지의 ‘책을 선택한 이유’ 중 ‘화학제품으로 인한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통해 이끌어 낼 수 있다.

07 읽기는 독자가 속한 구체적인 상황과 사회·문화적인 맥락 속에서 다른 구성원들과 상호 작용하며 의미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책을 읽고 형성한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면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사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 수 있고(①),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생각이 확장될 수 있으며(③)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적해 대안을 찾아보면서(②) 자신이 이 사회의 일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⑤). 그러나 책을 읽고 형성한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 후에야 자신만의 독창적인 의견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책을 읽은 후 자신의 구체적인 상황과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자신만의 생각을 형성할 수 있다.

014 정답과 해설

08 ㉠ 뒤에 이어지는 살충제가 인류를 포함한 자연계 전반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사실과, ‘새로 알게 된 점’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된 살충제’가 사람과 동물의 몸에 축적되어 질병을 일으키고 먹이사슬로 다른 개체들에게도 전달된다는 내용을 통해, ‘살충제를 무분별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생활 속의 실천 방안으로 이끌어 낼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살충제가 자연계 전반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는데, ‘마스크 착용’은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에는 살충제 사용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실천 방안이 들어가야 한다. 살충제의 해악을 알아보는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 방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살충제뿐만 아니라 화학제품 전체에 대한 내용이며 생활 속의 실천 방안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살충제 사용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실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다.

⑤ 친환경 살충제 개발은 생활 속의 실천 방안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09 함께 읽은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신문을 만드는 것이므로 읽은 책의 내용과 관련 있는 것(책을 읽은 느낌과 생각을 참신하고 재미있게 표현한 책 소개 등)을 광고로 실는 것이 적절하다.

10 사회적 문제에 관한 책을 읽고 그것을 바탕으로 완성한 신문을 평가하는 것이므로 책 내용이나 책에서 다룬 사회적 문제가 신문에 잘 반영되어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독자의 흥미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지 평가하는 것은 평가 기준과 거리가 멀다.

11 신문을 만들 때는 신문이라는 인쇄 매체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함께 읽은 책을 바탕으로 신문을 만드는 것이므로 책을 읽고 공유한 내용을 토대로 책의 내용을 재구성하여 효과적으로 지면에 배치해야 한다.

소단원 평가

본문 043~044쪽

01 ③ **02** ① **03** ④ **04** ⑤ **05** ‘결혼은 했지만 자녀를 낳지 않으려는 친지들이 주위에 많다.’라는 내용은 자신이 속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또 ‘우리나라 출생률이 세계 최저 수준이라는 통계 결과가 발표되었다.’라는 내용은 사회·문화적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06** ③

01 2문단에서 저출산은 인구 감소 및 노동력 약화 등을 불러오며, 고령화 추세와 맞물려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이 사회에 미치는 문제로 볼 수 있다(ㄴ). 또한 4, 5문단에서 출산에 대한 인식과 육아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ㄷ).

오답 풀이 ㄱ. 4문단에서 1980년대 출산 정책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나, 시대의 변화에 따른 출산 정책의 차이점을 대조하고 있지는 않다.

ㄴ. 2문단에서 국내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어서 정부 정책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출산에 대한 사회 인식 재고와 새로운 육아 문화 형성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해 상술하고 있지 않다.

02 글쓴이는 출산과 결혼에 대한 인식 및 가치관을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보기>의 독자는 이 주장이 실질적인 방안이 될 수 없다고 평가하며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03 이 글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사회적 문제는 ‘저출산 현상’이다. 그 방안으로 제시한 것 중 지역과 기업 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은 ‘공동 육아의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사회적 문제는 ‘저출산 현상’이다. 표제로 고려화 문제가 심각하다는 내용을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지, 여성들이 경력 단절 문제에 대한 걱정을 줄이는 것은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
 ③ ‘아이 더 낳기 운동’은 이 글에서 제시한 해결 방안이 아니다.
 ⑤ 국내 적정 인구의 규모를 계산하는 것은 저출산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 방안이 아니고, 지역과 기업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해결 방안도 아니다.

04 지금의 결혼 적령기 층은 ‘아이 더 낳기 운동’으로 출생률이 떨어지기 시작한 1980년대 이후에 출생한 세대이고, 이들은 대개 두 명 이하의 형제 속에서 성장하여 다자녀 가정이 매우 낮선 것이라 하였다.

05 첫 번째 문장에서 자신이 속한 상황을, 두 번째 문장에서 사회·문화적 상황을 고려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독자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06 ㉠은 출처가 분명한 통계 자료로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 ㉡은 출생률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과 반대되는 의견으로 이를 함께 언급함으로써 글쓴이 의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오답 풀이 ① ㉠을 통해서만 문제의 실태와 심각성을 강조할 수 있다.
 ② ㉠과 ㉡ 모두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는 데 도움을 주기 어렵다.
 ④ ㉠은 근거 자료에 해당하므로 내용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지만, ㉡은 출처가 불분명하므로 내용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기여를 하기 어렵다.
 ⑤ ㉠을 통해 사회 현상의 실태를 부각할 수 있지만, ㉡을 통해 사회 현상의 문제점을 부각하기 어렵다.

대단원 평가

본문 045~053쪽

01 ④ **02** ② **03** 주한 뉴질랜드 대사의 인터뷰 장면을 직접 보여 주고 있다. **04** ② **05** ⑤ **06** ② **07** ① **08** ① **09** 땅을 팔아 자식을 도와주고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함. **10** ① **11** ① **12** ⑤ **13** ③ **14** ⑤ **15** ⑤ **16** 저출산이 인구 감소를 초래하고, 인구 감소가 생산 가능 인구를 축소시켜 노동력이 약화되며 궁극적으로는 국가 경쟁력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17** ③ **18** ③ **19** ④ **20** ② **21** ③ **22** ② **23** ① **24** ③ **25** [A]는 보령 머드 축제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B]는 주한 뉴질랜드 대사의 인터뷰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A]와 [B]는 공통적으로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26** ④

01 (나)는 신문 기사로서 주로 문자 언어를 통해 정보를 전달하고 있지만, (가)는 텔레비전 뉴스로서 음성 언어, 자막, 영상 등을 함께 사용하여 정보를 전달하므로 문자 언어를 중심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② (가)와 같은 텔레비전 방송은 전파를 이용하므로 인쇄 매체인 신문보다 빠르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점 때문에 독화를 하지 않으면 전달하는 내용이 보존되지 않고 사라진다.

③ (나)와 같은 인쇄 매체는 주로 문자 언어를 통해 내용을 전달하므로 복잡한 내용을 논리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⑤ (가)의 텔레비전 뉴스는 방송을 시청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있고, (나)의 신문 기사는 인쇄된 내용을 독자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인터넷 매체의 뉴스나 신문 기사는 발신자와 수신자 간의 실시간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지만 이와 같은 방송 매체나 인쇄 매체에서는 실시간 쌍방향 소통이 불가능하다.

02 (가)와 (나) 모두 보령시가 뉴질랜드 로토루아 시와 머드 축제와 관련하여 수출 협약을 맺었음을 알리며 긍정적인 측면에서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와 (나)는 보령 머드 축제의 수출과 관련한 협약을 맺었다는 정보를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을 뿐, 축제를 홍보하려는 것은 아니다.

③ (가)와 (나) 모두 보령 머드 축제의 긍정적인 측면만을 소개하고 있어서 공정성이 떨어진다.

④ (나)에 대한 설명에 해당한다.

⑤ (나)는 보령 머드 축제가 대한민국 대표 축제에서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03 (가)의 기자의 첫 번째 말에서 주한 뉴질랜드 대사가 축제장을 찾아 즐거운 시간을 보냈음을 제시하고, 이어서 뉴질랜드 대사의 인터뷰 장면을 직접 보여 주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서술형 평가 기준>

평가 기준	평가
주한 뉴질랜드 대사가 인터뷰하는 장면을 직접 보여 주고 있다고 서술하였다.	상
주한 뉴질랜드 대사가 인터뷰하는 장면 외의 다른 내용을 서술하였다.	하

04 (나)는 축제를 즐기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제시하여 보령 머드 축제가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참여하는 세계적인 축제임을 뒷받침하고 있다.

05 이 글의 서술자는 ‘정미 얼마나 동네 사람들이 날뛰는 이유가 꼭 똥 냄새에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집주인들이 더 극성을 부리는 데에도 까닭은 있었다.’, ‘동네 신수가 흰해야 집값도 오를 터인데 모름지기 강 노인 발이 저러고 있어서야 제값대로 보지 않는다는 불만들이 클 것임은 자명했다.’ 등과 같이 집주인들의 관점에서 표현하고 있다. 이는 집주인들이 강 노인의 발농사를 반대하는 이유가 밭에서 나는 똥 냄새뿐만이 아니라 강 노인의 발으로 인해 자신들의 집값이 오르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남들 다 하는 월급쟁이는 마다하고 떼돈 벌 궁리에 떼돈만 날리는 녀석들이다. ~ 결국은 그의 땅덩이로 막아져야 할 것임은 불

을 보듯 뻔한 노릇이었다.’는 강 노인의 관점에서 서술된 것으로 독자가 강 노인의 처지에 공감할 수 있도록 한다.

- 오답 풀이** ① 작품 밖의 서술자에 의해 사건이 서술되고 있다.
 ② 주로 강 노인의 입장에서 사건이 서술되고 있으므로 중립적 관점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주로 강 노인과 집주인들 간의 갈등이나 강 노인과 강 노인의 아내와의 갈등이 제시되고 있을 뿐, 갈등의 해결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④ 강 노인이 처한 상황을 연속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인물이 처한 상황도 그리 긴박하지는 않다.

06 진만이 아버지가 강 노인에게 공손하게 알은체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지만, 그가 집주인들이 강 노인을 무례하게 대한다고 여기는지는 알 수 없다.

- 오답 풀이** ① ‘용문이는 지난번 몸살 이래 ~ 영락없이 미꾸라지였다.’에서 용문이가 농사일에 흥미를 잃어 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③ (나)의 ‘마누라가 아랫입술을 뚝 내밀고 안색이 좋지 않았다.’와 (다)에서 ‘땅 팔아서 아들 살리고 남은 돈은 은행에 넣어 이자나 받으면 ~’과 그 다음 대사인 ‘그 전에 제 가격 받고…….’를 통해 강 노인의 아내가 땅을 팔지 않는 남편에게 불만을 품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④ ‘남들 다 하는 월급쟁이는 마다하고 떼돈 벌 궁리에 떼돈만 날리는 녀석들이다.’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⑤ 지물포 주 씨의 가게가 강 노인의 발 가까이에서 뚝 냄새가 심할 텐데도 깨끗이 강 노인에게 어른 대접을 갖추는 것에서 짐작할 수 있다.

07 ① 앞의 ‘누구 돈이든 쏟아붓고 보자는 저 선부른 행동’을 고려할 때, 강 노인은 결국 자식들이 벌여 놓은 일을 자신의 땅을 팔아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여기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② 이 글을 통해서는 강 노인이 땅을 팔더라도 자식들의 빚을 다 갚지 못한다는 사실은 알 수 없다.
 ③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다.’를 통해 강 노인이 결국 땅을 팔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④ 이 글을 통해 자식들이 또다시 문제를 일으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⑤ 강 노인의 아내가 자식들의 어려운 상황을 언급하고 있음에도 강 노인은 자식들을 도와주어야 하는 상황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을 볼 때 강 노인이 자식들을 도와주겠다는 마음의 준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08 ‘셋방 신세인 진만이 아버지도 그렇고’에서 진만이 아버지가 셋방살이를 하고 있음이 드러나지만 ‘서울로 모여드는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여 주택난이 심각해진다고 하였는데, 작품의 배경인 원미동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개발한 신도시이다. 따라서 그가 셋방 신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주택난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다.

- 오답 풀이** ② ‘집주인들을 주축으로 시비가 있어 왔었다.’ 등에서 집주인들이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이웃과의 갈등도 불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가)의 ‘강 노인네 땅덩이들이 팔려서 거기에 번듯한 건물들이 들어서야 ~ 불만들이 클 것임은 자명했다.’에서 집주인들이 집값이 오르기를 바라고 있으며 이 바탕에는 땅을 개발의 대상이자 이익 창출의 수단으로 보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인분 뿌리며 푸성귀를 갈아먹는대서야’에서 강 노인이 전통적인 방식으로 농사를 짓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땅을 팔지 않고 농사를 짓고자 하는 데에서 도시화의 흐름 속에서도 전통적 삶의 방식을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강 노인이 집주인들의 항의를 받는 것으로 보아 도시화로 인해 전통적 삶의 방식이 외면당하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다.

⑤ 강 노인의 밭에서 나는 인분 냄새로 고통을 겪을 텐데도 강 노인에게 ‘깍듯이 어른 대접을 갖추’는 지물포 주 씨와 사진관 엄 씨의 모습을 통해 변화하는 세대 속에서도 착한 심성을 지닌 사람들이 남아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09 이 글에서는 남은 땅을 팔지 않고 계속 농사를 짓고 싶어 하는 강 노인의 입장과 땅을 팔아 자식을 도와주고 남은 돈은 은행에 넣어 그 이자로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하는 강 노인 아내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서술형 평가 기준〉

평가 기준	평가
‘땅을 팔아 자식들을 도와주고’,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함.’이라는 두 가지 내용을 적절하게 서술하였다.	상
‘자식들을 도와주고 싶어 함.’ 또는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함.’이라는 내용 중 한 가지만 적절하게 서술하였다.	하

10 이 글에서 강 노인이 고흥택에게 땅을 팔아 빚을 갚아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오답 풀이** ② (가)의 ‘목숨이 붙어 자라고 있는 밭에 연탄재를 내던진 것은 ~ 반상회 끝의 독기 어린 동네 사람들이 저지른 것임은 대번에 알 수 있었지만’을 통해 알 수 있다.
 ③ (다)의 ‘철거 보상금을 삼 부 이자로 놓아 주겠다는 고흥택의 말만 믿고 돈을 건네준 사람이었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④ (다)에서 강 노인 아내의 말인 “그 못난 놈이 ~ 경고장이 날아왔답니다.”에서 알 수 있다.
 ⑤ (나)의 ‘밤사이 밭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눈여겨보지 않아 알 턱이 없었던 김 씨’에서 김 씨가 강 노인의 밭에 연탄재가 버려진 사건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1 ‘목숨이 붙어 자라고 있는 밭에 연탄재를 내던진 것은 명백히 짐승의 처사였다.’, ‘서울 것들이나 되니 살아 있는 밭에 해코지할 생각을 갖지’에서 강 노인은 땅을 생명이 자라는 소중한 공간으로 생각하며, 그렇기 때문에 땅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② 강 노인이 땅을 후대에 물려주어야 한다는 인식을 지니고 있는지는 이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없다.
 ③ ‘목숨이 붙어 자라고 있는 밭’을 통해 강 노인이 밭에서 자라는 고추 모종들을 먹을거리라기보다는 하나의 생명으로 소중히 여기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④ 강 노인에게 밭농사는 정서적 위안을 주는 행위이며 그가 고추 모종을 하나의 생명으로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강 노인이 밭에 고추 모종을 기르는 행위를 단지 생계를 잇기 위한 방편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다.
 ⑤ 강 노인이 지역 공동체인 동네 사람들의 회유에도 땅을 팔지 않겠다는 강건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그가 땅을 지역 공동체의 삶의 터전으로 생각하여 개인이 운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2 제시된 부분에는 나오지 않았으나 이 글의 앞부분에서 강 노인이 원미동에서 지주로 불린다고 하였고, (다)에서도 강 노인의

땅을 밟고 용규에게 돈을 빌려준 동네 사람들이 물려왔다는 점에서 강 노인이 많은 땅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네 사람들은 자신들의 물질적 이익을 얻기 위해 강 노인의 농사를 반대하고 땅을 팔기를 원한 것이지 그를 시기해서 그런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풀이 ① 강 노인은 땅을 팔아 금전적인 이익을 챙기는 것보다 땅에다 농사를 지어 얻은 수확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추구하며, 땅의 전통적 가치를 중시하는 인물이다. 따라서 물질적 풍요가 정신적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강 노인에게 공감한다는 내용은 적절하다.

② 강 노인 자식들의 사업이 어려움에 처해 강 노인의 도움을 바라고 있는 상황에서 강 노인이 고집을 부리며 땅을 지키고 싶어 하고 있으므로, 가족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행동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반응이 나올 수 있다.

③ 도시화되고 있는 마을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강 노인은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고자 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대에 맞지 않는 행동으로 생각할 수 있다.

④ 동네 사람들은 개인주의적인 도시의 삶에 적응한 채 자본을 중시하는 물질적 가치를 지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생각으로 가능하다.

13 김 씨가 강 노인에게 “영감님네 땅을 내놓으셨다면서요?~ 넘길 거라면서…….”라고 말한 것은, 강 노인에게 불만이 있어서가 아니라 강 노인이 팔기로 했다는 말을 가꾸는 모습이 의아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과 같이 서술한 이유는 연탄재가 나뉘구는 밭의 모습에 충격을 받고 수습을 하고 있는 강 노인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건네고 있기 때문이다.

오답 풀이 ① 동네 사람들이 고추 모종이 자라는 밭에 연탄재를 내던진 것을 보고 강 노인이 ‘세상에 이런 법은 없다’, ‘명백히 짐승의 처사였다.’ 등과 같이 분노하는 것에서 짐작할 수 있다.

② ‘흰 연탄재 가루를 뒤집어쓰고 쓰러져 있는 죄 없는 풀잎’을 차마 바라보지 못한다고 했으므로, 강 노인이 연탄재에 손상을 입은 고추 모종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④ 용규 내외에게 빚을 준 동네 사람이 여덟 명이나 된다는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다.

⑤ 원미동의 지주였던 강 노인이 자식들을 뒷바라지하느라 땅을 다 날렸다고 한 데서 알 수 있다.

14 이 글은 신문이나 잡지 등에 실기 위해 쓴 칼럼으로, 저출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글쓴이는 통계 자료를 통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현실을 제시하며 사회적 문제를 소개하고 있다. 이어서 출산에 대한 사회 인식을 높이고 새로운 육아 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저출산 현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면서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실현 방안도 함께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저출산 문제에 대한 다양한 영역의 정보는 이 글에 제시되지 않았다.

15 이 글의 글쓴이가 저출산 문제가 고령화를 야기한 것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추세와 맞물려 저출산이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오답 풀이 ① 신생아 수가 감소하는 것과 출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혼인 건수의 감소는 출생률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에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② 국내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다양한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출산에 대한 사회 인식을 높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③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출생에 대한 사회 인식을 높이고 새로운 육아 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④ 출산에 대한 사회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저출산이 심각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하고 있다.

16 2문단의 ‘저출산은 인구 감소로 직접 연결되며 인구 감소는 생산 가능 인구를 축소해 노동력의 약화를 불러온다.’에서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서술형 평가 기준〉

평가 기준	평가
‘인구 감소’, ‘생산 가능 인구 축소’, ‘노동력 약화’, ‘국가 경쟁력 약화’를 모두 제시하여 〈조건〉에 맞게 서술하였다.	상
‘인구 감소’, ‘생산 가능 인구 축소’, ‘노동력 약화’, ‘국가 경쟁력 약화’ 중 두세 가지만 제시하여 〈조건〉에 맞게 서술하였다.	하

17 이 소설은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서술자인 작가가 인물의 내면 심리와 사건의 내막을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서술자는 주로 강 노인의 시각에서 일련의 사건들과 그에 대한 인물의 생각을 중점적으로 서술하고 있는데, 이는 강 노인의 가치관과 심리 등에 주목하게 함으로써 소설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려는 것이다.

오답 풀이 ① 이 소설의 서술자는 작가이다. 작품 내부의 서술자가 자신의 내적 갈등을 드러내는 시점은 ‘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② 이 소설은 외부 이야기 속에 내부 이야기가 들어 있는 형태인 액자 구조를 취하고 있지 않다.

④ 인물들 간의 대화를 통해 인물들 간의 갈등을 부각하고는 있으나, 특정 인물을 희화화하고 있지는 않다.

⑤ 이 소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을 뿐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고 있지 않다.

18 강 노인의 아내는 땅을 팔지 않으려는 강 노인에게 ‘고집 좀 그만 부리고’ 땅을 팔자고 권유하는 인물이다. 또한 전통적인 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강 노인을 이해하고 수용하기보다는 편안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생활을 원한다. 따라서 강 노인의 아내는 가족 공동체의 가치를 회복하려는 의지를 지닌 인물로 보기 어렵다.

오답 풀이 ① 〈보기〉에서 ‘원미동’은 도시성이 침투된 시골 생태를 보여주는 공간이라고 하였다. (가)의 ‘2차선 도로의 양편으로는 여전히 밭농사가 계속되는 중’인 것은 이러한 공간적 특징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② (나)에서 박 씨는 강 노인의 얼굴만 마주했다 하면 은근히 회유를 거듭하고 온갖 감언이설을 다 늘어놓는 등 땅을 팔라고 종용한다고 하였다. 그는 강 노인의 땅이 개발되면 ‘동네가 삼시간에 환해질 것’이라고 믿는 인물이므로 자본주의적 가치를 추구하는 도시 개발에 대한 욕망을 지닌 인물이라 할 수 있다.

④ (라)에서 강 노인은 ‘서울에서 밀려나온 서울 것들’ 때문에 마을의 땅값이 들먹거리는 것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며 도시 개발에 편승하지 않고 농사를 짓는 삶을 추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그가 물질적 가치보다는 정신적 가치를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마)에서 땅을 팔기 위해 집을 나선 강 노인의 발길은 여전히 밭을 향하고 있다. 이는 땅을 팔기로 결심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농사를 짓고 싶어 하는 강 노인의 내면을 보여 주는 것으로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드러내는 것이다.

19 강 노인의 땅만 밟고 그의 큰아들 용규에게 돈을 빌려준 동네 사람들이 강 노인을 찾아온 것은 맞지만, 이 때문에 강 노인이 동네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라)의 '이만큼이라도 마지막 땅 조각을 붙들고 있다는 위안이 강 노인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라는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라)의 '씨 뿌린 땅에서 거두어들이는 수확이 아닌 담에야 어찌 땅 팔아서 그 돈으로 쌀 사고 채소 사며 살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라)의 '이 고장에 서울 바람이 몰아닥쳐 요 모양으로 설익은 도시가 되지 않았더라면 아직껏 넓디넓은 땅을 가지고 있을 것이 틀림없는 스스로를 생각해 보면 더욱 울화가 치밀었는데'라는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마)에서 강 노인은 자신의 '땀방울이 묻어 있기도 한 산'인 '벌뫼'를 보면서 '그때가 언제인데, 참 질기게도 오래 산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는 강 노인이 세월의 변화를 느끼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며, 동시에 자신의 삶이 고스란히 반영된 '땅'에 대해 미련을 갖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20 (나)의 내용으로 볼 때, ㉠은 원미동 사람들을 가리키며, (라)의 내용으로 볼 때, ㉡는 땅 투기를 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원미동 사람들은 강 노인의 밭에 연탄재를 버리는 등 개밭이 가능한 땅에 농사를 짓는 강 노인에게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땅 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현재 강 노인에게 반감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1 강 노인이 울화가 치민 것은 서울 바람으로 인해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땅을 지키지 못하고 처분한 것에 대해 스스로 분노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신적 가치를 중시하는 강 노인의 가치관으로 볼 때 땅으로 인한 이익은 강 노인에게 고려의 대상의 아니다.

22 (가)와 (나)에서는 보령시와 뉴질랜드 간의 보령 머드 축제 수출 협약 체결 소식을 전하며 보령 머드 축제가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하고 있음을 알리고 있다. 또한 (다)에서는 외국인과 한국인이 어우러져 축제를 즐기는 모습을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축제의 세계화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다. 따라서 (가)~(다)의 글쓴이는 공통적으로 보령 머드 축제가 세계인이 즐기는 행사임을 알리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와 (나)에서는 보령 머드 축제가 해외로 수출되고 있음을 알리고 있으나, (다)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제시하지 않았다.

③ (가)~(다) 모두 보령 머드로 만든 제품이 친환경적이라는 내용을 제시하지 않았다.

④ (가)~(다) 모두 보령 머드 축제의 체험 행사가 더 다양해져야 한다는 내용을 제시하지 않았다.

⑤ (가)와 (나)에서 보령 머드 축제가 세계적인 축제로 거듭나고 있음을 알리고, (다)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축제를 홍보하고 있으나 이를 외국계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3 (가), (나)는 보령시와 뉴질랜드 간의 보령 머드 축제 수출 협약 체결 소식을 알리고 있으며, (다)는 보령 머드 축제를 홍보하고 있다. 따라서 (가)~(다)는 모두 축제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나)는 텔레비전 뉴스이므로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를 함께 사용할 수 있지만 신문 매체인 (가)와 인쇄 광고인 (다)는 문자 언어로 내용을 전달할 뿐, 음성 언어 사용이 불가능하다.

③ (나)는 텔레비전 뉴스이므로 전파를 이용하여 많은 정보를 빠르게 전달할 수 있다. 그러나 (가)와 (다)는 인쇄 매체이므로 전파 이용이 불가능하다.

④ (나)에서 주한 뉴질랜드 대사를 인터뷰한 자료를 활용하고 있지만, (가)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을 인터뷰한 자료가 활용되지 않았다.

⑤ (나)에는 머드 체험 행사와 관련된 정보가 제시되어 있으나, (다)에는 머드 체험을 제외한 다른 행사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24 (가)의 2문단에는 보령시가 스페인 토마토 축제장에 머드 체험장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머드 축제를 처음 해외에 전파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나)에서는 이와 관련된 정보를 찾을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가)의 1문단과 마지막 문단에서, (나)의 뉴스 진행자의 말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가)의 마지막 문단에서, (나)의 기자의 마지막 말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가)의 3문단에서, (나)의 기자의 첫 번째 말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가)의 1문단과 2문단에서, (나)의 기자의 두 번째 말에서 확인할 수 있다.

25 [A]는 보령 머드 축제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며, [B]는 주한 뉴질랜드 대사의 인터뷰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A]와 [B] 모두 매체에서 전달하고 있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서술형 평가 기준〉

평가 기준	평가
[A]와 [B]의 표현 방법을 모두 쓰고, 그 공통적인 효과를 정확하게 서술하였다.	상
[A]와 [B]의 표현 방법을 모두 썼으나, 그 공통적인 효과를 서술하지 못하였다.	중
[A]와 [B] 중 어느 하나의 표현 방법만 썼으며, 그 공통적인 효과를 서술하지 못하였다.	하

26 〈보기〉는 보령 머드 축제의 장점을 언급한 후 시설에 대한 낮은 만족도, 특정 구역에 인파가 집중되는 현상, 먹을거리 부족 등의 문제점과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에 비해 (가)는 보령시가 뉴질랜드 로토루아 시와 머드 축제의 수출과 관련하여 협약을 맺었음을 알리면서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하고 있는 보령 머드 축제에 대해 긍정적인 면만을 제시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만 보령 머드 축제의 수출 사실을 부각하고 있다.

② 〈보기〉에서만 보령 머드 축제의 개선 방안을 언급하고 있다.

③ 외국인 홍보 단원이 제시한 의견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가)가 아니라 〈보기〉이다.

⑤ (가)와 〈보기〉 모두 신문 기사로 보령 머드 축제와 관련된 객관적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보기〉에 제시된 의견은 외국인 홍보 단원의 의견으로 글쓴이의 주관적 견해로 볼 수 없다.

7. 설득이라는 이름의 창과 방패

(1)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려야 한다

본문 확인 문제

본문 057~064쪽

- 01 ③ 02 과도한 당의 섭취 03 ① 04 ⑤ 05 ②
06 교차 조사 07 ⑤ 08 ① 09 ① 10 우리 몸에 빠르게 흡수되어 바로 에너지로 쓰인다. 뇌의 주 에너지원으로 쓰인다. 11 ④ 12 ⑤ 13 ④ 14 ④ 15 비만 관련 질환 감소 16 ② 17 ① 18 ④ 19 ② 20 ⑤
21 ⑤ 22 비만보다 음주와 흡연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23 ⑤ 24 ③ 25 식습관이 달라지지 않으면 26 ④
27 ⑤ 28 ① 29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리는 것이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가? 30 ①

01 이 토론은 교차 조사식 토론으로 입론을 마친 토론자를 대상으로 상대측 토론자가 교차 조사를 진행하는데, 질의응답 형식으로 입론 내용을 검증하면서 찬성-반대 측의 논증과 주장을 확인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이 토론의 중심 화제는 ‘고당류 음료의 가격 올리기’이다.
② 배심원이 토론 중에 토론자들에게 질의를 하지는 않는다.
④ 토론의 참여자는 정해진 토론의 규칙에 따라 토론을 해야 한다.
⑤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려야 한다.’라는 이 토론의 논제는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다루는 정책 논제에 해당한다.

02 최근 세계 각국이 설탕과의 전쟁을 선언하고, ‘당 줄이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은 과도한 당 섭취가 건강에 해롭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03 찬성 1은 과도한 당 섭취가 비만의 원인이 됨을 논증하기 위해 국민 건강 보험 공단에서 제공한 우리나라의 고도 비만을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를 통계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②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③ 설문 조사의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
④ 다른 나라의 사례를 적용하지 않았다.
⑤ 상대측 의견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았다.

04 찬성 1이 주스 한 잔으로 하루 당 섭취 권장량을 모두 섭취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것이 주스를 통해 하루 당 권장량에 맞춰 당을 섭취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 오답 풀이** ① 반대 2도 찬성 1이 제시한 비만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동의하고 있다.
② 찬성 1은 비만이 만성 질환을 유발한다는 ‘식품 의약품 안전 평가원’의 자료를 인용하고 있다.
③ 반대 2는 권장량의 설탕 섭취는 인체에 무해하다는 ‘미국 식품 의약국’의 연구 자료를 인용하고 있다.

④ 찬성 1은 첨가 당 섭취량이 많아질수록 비만 위험도가 높아진다는 ‘식품 의약품 안전 평가원’의 자료를 인용하고 있다.

05 찬성 1은 과도한 당 섭취가 건강을 위협하고 있고 이때 당을 섭취하는 주요 식품이 가공 음료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반대 2는 미국 식품 의약국의 설탕 안전성 연구 결과와 관련된 조사 자료를 토대로 당의 섭취가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과도한 당 섭취의 원인이 아닌 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주고받고 있다.
③ 식습관의 개선을 통해 당 섭취를 줄일 수 있는지는 쟁점으로 보기 어렵다.
④ 권장량에 맞춰 당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 찬성 1의 주장이기는 하나, 주요 쟁점으로 보기 어렵다.
⑤ 세계 보건 기구에서 정한 당 섭취 권장량의 과학적 근거 유무는 쟁점으로 보기 어렵다.

06 이 토론은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입론을 하면 상대측 토론자가 입론을 마친 토론자에게 질의응답 형식으로 내용을 검증하는 단계를 거친다. 이 단계를 교차 조사라고 한다.

07 찬성 1은 ①에서 사람들이 가공 음료에 많은 당이 들어 있는지 모른 채 가공 음료를 섭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각설탕을 한 번에 몇 개나 먹을 수 있는지 질문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말하고자 하는 것을 직접 말하지 않고 질문의 방식을 통해 돌려 말하였다.
② 권유하는 말하기 방식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③ ①과 관련된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 놀라움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④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하지 않았다.

08 이 토론의 논제는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다루는 정책 논제에 해당한다. 그런데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이다.’는 객관적인 근거를 통한 논리적 사실 입증은 필요로 하는 사실 논제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② 주택가 골목에서 발생하는 범죄나 사고 등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다루는 정책 논제에 해당한다.
③ 국민 건강 보험에 있어서의 의료 혜택, 사회 복지 등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다루는 정책 논제에 해당한다.
④ 학생 식당 사용에 있어서의 불편함과 무질서함 등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다루는 정책 논제에 해당한다.
⑤ 학교에서의 학습 시간 감소, 수업 방해 등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다루는 정책 논제에 해당한다.

09 반대 1은 당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당의 과도한 섭취가 비만의 원인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 오답 풀이** ② 반대 1은 탄수화물이 인체의 성장과 활동에 꼭 필요한 영양소라서 섭취하지 않으면 영양상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데, 당 역시 탄수화물이라는 사실을 근거로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려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③ 반대 1은 당뇨병에는 유전이나 흡연 등 다른 요인도 작용하며 그 원인이 당에만 있지 않음을 근거로 상대측의 의견에 반박하고 있다.

④ 반대 1은 우리 몸과 뇌에 에너지가 필요할 때 고당류 음료를 사 마시게 된다는 점을 근거로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려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⑤ 반대 1은 고당류 음료를 즐기는 많은 청소년들이 모두 당뇨병이나 대사 증후군에 걸렸다고 하면서 그 가능성이 희박함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10 반대 1은 입론에서 탄수화물이 인체에 꼭 필요한 삼대 영양소 중 하나로, 당 역시 탄수화물이며 우리 몸에 빠르게 흡수되어 바로 에너지원으로 쓰이고, 뇌의 주 에너지원이기도 하다는 것을 근거로 들고 있다.

11 반대 1은 찬성 1이 내세운 의견에 대해 희박한 가능성을 일반화하고 있다며 논리적 오류를 지적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상대측 의견을 대신할 대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② ㉞은 찬성 1의 의견에 반박하는 내용으로,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타당한 근거를 제시한 것은 아니다.
③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제안하지는 않았다.
⑤ 상대측이 제시한 이론이나 자료를 검증하지는 않았다.

12 찬성 2는 입론을 통해 당의 섭취가 개인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개인적 차원의 문제를 사회 경제적 비용을 증가시킨다는 사회적 차원의 문제로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비만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 증가를 근거로 들며 경제적 측면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② 비만이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사회 경제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③ 비만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병원 조△△ 교수'의 발표 자료를 인용하고 있다.
④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리면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국가의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3 이 토론에서 사회자는 찬성 2에게 입론할 것을, 반대 1에게 교차 조사를 하라고 발언 순서를 안내하며 토론을 진행하고 있으며 (ㄷ), 찬성 2의 입론이 끝나고 그 입론 내용을 요약·정리하고 있다 (ㄹ).

오답 풀이 ㄱ. 사회자가 토론의 논제를 제시하는 것은 보통 토론의 시작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 부분에서는 드러나지 않는다.
ㄴ. 사회자는 논제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
ㄴ. (바)와 (사)에서 토론자가 토론 예절에 어긋나게 행동한 부분은 없었다.

14 찬성 2는 일정 기준 이상의 당을 함유한 음료의 가격을 올리면 소비가 억제되어 국민 건강을 증진할 수 있고 국가의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즉, 찬성 2는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려야 한다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고도 비만의 사회 경제적 총비용에 관한 그래프 자료를 활용한 것이다.

15 고당류 음료의 소비를 억제하면 비만이 줄어 비만 관련 질환이 감소하고 이를 통해 국민 건강을 증진할 수 있다.

16 찬성 측과 반대 측은 모두 '설탕 세'라는 같은 제도를 제시하며 찬성 측은 이 제도를 통해 당 섭취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반대 측은 이 제도를 통해 당 섭취를 줄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찬성 측은 반대 측의 교차 조사에 대하여 답변하면서 3퍼센트, 6퍼센트와 같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면서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③ 반대 측은 교차 조사를 통해 설탕 세를 제시하면서 찬성 측의 입론에 대하여 확인 및 검증한 뒤 반박하고 있다.

④ 찬성 측과 반대 측 모두 프랑스와 멕시코의 설탕 세 부과와 관련된 사례를 들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⑤ 찬성 측과 반대 측은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리면 당 섭취를 줄일 수 있는가?'라는 쟁점을 두고 찬성 측은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리면 당 섭취가 줄어든 것이라는 주장을, 반대 측은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려도 당 섭취를 줄일 수 없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17 반대 1은 교차 조사에서 프랑스와 멕시코의 설탕 세 도입 정책이 일시적으로밖에 고당류 음료의 소비를 줄이지 못한 사례를 들어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려도 당 섭취를 줄일 수 없음을 부각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②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리는 것이 국민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은 찬성 측의 주장이다.
③ 가공 음료를 통한 과도한 당 섭취가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은 찬성 측의 주장이다.
④ 설탕 세로 얻은 수입이 국민 건강을 위해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의 정책이 실패한 것은 아니다.
⑤ 외국의 정책 실패 사례는 설탕 세가 당보다 더 해로운 성분의 소비 증가로 이어진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은 아니다.

18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보고서 내용과 통계 자료를 제시할 뿐, 자신의 경험을 사례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당이 들어간 상품의 가격 상승이 더 해로운 성분의 소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② 비만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비만으로 인해 사회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찬성 측의 주장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③ 유럽 의회 보고서 및 건강 보험 정책 연구원의 음주·흡연·비만의 사회 경제적 총비용 추이를 다룬 연구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⑤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리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을 먼저 언급하고 그에 따른 근거를 들어 주장을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19 찬성 측과 반대 측은 모두 비만이 사회 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키므로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다만 반대 측은 비만보다는 음주와 흡연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오답 풀이 ①, ④ 반대 측 주장과 관련된 내용이다.
③, ⑤ 찬성 측의 주장과 관련된 내용이다.

20 반대 2가 상대측의 의견에 문제를 제기한 것은 맞지만, 상대 측이 내세운 대안을 대체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반대 2는 고당류 음료에 부과된 세금이 국민 건강을 위해 쓰일지 확인할 수 없고 국민 건강을 위한 예산을 설탕 세를 통해 마련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②, ④ 찬성 2는 프랑스와 영국에서 설탕 세가 국민들의 복지를 위한 예산으로 쓰일 예정이라고 말하면서 질문을 통해 우리나라도 이와 같이 고당류 음료에 부과된 세금을 국민 건강을 위해서 쓴다면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③ 사회자는 반대 측의 발언을 요약·정리하여 토론 참여자들의 이해에 도움을 주고 있다.

21 <보기>는 설탕 세 도입에 반대하는 내용으로, 고당류 음료에 부과된 세금이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반대 2의 주장의 또 다른 근거가 될 수 있어 문맥상 ㉔에 오는 것이 적절하다.

22 ㉑의 그래프는 음주·흡연·비만의 사회 경제적 총비용 추이를 보여 주는 것으로, 음주와 흡연이 비만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반대 측은 사회 경제적 비용 측면에서 보면 비만보다 음주와 흡연이 더 큰 문제이며 따라서 비만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부분임을 주장하고 있다.

23 반대 1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주범이 당이라는 찬성 측의 주장에 대해 과다 섭취했을 때 몸에 해로운 것은 당뿐만이 아니라 소금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하고 있으며(ㄷ), 세계 보건 기구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ㄴ). 또한 소금도 건강을 위협하지만 설탕보다 규제가 미비하다고 하며 찬성 측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ㄷ).

오답 풀이 ㄱ. 식습관이 쉽게 달라지지 않는 사례로 우리나라의 돼지고기 삼겹살을 들고 있으나, 다른 나라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24 찬성 1은 비만의 원인을 당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반대 측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당 소비량 증가와 비례하여 비만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초·중·고교 비만 학생 비율 추이를 나타내는 그래프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②, ④ 반대 측의 근거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⑤ 찬성 1이 내세운 반박의 근거도 아닐뿐더러 근거가 될 수 없는 내용이다.

25 돼지고기 삼겹살의 가격이 크게 상승해도 소비가 급격히 줄지 않는 것은 돼지고기 삼겹살을 선호하는 우리 국민의 식습관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식습관이 달라지지 않으면 과도한 당의 섭취는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26 ㉔는 당을 줄이는 정상적인 절차보다는 소비자를 속이는 간편하고 손쉬운 방법을 사용하는 식품 회사들의 행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㉔에는 ‘편법’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불법’은 ‘법을 지키지 아니함’을 의미한다. ‘무설탕’이라고 홍보하면서 설탕을 사용했다면 불법이 되지만 설탕이 아닌 ‘액상 과당’을 사용했으므로 불법은 아니다. ㉔의 내용과는 거리가 멀다.

② ‘독점’은 ‘개인이나 하나의 단체가 다른 경쟁자를 배제하고 생산과 시장을 지배하여 이익을 독차지함’을 의미하므로 ㉔의 내용과는 거리가 멀다.

③ ‘무례’는 ‘예의가 없음, 예의를 지키지 않음’을 의미하므로 ㉔의 내용과는 거리가 멀다.

⑤ ‘경영상’은 ‘기업이나 사업을 관리·운영해 나가는 데에 생기는 어려움’을 의미하므로 ㉔의 내용과는 거리가 멀다.

27 토론의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반론이 하는 역할은 상대측의 주장을 반박하고, 자기편 주장의 타당성을 입증하여 다른 토론 참여자들을 설득하는 것이다.

오답 풀이 ① 토론의 성격과 거리가 먼 내용이다.

② 반론은 새로운 주장을 제시하기보다 기존의 주장이 지닌 강점을 강화하는 단계이다.

③ 토론의 시작 단계에서 사회자가 하는 역할이다.

④ 교차 조사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자신의 주장을 드러내고 상대측의 주장을 비판하고 반박하기 위해 질문을 한다.

28 소비자의 선택권을 일부 제한하는 것은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려 고당류 음료의 소비를 줄이자는 찬성 측의 문제 해결 방법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② 반대 측은 올바른 식습관을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당 섭취를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③ 반대 측은 식품에 경고 문구를 넣어 당 섭취를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④ 반대 측은 식품에 영양 성분을 표시하여 당 섭취를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⑤ 반대 측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기보다 소비자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9 찬성 측은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리면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국가의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의 내용으로 볼 때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리는 것이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가?’를 쟁점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0 일단 형성된 식습관은 쉽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내용은 우리의 식습관까지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반대 측 주장의 근거이다.

오답 풀이 ② 고당류 음료의 가격이 오르면 소비는 줄어든 것이라는 내용은 찬성 측의 근거로 적절하다.

③ 국내의 비만율이 계속 증가하는 원인이 과도한 당 섭취 때문이라는 내용은 찬성 측에서 근거로 내세운 것이다.

④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도 설탕 세 같은 세금을 도입하여 효과를 거두었다는 내용은 찬성 측에서 근거로 제시한 것이다.

⑤ 당 소비를 억제하여 비만이 줄어들면 비만의 사회 경제적 비용이 감소할 것이라는 내용은 찬성 측이 근거로 제시한 것이다.

소단원 평가

본문 065~070쪽

01 ③ 02 ③ 03 ① 04 그것은, 때문입니다 05 ③ 06 ③
07 반대 2가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리지 않고도 당 섭취를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08 ⑤ 09 문제의 심각성, 가공 음료를 통한 당 섭취가 건강을 위협하는가? 10 ④ 11 ④
12 ④ 13 ② 14 ③ 15 ④ 16 ③ 17 ③

01 찬성 1은 입론에서 국내 고도 비만을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와 가공 음료에 든 당 함유량 등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지만, 자신이 실제로 실험한 바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사회자는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려야 한다.’는 논제와 그 선정 배경을 제시하며 토론을 시작하고 있다.

② 사회자는 찬성 1의 입론을 요약·정리하여 제시하고 반대 측에게 교차 조사를 진행할 것을 안내하며 토론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④ 찬성 1은 입론에서 국내 고도 비만을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와 가공 음료에 든 당 함유량 등 다양한 근거를 바탕으로 과도한 당 섭취가 건강을 위협하는가에 대해 찬성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⑤ 반대 2는 교차 조사에서 찬성 1의 주장을 검증하면서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02 찬성 1은 많은 사람들이 가공 음료를 통해 과도한 당을 섭취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모른 채 가공 음료를 마시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우리나라의 고도 비만율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고도 비만율이 증가 추세에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② 필요 이상으로 많은 당을 섭취하는 것을 비만율이 줄지 않는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④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려 소비를 감소시킴으로써 당 섭취량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⑤ 젓산균 요구르트 150밀리리터에 3그램짜리 각설탕 일곱 개가 들어 있다고 말하고 있다.

03 이 토론의 논제는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려야 한다.’이다. 이는 과도한 당 섭취로 인해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담고 있으므로 정책 논제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②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리는 것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있지 않다. 또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가치 논제에 해당한다.

③ 국민 건강을 위한 예산의 부족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다.

④ ‘당 줄이기’ 운동 동참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이 토론의 논제와 거리가 멀다.

⑤ 과도한 당 섭취가 국민 건강에 ‘해롭다’, ‘해롭지 않다’를 입증하는 것이 이 토론의 논제는 아니다.

04 찬성 1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필요 이상으로 많은 당을 섭취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보기>는 이 주장에 대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이다.

05 소비자가 당 섭취를 줄이려 노력하지 않는다는 근거는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리자는 찬성 측의 주장에 대한 근거로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찬성 1이 ‘초·중·고교 비만 학생 비율 추이’ 그래프와 함께 제시한 근거이다.

② 찬성 1은 식품 회사들이 ‘무설탕’이라 홍보하면서 ‘액상 과당’을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로,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더 큰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④ 반대 2는 소비자들은 가공 음료에 하루 권장량 이상의 당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로 가공 음료를 마셔 왔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⑤ 반대 2는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리자는 주장에 반대하며 그것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임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06 ①은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리지 않고도 다양한 방법으로 당 섭취를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당 섭취를 줄이는 방법에 해당하므로 문제의 해결 가능성에 관한 쟁점을 다룬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④, ⑤ 쟁점과 주장이 모두 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쟁점은 적절하나 주장이 찬성 측의 내용이다.

07 <보기>는 담배 가격을 올리는 것보다 담뱃갑의 경고 그림이 금연에 더 효과적이라는 뉴스 기사의 제목이다. 따라서 반대 2가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리는 것보다 그것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 문구를 넣는 것이 더 효과적임을 드러내는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08 이 토론의 논제는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려야 한다.’이며, 이는 과도한 당 섭취라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 논제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고 자신의 판단이 더 타당함을 밝히는 논제는 가치 논제이다.

② 문제 해결 방법의 유용성을 판단하는 것은 정책 논제의 특징이지만, 다른 방법과 절충하는 것은 토론이 아닌 협상의 특징이다.

③ 어떤 현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을 밝히는 것은 토론이 아닌 토의의 특징이다.

④ 사실 관계가 성립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밝히는 논제는 사실 논제이다.

09 토론의 논제와 관련하여 반드시 짚어야 할 쟁점을 필수 쟁점이라 한다. 정책 논제의 필수 쟁점으로는 문제의 심각성, 제시된 방안의 문제 해결 가능성 및 실행 가능성, 방안의 실행에 따른 효과 및 개선 이익 등이 있다. 이 글에서는 ‘가공 음료를 통한 당 섭취가 건강을 위협하는가?’라는 문제의 심각성에 관한 쟁점에 대해 토론을 하고 있다. 찬성 측은 가공 음료를 통한 과도한 당 섭취가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반대 측은 당 섭취가 건강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10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고당류 음료를 통한 당 섭취가 건강을 위협한다는 근거를 활용할 수 있다. ㄴ은 많은 사람들이 당이 많이 들어 있는 것을 모르고 가공 음료를 즐겨 마시고 있는 실태를, ㄹ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당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고 있는 실태를 보여 주는 자료이므로 이들 자료를 활용하여 당 섭취가 건강을 위협하고 있음을 보여 줄 수 있다.

오답 풀이 ㄱ. 나트륨의 위험성을 강조하면 고당류 음료에 한정하여 가격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이 부각된다.

ㄷ.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리지 않고 영양 성분을 표시하거나 경고 문구를 넣는 등 다른 방법을 활용해도 당 섭취를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이므로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려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이다.

11 “비만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라는 발언은 상대방이 언급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또한 “비만의 원인이 당 섭취에 있다고 단정하는 근거가 있나요?”라는 발언은 비만율이 증가한 사실을 당 섭취와 연관 지은 해석의 근거를 요구하는 것이다.

12 찬성 1은 반대 2의 교차 조사에 대한 두 번째 답변에서 ‘세계 보건 기구’의 자료를 활용하고 있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권장량에 맞춰 당 섭취를 줄이는 게 어렵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오답 풀이 ① 찬성 1은 입론에서 요구르트 150밀리리터에 각설탕 7개에 해당하는 당이 들어있다고 하여, 우리가 무심코 마시는 가공 음료에 많은 양의 당이 들어 있음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② 찬성 1은 반대 2의 교차 조사에 대한 답변에서 식품 의약품 안전 평가원의 보도 자료에 나타난 비만 위험도 수치를 활용하여 당의 위험성을 부각하고 있다.



③ 찬성 1은 반대 1의 교차 조사에서 당은 당뇨병이나 대사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당의 순기능만을 강조한 반대 1의 논리적 허점을 공격하고 있다.

⑤ 찬성 1은 반대 2의 교차 조사에 대한 두 번째 답변에서 사람들이 건강에 좋다고 인식하는 주스에도 당이 많이 함유되어 있음을 밝히며, 사람들의 선입견을 반박하는 동시에 개인이 권장량에 맞춰 당 섭취를 줄이는 것이 쉽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다.

13 찬성 1은 당이 비만의 위험을 높인다고 주장하고 있고, 반대 1은 비만의 원인이 당에만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양측 모두 당이 비만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ㄱ). 또한 반대 2가 권장량의 설탕 섭취는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미국 식품 의약국의 연구 결과를 들어 주장했고, 이에 대해 찬성 1이 반대 의견을 들어 주장한 것은 아니므로 양측 모두 권장량보다 적은 양의 당은 인체에 무해함을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ㄴ).

오답 풀이 ㄴ. 찬성 1은 비만을 줄이기 위해 설탕이 들어간 음료의 가격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설탕의 가격이 어느 정도 비만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 1은 설탕이 들어간 음료의 가격을 올리는 것이 우리 몸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당 섭취에 경제적 부담을 줄 뿐이라고 하였다.

ㄷ. 반대 1이 섭취하지 않으면 영양상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한 것은 탄수화물이다. 탄수화물은 당 뿐 아니라 밥이나 빵에서도 섭취할 수 있으므로, 당을 섭취하지 않으면 심각한 영양상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것은 찬성 1과 반대 1이 공통으로 인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볼 수 없다.

14 (가)에서 찬성 2는 일정 기준 이상의 당을 함유한 음료는 그 함량에 비례하여 가격을 올려야 한다며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리자’는 자신의 주장을 구체화하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국민 건강을 증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며 기대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 병원 조△△ 교수의 조사 결과를 활용하고 있지만 고도 비만으로 인한 질환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② 예상되는 반론의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

④ 수치를 비교한 자료를 활용하고 있으나 고도 비만의 변화가 아니라 고도 비만 관련 질환의 사회 경제적 비용의 변화를 설명하였다.

⑤ 출처가 분명한 자료를 활용하고 있으나 당 섭취량과 고도 비만의 관계에 대한 사실을 입증한 것은 아니다.

15 <보기>에서 반대 측은 다른 나라에서 유사한 정책을 도입하였으나 실효성이 없었음을 부각하는 방식으로 교차 조사를 실시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다. 프랑스와 멕시코에서 설탕 세를 도입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탄산 음료의 소비가 늘어났다는 내용은 정책의 실효성을 문제 삼기에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찬성 2가 고당류 음료의 가격 규제를 위해 건강 보험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지는 않았다.

② 다른 나라에서 유사한 정책을 도입하여 성공했다는 내용의 자료이므로 반대 측이 아닌 찬성 측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다.

③ 찬성 2는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리자고 말하고 있지만, 설탕이 들어간 음료의 판매를 금지하지는 주장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⑤ 찬성 2는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리자고 말하고 있지만, 가공 식품에 영양 성분을 표시하는 제도를 운영하지는 주장을 제시하지 않았다.

16 찬성 2는 고당류 음료에 부과된 세금을 국민 건강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하면 국민에게 이롭지 않겠느냐고 질문하고 있다. 이에 대해 ③은 국민 건강을 위해 쓰일지는 확인할 수 없고, 국민 건강을 위한 예산을 꼭 설탕 세와 같은 정책을 통해 마련할 필요가 없다고 답하고 있다. 이는 국민 건강을 위한 예산과 설탕 세 사이의 당위성이 부족함을 지적하여 찬성 2의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밝힌 것이다.

오답 풀이 ① 찬성 2는 음주와 흡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② 반대 측의 주장과 상반된 것이므로 자신의 주장을 유지해야 한다는 <보기>의 내용에 어긋난다.

④ 반대 측의 주장과 상반된 것이므로 질문자의 의도에 휘말리지 말고 자신의 주장을 유지해야 한다는 <보기>의 내용에 어긋난다.

⑤ 찬성 2의 질문과 상관없이 자기 측 주장을 펼치는 답변이다.

17 (나)에서 반대 2는 비만보다 음주나 흡연의 사회 경제적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이를 비만의 사회 경제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찬성 2는 ○○ 병원 조△△ 교수의 연구 자료를 활용하여 당 음료의 가격을 올리면 비만 관련 질병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 지출이 감소하여 국가의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하였다.

② (나)에서 반대 2는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리면 더 해로운 성분의 소비가 증가할 것이라는 부작용을 제시하고 있다.

④ (다)에서 반대 1은 나트륨의 위험성을 언급하며 규제의 형평성을 문제 삼고 있다.

⑤ (다)에서 찬성 1은 설탕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고자 식품 회사에서 ‘무설탕’이라고 홍보하여 사용하는 액상 과당의 문제를 언급하여 고당류 음료의 가격 인상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2) 내 생각에 귀 기울여 주세요?

학습 활동 응용문제 본문 072~075쪽

- 01 ⑤ 02 ① 03 ④ 04 ② 05 ③ 06 ② 07 ⑤
08 ③ 09 ② 10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심폐 소생술 비율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모호하게 제시하였으므로 구체적인 수치로 바꿔서 제시해야 한다. 11 ③ 12 ⑤ 13 ③

01 이 글은 신문 기사로, 실제 있었던 일을 전달하고 있다. 기사의 뒷부분에 인터뷰 내용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전문가의 의견이 아니라 심폐 소생술로 승객을 살린 사건 당사자(운전기사)의 인터뷰 내용이다.

오답 풀이 ① 신문 기사로 실제 있었던 일을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한 글이다. ② 신문 기사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육원칙에 따라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③ 표제와 부제를 통해 서술될 기사의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압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④ 사건의 경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상황을 직접 보지 못하고 글을 통해 사건을 접하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다.



02 발문에서 설득하는 글을 쓴다고 하였는데 ‘심폐 소생술의 방법’이라는 주제는 심폐 소생술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정보를 알려 주는 설명하는 글에 어울린다. 설득하는 글을 쓴다면 ‘심폐 소생술을 배우자’와 같은 주제가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② 이 글의 내용은 심폐 소생술로 생명을 살린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를 통해 위급한 상황에 대비하여 심폐 소생술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함을 알리고 심폐 소생술을 배우자고 독자들을 설득하는 내용으로 글을 쓰는 것은 적절하다.

③ 심폐 소생술에 관한 글은 건강과 안전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을 예상 독자로 하는 것은 적절하다.

④ 지역 사람들을 예상 독자로 하여 지역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지역 신문에 실는 것을 예상하고 작성하는 것은 적절하다.

⑤ 심폐 소생술에 대한 배경지식이 부족하더라도 건강과 안전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면 독자로 적절하다. 심폐 소생술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려 심폐 소생술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심폐 소생술을 배우도록 설득할 수 있다.

03 휴대 전화로 인한 가족 간의 대화 단절 문제는 가정 안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지역 사회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볼 수 없으므로 지역 사회의 문제에 대한 설득하는 글의 화제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②, ③, ⑤ 공동 주택의 층간 소음, 건설 과정에서 생기는 공해, 보육 시설 부족, 공공장소와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흡연은 개인이 아닌 공적인 문제이다. 따라서 지역 사회의 문제에 대한 설득하는 글의 화제가 될 수 있다.

04 설득하는 글을 쓰려는 것이므로 글의 목적은 학생들이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기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학교생활 문제에 대해 설득하는 글을 쓰고자 하므로 학생들의 비만 문제가 심각하다는 화제를 선정하는 것은 적절하다.

③ 학생들의 비만 문제를 화제로 하여 설득하는 글을 쓰고자 하므로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기르자’를 주제로 삼는 것은 적절하다.

④ 학생들의 비만 문제를 중심으로 설득하는 글을 쓸 것이므로 우리 학교 학생들, 특히 외모에 관심은 많지만 건강한 생활 습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학생들을 예상 독자로 설정하는 것은 적절하다.

⑤ 예상 독자를 우리 학교 학생으로 선정하였으므로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인쇄 매체인 학교 신문을 전달 매체로 설정하는 것은 적절하다.

05 <자료 3>은 심폐 소생술 교육 동영상의 철저한 관리를 촉구하는 뉴스이다. 심폐 소생술 교육 동영상 관리의 필요성이 중심 내용이므로 심폐 소생술의 중요성에 관한 글에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자료 1>은 심정지가 발생했을 때 초기 대응이 중요함을 설명하고 있다. 환자를 발견했을 때 바로 실시할 수 있는 심폐 소생술이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방법임을 전달하는 데 좋은 자료이다.

② <자료 2>는 일반인의 심폐 소생술 실시율이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과 관련됨을 보여 준다. 일반인인 우리가 심폐 소생술을 실시할 줄 알아야 함을 설득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이다.

④ 글에 도표와 그래프 같은 시각 자료를 제시하면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

⑤ <자료 3>에 제시된 동영상과 같은 자료는 신문 매체에 글을 실을 때는 사용할 수 없다. 신문에는 그림이나 사진, 그래프 등을 활용할 수 있다.

06 수집한 근거 자료는 글을 실을 매체에 적합하면 된다. 다양한 매체에 적합한 자료일 필요는 없다.

오답 풀이 ① 수집한 근거 자료는 주장의 타당성을 뒷받침 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수집한 근거 자료는 출처가 분명한 것으로 신뢰성을 지녀야 한다.

④ 수집한 근거 자료는 글의 주제와 관련된 것이어야 하며 글의 통일성을 해쳐서는 안 된다.

⑤ 수집한 근거 자료는 예상 독자의 수준이나 관심사, 배경지식 등을 고려하여 선별해야 한다.

07 ㉔은 설득하는 글의 결론이므로 본문의 내용을 종합하거나 요약하여 자신의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㉔에서 비만 치료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기르자.’라고 하는 주제에도 걸맞지 않고, 본문의 내용을 종합하거나 요약하는 내용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㉔에는 비만을 예방하기 위한 건강한 생활 습관을 당부하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㉑, ㉒ 서론에는 글에서 다룰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개요로 볼 때 청소년 비만의 현황과 문제점을 다루면서 청소년들의 비만율을 잘 보여 줄 수 있는 초·중·고교 학생 비만율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다.

③, ④ 본문에서는 문제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명확하게 밝히고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개요로 볼 때 본문에서는 청소년 비만의 원인과 청소년 비만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다루려고 한다. ㉑에서는 청소년 비만의 원인을 제시하려 하므로 하위 항목으로 과도한 열량 섭취, 부족한 신체 활동 등이 들어가는 것은 적절하다. 또 ㉔에서는 청소년 비만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려 하므로 식습관 개선, 신체 활동량 증가 등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08 심정지에 따른 결과가 초기 대응 시간에 따라 달라짐을 알 수 있는 도표를 통해 심정지 환자에게 심폐 소생술을 실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우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어떤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 않다.

②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자신의 경험이 아닌 친구의 경험을 사례로 들고 있다.

④ 심폐 소생술을 배우고자 하는 독자의 의지를 촉구하기 위해 역사적 사례를 활용하고 있지는 않다.

⑤ 심폐 소생술을 통해 가족을 살린 긍정적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09 심폐 소생술의 발전 과정에 대한 내용은 이 글에 나타나 있지 않으며, 글의 주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없다.

오답 풀이 ① 1문단에 나타나 있다.

③ 4문단에 나타나 있다.

④ 4문단과 5문단에 나타나 있다.

⑤ 6문단에 나타나 있다.

10 ㉔은 미국, 일본, 싱가포르에서 일반인이 실시한 심폐 소생술 비율을 제시하며 우리나라는 아직도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밝히고 있다. 여기서 ‘매우 낮은 수준’이란 어느 정도를 말하는지 알 수 없으므로 우리나라의 심폐 소생술 비율도 다른 나라와 같이 정확한 수치로 나타내는 것이 적절하다.

11 이 글의 주제를 고려했을 때 질병 관리 본부의 자료를 근거로 활용한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심폐 소생술 교육을 받은 친구의 말을 근거로 활용한 것은 신뢰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타당성을 획득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표제와 끝부분에 심폐 소생술을 배우자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어 설득의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심폐 소생술을 배우자는 주장을 하면서 질병 관리 본부의 일반인이 실시한 심폐 소생술 비율 자료를 근거로 하고 있으므로 글의 목적과 부합하는 주장과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심폐 소생술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예상 독자로 하고 있으므로 심폐 소생술의 필요성, 방법, 효과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⑤ 신문은 인쇄 매체로서 시각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도표를 시각 자료로 제시한 것은 매체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2 심폐 소생술 관련 자료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그래프 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좋지만 많이 제시할 필요는 없다. 심폐 소생술과 관련된 자료라고 하더라도 주제에 맞아야 하고 서로 겹치지 않아야 하므로 꼭 필요한 자료만 제시하면서 독자들의 흥미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위급 상황 시 심폐 소생술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건강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흥미를 가질 만한 내용이라는 반응은 적절하다.

② 심폐 소생술을 배우자는 것을 설득하는 글로서 '서론-본론-결론'에 맞게 체계적으로 내용을 구성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반응이다.

③ 심정지에 따른 결과, 외국과 우리나라의 일반인의 심폐 소생술의 비율, 심폐 소생술의 비율이 낮은 이유에 관한 연구 결과에 대한 출처를 밝히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한 반응이다.

④ 심폐 소생술을 하는 사진이나 관련 그림을 보면 흥미를 가질 수 있으므로 적절한 반응이다.

13 글쓴이가 <보기 1>과 같이 초고를 작성한 후 글을 점검해 보고 <보기 2>의 내용을 추가했다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초고의 서론에서 청소년 비만이 심각하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비만을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 <보기 2>는 고등학생인 이모 군의 생활 습관을 보여 주는 글로, 이를 <보기 1>의 앞부분에 추가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례가 서론에 오게 되면서 청소년들의 흥미를 끌 수 있게 되었다.

오답 풀이 ① 초고에 제시된 주장에 대한 근거는 문제가 없다. 다만 통계 수치의 출처를 밝혀야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

② 인쇄 매체임을 고려하여 한눈에 쉽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하려면 그림이나 사진, 그래프 등을 추가하면 된다.

④ 초고에서도 청소년들의 수준에 맞지 않는 어려운 단어는 사용되지 않았다.

⑤ 청소년 비만의 원인을 청소년들의 총동적인 성향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생활 습관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소단원 평가

본문 076~077쪽

01 ② 02 ⑤ 03 ⑤ 04 주변에서 들은 친구의 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근거 자료로서 신뢰도가 떨어지므로 이 내용을 삭제하고 공신력 있는 자료를 근거로 활용해야 한다. **05 ① 06 ① 07 ④**

01 (가)와 (나) 모두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고 있으나 (가)에서만 이를 육하원칙에 따라 서술하였다.

오답 풀이 ① (가)와 (나) 모두 심폐 소생술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이는 심폐 소생술의 중요성을 부각하는 것이다.

③ (가)는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기사문이며, (나)는 심폐 소생술을 배우자고 설득하는 글이다.

④ (가)는 기사문으로 '표제-부제-전문-본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나)는 '서론-본론-결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⑤ (나)에서는 심정지 후 초기 대응 시간에 따른 결과를 시각 자료로 제시하여 예상 독자의 흥미를 끌고 있다.

02 (나)에서 '질병 관리 본부'라는 정부 기관에서 제공한 자료를 활용하였으나, 이 자료의 내용은 심폐 소생술 교육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일반인의 심폐 소생술 실시율과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에 관한 정보이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는 운전 기사의 말을, (나)에서는 친구의 말을 활용하여 심폐 소생술 교육의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② 글 마지막에 운전 기사 박 씨의 말을 인용한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서울 중랑 소방서에 따르면'이라는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심정지에 따른 결과를 보여 주는 도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03 <보기>는 연도별 변화 추이를 한눈에 파악하게 하는 막대 그래프이다. <보기>의 자료를 활용하면 구체적이고 정확한 수치를 통해 일반인의 심폐 소생술 실시율과 심장 정지 환자의 생존율 간의 상관관계를 드러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A]에서 이미 자료를 발표한 기관의 명칭을 명시하였다.

②, ③, ④ <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04 내용의 신뢰성은 자료의 출처가 정확한지, 권위 있는 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인지 등을 통해 판단할 수 있다. [B]에서는 친구의 말을 근거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적 사례에 해당하므로 신뢰성을 떨어뜨린다. 따라서 공신력 있는 자료를 근거로 활용하여 고쳐 쓰는 것이 좋다.

05 <보기>는 심폐 소생술 교육 동영상에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동영상 자료이다. 이는 (나)의 주제와 부합하지 않으므로 (나)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② <보기>는 자료의 출처를 명시하고 있다.

③ 동영상은 인쇄 매체인 신문에서 다룰 수 없는 자료이다.

④ <보기>는 심폐 소생술 교육 동영상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심폐 소생술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다루지 않았다.

⑤ 지역 주민은 심폐 소생술 교육 동영상을 관리하는 것과 상관이 없으며, <보기>는 (나)에 활용되지 않았다.

06 이 글의 서론에서는 심폐 소생술의 중요성을, 본론에서는 심폐 소생술 교육의 방법과 효과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글의 결론인 ㉠에서는 심폐 소생술을 배우고 익히자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07 글쓴이의 주장이 글의 앞이나 중간, 마지막 부분 중 어디에 놓이는지는 글의 목적을 파악하는 것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나) 역시 주제와 관련된 자료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 등 글의 맥락을 통해 글의 목적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심폐 소생술을 배우자고 설득하는 것임을 파악할 수 있다.

01 ⑤ 02 ② 03 ⑤ 04 ④ 05 토론 순서에 따라 토론자의 발언 순서를 안내한다. 토론자의 의견을 요약·정리한다. 06 ③ 07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려도 당 섭취량은 줄지 않는다. 왜냐하면 프랑스나 멕시코에서 세금을 부과해도 그 다음 해부터는 탄산음료의 판매량이 다시 늘어났기 때문이다. 08 ⑤ 09 ⑤ 10 ④ 11 ① 12 ④ 13 ① 14 ② 15 ④ 16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려야 한다. 17 ④ 18 ⑤ 19 ③ 20 ⑤ 21 ③ 22 ② 23 ③ 24 ㉔: 공신력 있는 자료가 아닌 주변에서 들은 친구의 이야기를 근거로 활용하였다. ㉕: '일반인이 실시한 심폐 소생술 비율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에서 정확한 수치를 밝히지 않고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였다. 25 ④

01 이 글은 토론으로, 찬성과 반대로 나뉘는 논제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말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반박하면서 자기의 주장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형식의 말하기이다.

오답 풀이 ① 토의에 대한 설명이다.

- ② 토론은 사람들을 설득하는 말하기이지, 이해를 돕기 위한 말하기는 아니다.
 ③ 토론은 논제에 대해 찬성 측과 반대 측으로 나뉘어 자기의 주장으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말하기이다.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설득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토론은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사람들의 반성을 이끌어 내는 것이 목적은 아니다.

02 토론의 논제란 토론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말한다. 이 토론은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려야 한다는 데 대해 찬성 측과 반대 측으로 입장이 나뉘고 있으므로, 이 토론의 논제는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려야 한다.'이다(㉑). 또한 이 토론은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다루는 정책 논제에 해당한다(㉒). '유기 동물 안락사를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 또한 유기 동물의 안락사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다루고 있으므로 이 토론의 논제와 같이 정책 논제라고 할 수 있다(㉓).

03 반대 1은 찬성 1의 반론에 대하여 비만의 원인이 당에도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찬성 측이 이전에 범했던 오류(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부각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입론에서 반대 1은 '고당류 음료를 통한 당 섭취가 건강을 위협하는가?'라는 쟁점에 대하여 당은 우리 몸과 뇌에 꼭 필요한 에너지원임을 근거로 당 섭취가 건강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는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 ② 교차 조사에서 찬성 1은 당이 당뇨병이나 대사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질문을 통해 반대 1의 입론 내용을 검증하고 있다.
 ③ 반대 1은 찬성 1의 질문에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지적하고 있다.
 ④ 찬성 1은 반대 1이 주장한 당이 우리 몸에 흡수되어 에너지원으로 소비된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소비되고 남은 당이 비만의 주범이라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고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04 <자료 2>에서 청소년들이 즉석식품을 통해 과도한 지방 및 당을 섭취하고 있다는 내용은 소비되고 남은 당이 지방으로 축적되어 비만의 원인이 된다는 내용과 관련시킬 수 있다. 당의 과도한 섭취

가 지방의 축적으로 이어져 비만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찬성 1의 주장의 근거로 삼기에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자료 1>의 초·중·고교 학생들의 비만율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내용은 당과의 연관성이 드러나 있지 않으므로 비만의 원인이 당에 있다는 찬성 1의 근거가 될 수 없다.

- ② <자료 1>에서 초·중·고교 학생들의 비만율의 증가 폭이 줄어들고 있다는 내용을 도출할 수 있는데, 이는 당의 순기능과는 관련이 없다.
 ③ <자료 2>에서 청소년들의 텔레비전이나 컴퓨터 사용 시간이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은 청소년이 필요에 의해 고당류 음료를 즐기고 있다는 내용과 관련이 없다.
 ⑤ <자료 2>는 부족한 신체 활동이 에너지 소비의 감소로 이어져 청소년 비만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된다는 사실을 담고 있으므로 어떤 성분이든 과다 섭취가 문제라는 반대 1의 근거로 활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05 이 글에서 사회자는 '다음은 반대 측 첫 번째 토론자, 입론해 주십시오.'와 '찬성 측 첫 번째 토론자, 교차 조사해 주십시오.'에서 볼 수 있듯이 토론 순서에 따라 토론자의 발언 순서를 안내하고 있다. 또한 '반대 측에서는 ~ 주장하고 있습니다.'에서 볼 수 있듯이 토론자의 의견을 요약·정리하고 있다.

<서술형 평가 기준>

평가 기준	평가
이 글에 나타나는 사회자의 역할을 두 가지 모두 바르게 서술하였다.	상
이 글에 나타나는 사회자의 역할을 한 가지만 바르게 서술하였다.	하

06 토론에서 청중은 주장에 대한 근거가 타당한지, 주장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는지를 따져 보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 제시한 근거가 일상생활에 가까운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⑤ 주장과 근거가 설득력 있게 구성되었는지 논증 과정을 비교하는 것은 청중이 취해야 할 태도로 적절하다.

- ② 토론 참여자가 논제와 쟁점을 올바르게 분석했는지 비교하는 것은 청중이 취해야 할 태도로 적절하다.
 ④ 상대측의 주장을 반박할 때 논리적인 태도를 취했는지 비교하는 것은 청중이 취해야 할 태도로 적절하다.

07 찬성 2는 프랑스와 멕시코가 설탕 세를 도입하고 첫해에 탄산음료 판매량이 줄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들어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에 반대 1은 첫해 이후에는 판매량이 다시 늘었다는 사실을 제시하며 반박하는 근거를 내놓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려도 당 섭취량은 줄지 않는다는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서술형 평가 기준>

평가 기준	평가
반대 1의 주장을 바르게 제시하였고, 프랑스, 멕시코의 사례를 근거로 들어 <조건>에 맞게 서술하였다.	상
반대 1의 주장을 바르게 제시하였고, 프랑스, 멕시코의 사례를 근거로 들었으나 <조건>에 맞게 서술하지 못하였다.	중
반대 1의 주장을 제대로 서술하지 못하였고, 프랑스, 멕시코의 사례만을 바르게 서술하였다.	하

08 반대 1이 ‘설탕 세’ 도입에 실패한 미국과 덴마크의 사례를 제시하자 찬성 2는 ‘설탕 세’ 정책을 도입해 고당류 음료의 소비를 줄이는 데 성공한 프랑스와 멕시코의 사례를 들어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네, 맞습니다.’에서 볼 수 있듯이 단호한 태도를 보이지보다는 상대방의 의견을 일부 인정하고 있다.

② 상대방 근거의 타당성을 지적하고 있지 않다.

③ 상대방이 지정한 문제점을 보완할 방법을 제안하지는 않았다.

④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일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09 <보기>의 두 자료는 유기 동물이 늘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안락사는 유기 동물의 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보기>를 근거로 삼아 내세울 수 있는 주장은 ‘안락사가 유기 동물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가 적절하다. 따라서 논제에 대해 반대 측 입장의 주장에 대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보기>는 유기 동물 관리와 관련된 문제점이 드러나는 자료로 동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안락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과는 관련이 없다.

②, ③ 유기 동물 안락사를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므로, 유기 동물 안락사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과 관련 있는 <보기>를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

④ <보기>는 유기 동물 관리와 관련된 문제점이 드러나는 자료로 안락사가 반려동물의 유기를 막을 수 있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10 글쓰기의 각 단계에서는 자신의 생각이 잘 드러나도록 쓰기 맥락에 맞게 글을 써야 한다. 이 글은 서론 부분에서 질문과 우리 주변의 사례를 통해 독자의 흥미를 끌고 있을 뿐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쓰기 맥락을 분석하는 단계에서는 글을 쓰는 목적과 예상 독자, 주제, 매체 등을 분석한다. 이 글은 (마)에서 심폐 소생술을 배우고 익히자고 글을 마무리하고 있으므로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글임을 알 수 있다.

② 내용을 생성하는 단계에서는 글을 쓰는 데 필요한 자료를 수집한다. (다)에서 우리나라의 일반인이 실시한 심폐 소생술 비율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한 다른 나라의 경우와 비교하여 보여 주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내용을 조직하는 단계에서는 개요 등을 작성하여 서론, 본론, 결론의 내용을 선정한다. (다)와 (라)가 본론에 해당되는데, 심폐 소생술의 교육 방법과 그 효과에 대한 내용 등을 제시하고 있다.

⑤ 자기 점검을 통해 글을 평가해 보고 고쳐 쓰는 단계이다. (다)에서 우리나라의 일반인이 실시한 심폐 소생술 비율에 관한 수치가 나타나 있지 않아서 ‘매우 낮은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정확한 수치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11 <보기> 자료는 심정지에 따른 결과를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보여 주고 있어 빠른 시간 안에 응급 처치를 해야 생명을 살릴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도표이다. 따라서 이 자료를 추가한다면 독자에게 심폐 소생술의 중요성을 확실하게 인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12 이 글은 심폐 소생술을 배우자는 설득을 하는 글이다. 따라서 심폐 소생술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예상 독자로 적절하다. 따라서 응급 처치를 담당하는 의사나 소방대원은 이미 심폐 소생술을 배운 사람들이므로 예상 독자로 적절하지 않다.

13 (가)는 당의 과다 섭취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문제가, (나)는 일반인이 실시한 심폐 소생술 비율이 낮은 문제가 제시되고 있는데 이는 모두 사회에 두루 적용되는 것이므로 공공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인쇄 매체를 염두에 두고 작성된 것은 (나)이고, (가)는 토론 내용을 담은 것이다.

③ (가)는 마지막 문장 ‘몇몇 국가의 ~ 없다고 생각합니다.’라는 주장을 통해, (나)는 2문단 ‘이러한 걱정을 ~ 배우는 것입니다.’라는 내용을 통해 둘 다 설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가)에서는 돼지 삼겹살의 사례를, (나)에서는 심폐 소생술 교육을 받은 친구의 사례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⑤ (가)에서는 세계 보건 기구의 조사 결과를, (나)에서는 질병 관리 본부의 발표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14 ㉠은 상품의 가격이 올라도 소비가 줄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이를 반박하기 위해서는 상품의 가격과 소비가 반비례 관계인 사례를 제시해야 한다. 그런데 불황에도 명품 브랜드의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 사례는 ㉠과 유사한 사례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배추 가격이 올라 배추를 소비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찬성 측이 추가할 수 있는 자료로 적절하다.

③ 치킨 가격이 올라 치킨 소비가 줄어든 경우이므로 찬성 측이 추가할 수 있는 자료로 적절하다.

④ 가격과 소비의 반비례 관계는 가격이 오르면 소비가 준다는 사실을 말해 주므로 ㉠을 반박하기 위해 추가할 수 있는 자료로 적절하다.

⑤ 가격이 오를 경우 음료를 사 먹지 않겠다는 응답이 높게 나온 설문 조사 결과는 ㉠을 반박하기 위해 추가할 수 있는 자료로 적절하다.

15 교사의 조언에 따라 글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심폐 소생술을 배웠을 때의 기대 효과가 담겨 있어야 하고, 비유가 활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심폐 소생술이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구급약’이라는 비유적 표현과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동시에 공동체에 대한 믿음을 준다.’라는 기대 효과를 제시한 ④가 가장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② 심폐 소생술을 배웠을 때의 기대 효과가 담겨 있지 않다.

③ 비유와 기대 효과가 모두 담겨 있지 않다.

⑤ 기대 효과는 담겨 있으나 비유를 활용하고 있지 않다.

16 이 글은 ‘고당류 음료의 가격 인상’과 관련하여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인상해야 한다는 찬성 측과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인상하지 않아야 한다는 반대 측의 토론 내용을 담고 있다. 이때 현상을 바꾸는 쪽은 찬성 측이며, 입증의 책임이 긍정 측에 있도록 진술하려면 이 토론의 논제는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려야 한다.’가 되어야 한다.

<서술형 평가 기준>

평가 기준	평가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입증의 책임이 긍정 측에 있도록 논제를 진술문의 형식으로 정확하게 제시하였다.	상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논제를 작성하였으나 입증의 책임과 진술문의 형식 중 어느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중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논제를 작성하였으나 입증의 책임과 진술문의 형식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

17 찬성 1은 우리나라의 고도 비만을 추이에 관한 그래프 자료를 제시하고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반면 반대 2는 2014년 유럽 의회 보고서에 실린 “제품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는 단가가 더 낮은 제품을 찾게 된다.”라는 말을 직접 인용하여 특정 성분의 가격 상승이 결과적으로 더 해로운 성분의 소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찬성 1은 청중 또는 배심원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으나 반대 2는 청중 혹은 배심원에게 질문을 하지 않았다.
 ② 찬성 1은 고도 비만율의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 자료를 활용하였으나, 반대 2는 비만의 사회 경제적 총비용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 자료를 활용하였다.
 ③ 찬성 1은 과도한 당 섭취가 비만의 원인을 설명하였으나, 반대 2는 비만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언급하지 않았다.
 ⑤ 찬성 1은 청소년이 당을 섭취하게 되는 주요 식품이 가공 음료라고 언급하였으나, 그 순위를 조사한 자료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18 [A]에서는 에너지원으로 소비되고 남은 당은 지방으로 축적된다는 과학적 지식을 근거로 제시한 후 “이것이 비만의 주범이 된다는 사실은 찬성 측도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요?”라고 말하며 자신의 주장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를 유도하고 있다.

19 ⑥와 관련된 쟁점은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리면 당 섭취를 줄일 수 있는가?’이다. 이 쟁점과 관련하여 반대 2의 주장은 확인할 수 없다. 반대 2는 비만보다 음주와 흡연의 사회 경제적 비용을 줄일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게 더 시급하다고 하였다. 비만으로 인해 사회 경제적 비용이 증가하므로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규제해야 한다고 한 것은 찬성 1의 주장이다.

오답 풀이 ①, ② ⑥와 관련된 쟁점은 ‘가공 음료를 통한 당 섭취가 건강을 위협하는가?’이다. 찬성 1은 고도 비만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당이 많이 들어 있는 것을 모르고 가공 음료를 즐겨 마시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반대 2는 비만의 원인이 당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비만보다 음주나 흡연의 사회 경제적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문제가 심각한 편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④, ⑤ ⑥와 관련된 쟁점은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리는 것이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가?’이다. 이에 대해 반대 2는 특정 성분의 가격 상승이 결과적으로 더 해로운 성분의 소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개선 이익이 없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찬성 2는 고당류 음료의 소비를 억제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증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 ①에는 비만의 원인이 당에만 있다고 볼 수 없는 근거 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미국의 사례는 당의 소비량이 감소하였지만 비만율이 증가하였음을 보여 주는 자료로, 이를 활용하면 비만에 영향을 끼치는 다른 요인이 있음을 부각할 수 있으므로 반대 1의 주장에 대한 근거로 적절하다.

21 예상 독자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다)의 1문단에서 쓰러진 어머니를 살린 고등학생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학생을 인터뷰한 내용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오답 풀이 ① 3문단에서 일반인이 실시한 심폐 소생술의 실태를 제시하고 있다.

② (다)의 마지막 문단에서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심폐 소생술을 배우고 익히시다.’라는 주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④ (다)의 2문단에서 심폐 소생술의 중요성을, 4문단에서 심폐 소생술 교육의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⑤ 인쇄 매체인 신문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로 문자 언어를 사용하는 가운데 ‘심정지에 따른 결과’에 대한 도표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22 (다)의 2문단에서 심폐 소생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지만, 심폐 소생술의 개념을 설명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23 <자료 1>은 일반인의 심폐 소생술 실시율이 높아짐에 따라 심장 정지 환자의 생존율 역시 증가했음을 보여 주는 자료이다. (다)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일반인이 실시한 심폐 소생술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심장 정지 환자의 생존율도 함께 증가하였다고 합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자료 1>과 <자료 2>에서 일반인이 실시한 심폐 소생술의 비율이 증가한 이유를 확인할 수 없다.

② <자료 1>은 우리나라와 관련된 자료로 다른 나라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

④ <자료 2>는 심폐 소생술 교육 동영상에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다)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

⑤ <자료 2>는 심폐 소생술을 잘못하면 뇌 손상과 같은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는 내용을 제시하였으나, (다)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24 ‘근거가 정확하고 믿을 만한 내용인가?’라는 기준은 내용의 신뢰성과 관련이 있다. (다)에서 글쓴이는 친구의 말을 근거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적 사례에 해당하므로 신뢰성을 떨어뜨린다. 따라서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심폐 소생술 비율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라는 문장에서 ‘매우 낮은’이라는 진술은 모호한 표현에 해당한다. 따라서 구체적이고 정확한 수치를 밝히는 것이 좋다.

<서술형 평가 기준>

평가 기준	평가
③와 ⑥에 들어갈 내용을 모두 정확하게 서술하였다.	상
③와 ⑥ 중 한 가지의 내용만 정확하게 서술하였다.	중
③와 ⑥의 내용을 모두 정확하게 서술하지 못하였다.	하

25 ④는 심폐 소생술을 배우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이는 글쓴이의 주장과 일치한다. 또한 ‘심폐 소생술을 배우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심장지로 죽어가는 사람이 줄어듭니다.’라는 문장은 대구를 이루고 있으며, ‘꺼지는 촛불’에는 비유적 표현이 사용되었다.

오답 풀이 ① 심폐 소생술을 배우자는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최고의 보약’, ‘명의’와 같이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대구를 사용하지 않았다.

②, ③ 심폐 소생술을 배우자는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첫 문장에서 대구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⑤ 심폐 소생술을 정확하게 실행해야 한다는 내용은 글쓴이의 주장과 관련이 없다. 한편 대구와 비유적 표현은 사용하였다.

8. 삶 속에 흐르는 한국 문학의 강

(1) 청산별곡

본문 확인 문제

본문 090~091쪽

- 01 ⑤ 02 ① 03 ① 04 새 05 ② 06 ④ 07 ③
08 (1) ㉠ (2) ㉡ (3) ㉢ (4) ㉣ 09 ② 10 ③ 11 ③
12 ②

01 이 시가에서는 설의법, 대구법, 감정 이입 등 다양한 표현 방법이 활용되고 있으나, 본래 나타내려는 뜻과 반대로 표현하여 그 의미를 강화하는 반어적 표현은 찾아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라는 특정 시구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② 8연의 ‘내 엇디 후리잇고’에서 설의법을 사용하여 화자의 체념적인 심정을 표출하고 있다.

③ 4연에서 ‘낮’과 ‘밤’이라는 상황의 대비를 통해 화자의 고독감을 부각하고 있다.

④ 2연에서 ‘새’보다 화자의 시름이 더 많다는 점을 드러내어 화자의 비애와 슬픔을 강조하고 있다.

02 화자는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나 청산에서 살고 싶어 한다. ‘바를’도 ‘청산’과 같이 화자가 동경하는 세계이다.

오답 풀이 ② 청산이나 바다와 대비되는 공간으로 현실 세계를 의미한다.

③ 화자에게는 절망적인 고독의 시간을 의미한다.

④ ‘외따로 떨어져 있는 부엌’이라는 뜻으로, 화자가 속세를 멀리 피해 다닐 수 있는 소재이다.

⑤ ‘장대’라는 뜻으로, 기적 같은 삶에 대한 바람을 표현하는 데 활용되는 소재이다.

03 이 시가의 화자는 현실의 고통과 비애에서 벗어나 이상향인 청산이나 바다에 가서 살고 싶다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괴롭고 고통스러운 현실 세계에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이 화자의 상황과 정서에 공감할 것이다.

04 2연에서 화자는 ‘새’에 자신의 고독하고 슬픈 감정을 이입하여 동병상련(同病相憐)을 드러내고 있다.

05 이 시가의 화자를 고려 후기 무신들의 횡포로 인해 좌절된 양심적 지식인으로 볼 때, 3연의 ‘가던 새’는 그동안 화자와 뜻을 함께하던 ‘벗’이라고 해석 가능하다. 따라서 화자는 현실을 견디지 못하고 떠나간 벗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시름’은 가난한 현실에 대한 슬픔이나 고뇌라기보다는 자신의 뜻을 펼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울분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③ 5연에서 ‘돌’은 고난을 의미하는데, 〈보기〉를 적용하면 무신들의 횡포가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5연은 무신들의 횡포에 대한 체념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④ 8연에서 화자는 현실을 극복하고 술을 마시며 양심에 따른 삶을 살 것을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뇌에 가득 찬 현실을 술을 마시며 잊으려 하는 체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⑤ 〈보기〉를 참고하면 이 시가는 무신 정권의 횡포로 속세를 떠나 사는 좌절된 지식인의 염세적 태도를 표현한 작품으로 해석할 수 있다.

06 화자가 실연한 여인일 경우 ‘잉 무든 장글’은 ‘이끼 묻은 은장도’로 해석할 수 있다. ‘날이 무딘 병기’는 화자를 좌절된 지식인으로 볼 때 적절한 해석이다.

오답 풀이 ① 화자가 유랑민일 경우 ‘잉 무든 장글’은 화자가 농토를 잃어 사용하던 쟁기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을 ‘이끼 묻은 쟁기’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② 화자가 유랑민일 경우 ‘가던 새’는 ‘갈던 새래’에서 ‘ㄹ’이 탈락한 것으로 갈던 발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③ 화자가 유랑민일 경우 난리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떠도는 유랑민의 고통과 비애를 읊은 노래로 이해할 수 있다.

⑤ 화자가 실연한 여인일 경우 이별의 상황에서 임에 대한 그리움과 이별의 슬픔을 견디지 못하여 속세를 떠나 자연에서 살고자 하는 마음을 노래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07 이 시가의 5연과 6연을 서로 바꾸면 1~4연은 ‘청산 노래’, 5~8연은 ‘바다 노래’로 대칭적 구조를 이룬다. 따라서 ‘우려라 우려라 새여’와 대칭을 이루는 시구는 ‘어디라 더디던 돌코’가 된다.

08 이 시가는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지닌 시어들을 통해 함축성을 높이고 있다. 그중 5연의 ‘돌’은 화자의 가혹한 운명이자 피할 수 없는 운명, 화자의 삶의 비애를 야기하는 매개체를 의미하고, 4연의 ‘밤’은 화자의 절망적 고독과 외로움이 깊어지는 시간을 의미한다. 6연의 ‘바를’은 1연의 ‘청산’과 같이 화자가 괴로운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공간, 즉 이상향을 의미한다. 8연의 ‘강수’는 현실의 고통과 괴로움을 잊게 해 주는 매개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09 ㉠은 일정한 시구를 반복하면서 변이를 주는 형태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에서도 ‘잠아’가 반복되다가 변이되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운율을 느낄 수 있다.

선택지 작품 맛보기

① 주세붕, 「오류가」

주제: 삼강오륜(三綱五倫)의 교훈 강조

감상: 이 작품은 모두 6수로 이루어진 연시조로, 삼강오륜의 유교적 내용을 바탕으로 백성들이 일상에서 지켜야 할 일들을 표현한 교훈적이고 도덕적인 시조이다.

② 작자 미상, 「잠노래」

주제: 밤새워 바느질해야 하는 삶의 고달픔

감상: 늦은 밤까지 잠을 참으며 일해야 하는 옛 여인들의 삶의 애환을 해학적으로 표현한 민요이다.

③ 이광명, 「북찬가」

주제: 유배지에서 겪는 어려움과 사모의 정

감상: 유배에 대한 억울함과 귀양지에서 겪는 어려움이 드러난 유배가사로, 홀로 계신 어머니를 염려하고 그리워하는 마음, 어머니를 봉양하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울분이 잘 나타나 있다.

④ 정극인, 「상춘곡」

주제: 봄 경치를 즐기는 강호가도(江湖歌道)와 안빈낙도(安貧樂道)

감상: 봄 경치의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그 속에서 느끼는 화자의 흥취와 풍류를 노래한 서정 가사이다.

⑤ 작자 미상, 「베를 노래」

주제: 베 짜는 여인의 흥과 멋

감상: 베를 짤 때 고달픔과 지루함을 덜기 위해 부르던 노동요로, 힘든 베 짜기 상황에서도 가족애와 낭만적 여유를 잃지 않는 옛 여인들의 삶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10 ㉠은 이 시가의 후렴구이다. 이 후렴구는 운율을 형성하거나 구조적 통일성에 기여하지만, 내용이나 주제와는 별 관련이 없다.

오답 풀이 ① 각 연마다 반복되어 운율감을 더욱 강화하고 흥을 돋운다.

② 매 연의 뒤에 배치되어 구조적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

④ 후렴구를 통해 각 연을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

⑤ 이 시가의 후렴구에는 주로 ‘르, 오’ 음이 많이 사용되어 밝고 경쾌한 느낌을 준다.

11 화자는 ㉡에서 아무도 없는 밤의 고독과 외로움을 표현하고 있다. <보기>에서의 ‘밤’도 화자가 입과 이별하고 독수공방의 처지에 있음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과 <보기> 모두 외로움과 고독의 정서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보기 작품 이해하기 작자 미상, 「귀쪼리 저 귀쪼리~」

주제: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과 외로움

감상: 이 시조는 입과 이별한 여인의 외로운 심정을 귀뚜라미의 울음을 통해 표현한 작품이다. 임을 향한 간절한 그리움을 감정 이입, 반어법 등을 통해 잘 드러내고 있다.

12 ㉢을 <보기>와 같이 해석한다면 사슴이 장대 위에서 해금을 켜는 것과 같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은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화자의 심정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학습 활동 짚고 가기

본문 092쪽

01 ③ **02** 후렴구가 흥을 돋우고 노랫말을 쉽게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이 시가를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 사이에서 불리며 이어져 오게 하였다. **03** ③ **04** ④

01 1연은 깊은 산골인 정선에서의 삶의 힘들음을 토로하고 있고, 2연은 봄의 풍경을 보며 느끼는 애상감과 쓸쓸함의 정서를 담고 있으며, 3연은 강을 건너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임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시가는 각 연의 내용이 하나의 주제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상황과 정서가 나열된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유기성이 떨어진다.

030 정답과 해설

02 이 시가는 민요로서 오랜 세월 구전되어 불리며 왔다. 각 연이 하나의 주제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상황과 정서가 나열된 형태로 독립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청자가 마음대로 노랫말을 붙여 이어 부르기 쉽고 노래의 일부를 생략하거나 순서를 바꾸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아 누구나 창작할 수 있었다. 또한 후렴구를 사용함으로써 사람들의 흥을 돋우고 노랫말을 쉽게 기억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형식적 특성으로 인해 이 시가가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 사이에서 불리며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것이다.

03 이 시에서는 ‘살아라’라는 명령형 어미로 산이 화자에게 말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청유형 어미를 활용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산이 화자에게 ‘~ 살아라’라고 말한다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② ‘그름달처럼 살아라 한다’가 반복되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④ ‘~나 ~며 살아라 한다’, ‘~처럼 살아라 한다’가 반복되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⑤ ‘들쭉레처럼’, ‘쑥대밭처럼’, ‘그름달처럼’에서 확인할 수 있다.

04 ‘씨나 뿌리며’와 ‘밭이나 갈며’는 욕심 부리지 않고 소박하게 사는 삶을, ‘들쭉레처럼’과 ‘쑥대밭처럼’은 자연에 동화된 삶을, ‘그름달처럼’은 자연의 순리대로 살아가는 삶을 표상한다.

소단원 평가

본문 093~098쪽

01 ② **02** ⑤ **03** ① **04** ⑤ **05** ② **06** 5연의 ‘마자서 우니노라.’와 8연의 ‘내 었디 후리잇고’를 통해 삶의 운명이나 현실의 고뇌에 대해 체념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07** ⑤ **08** ⑤ **09** ④ **10** ⑤ **11** ① **12** ④ **13** 새, ‘새’와 ‘족불’은 화자가 동병상련을 느끼는 감정 이입의 대상으로 화자의 외로움과 고독의 정서를 드러낸다. **14** ③ **15** ⑤ **16** ⑤ **17** ① **18** ④ **19** 화자의 고독감(외로움)이 극대화되는 시간이다. **20** ② **21** ② **22** ④ **23** 자연에 동화되어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삶을 살고자 한다. **24** ⑤

01 (나)는 1연에 자연에서의 소박한 삶이, 2연에 자연에 동화된 삶이, 3연에 자연과 일치되어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삶이 나타나 있으므로 자연에서의 삶의 모습이 점층적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가)는 각 연의 내용이 다양한 상황과 정서가 나열된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시상이 점층적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가)와 (나)는 모두 속세와 자연이라는 공간의 대비를 바탕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③ (나)는 ‘산이 ~ 살아라’라고 시적 대상이 화자에게 말을 하는 방식을 통해 자연에 동화되어 자연의 순리대로 살고 싶은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으며, (다)는 ‘아우라지 뱃사공아 배 좀 건네주게’라고 화자가 뱃사공에게 말을 건네며 임을 만나고 싶은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④ (가)와 (다)는 고전 가요로서 여러 연으로 이어져 구성된 분연체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나)는 현대 시로서 연을 구분하고 있다.

⑤ (가)와 (다)는 후렴구를 사용하여, (나)는 ‘산이 날 에워싸고’와 ‘살아라 한다’라는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02 ‘밭’은 화자가 산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공간으로 새로운 세계에서의 소박한 삶의 모습을 의미한다. 속세에 대한 화자의 반성이나 성찰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청산’이나 ‘바룰’은 화자가 현실에서 벗어나 지향하고자 하는 인식처에 해당한다.

② (가)에서 ‘물 아래’는 ‘청산’이나 ‘바룰’과 대비되는 공간으로 속세를 의미한다.

③ (가)에서 ‘예정지’는 외따로 떨어져 있는 부역으로서 화자가 속세를 멀리 피해 다닐 수 있는 공간이다.

④ (나)에서 ‘산’은 순수한 자연, 속세에서 벗어난 초월적인 공간을 의미한다.

03 (다)는 ‘정선’이나 ‘아우라지’와 같은 실제 지명이 언급되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이나 향토성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지만, (가)에서는 특별한 지역적 특색이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②, ③ (가)는 고려 가요, (다)는 민요로, 모두 민중들이 주로 창작하고 향유하였기 때문에 내용 면에서도 당시 민중들의 진솔한 생활 감정과 의식, 삶의 애환을 다루는 경우가 많다.

④ (가)와 (다) 모두 민중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다가 문헌에 기록되어 오늘날까지 전승되고 있다.

⑤ (가)와 (다) 모두 각 연의 내용이 하나의 주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상황과 정서로 나열된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유기성이 떨어진다.

04 ‘조롱꽃’은 ‘조롱박꽃’을 뜻하는 것으로, (가)에서는 ‘누룩’을 비유하는 대상이지 자연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대상이 아니다.

오답 풀이 ① ‘또 었디 호리라.’는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없는 밤에 화자가 느끼는 외로움과 고독에 대한 표현으로 대상의 부재에 대한 정서라고 할 수 있다. ‘올동백이 다 떨어진다’는 임을 만날 수 없는 안타까움을 표현한 구절로 현재 임이 부재함을 알 수 있다.

② ‘돌’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을 의미하는 것으로 화자의 운명적 삶에 대한 체념의 정서가 반영되어 있으며, ‘두견새’는 한을 표현할 때 주로 쓰는 소재로 애상감을 돋우는 역할을 한다.

③ ‘바룰’과 ‘무릉도원’은 모두 이상향의 세계로 화자의 바람이 반영되어 있는 공간이다.

④ ‘강수’는 현실의 고뇌를 잊기 위한 매개체이고, ‘뱃사공’은 사랑하는 임과 떨어져 있는 화자를 임에게 데려다 줄 수 있는 존재이다.

05 (가)의 화자는 현실의 고뇌에서 벗어나기 위한 도피처로서 자연의 세계를 꿈꾸고 있다. 따라서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또 다른 세계를 동경하는 사람이 이 시가의 화자로 적절하다. 그러나 정년퇴직한 후 시골에 살아갈 집을 마련한 행동은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시가의 화자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살던 집이 철거되어 갈 곳이 없어진 철거민은 절망스러운 현실 속에서 도피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으므로 이 시가의 화자로 적절하다. ③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은 이 시가의 예상 화자로 거론되는 실연한 여인과 흡사하며, 실연의 슬픔을 잊기 위해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을 수 있으므로 이 시가의 화자로 적절하다.

④ 온종일 공부만 하며 고된 현실을 살고 있는 학생은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상적인 삶을 꿈꿀 수 있으므로 이 시가의 화자로 적절하다.

⑤ 열심히 노력해도 취업을 하지 못하는 취업 준비생은 현실의 고통에 좌절하여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어 이 시가의 화자로 적절하다.

06 5연에서 화자는 자신의 의지와 무관한 어쩔 수 없는 운명적 삶을 의미하는 시어인 ‘돌’에 ‘마자서 우니노라.’라고 하며 삶의 운명에 대해 체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8연에서도 화자는 현실의 고뇌를 잊기 위해 술에 의지하고자 하는 태도를 ‘조롱꽃 누르기 밭’과 ‘잡스와니 내 었디 호리있고.’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07 ‘아우라지 뱃사공아 배 좀 건네주게’는 임과 떨어져 있는 화자가 임을 만나러 가고 싶은 소망을 표현한 것으로 나머지 시구들과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 ㉠~㉢은 속세에서 벗어나 자연의 공간에서의 삶을 살고자 하는 화자의 소망이 반영되어 있다.

08 ㉠은 화자가 동병상련을 느끼고 자신의 고독과 슬픔을 이입하는 대상이므로 현실의 고통으로 인해 화자가 관심을 가지게 되는 대상이라 볼 수 있다. 반면 ‘물 아래’는 속세를 의미하는데 가던 새가 그 물 아래를 본다 것은 속세에 대한 미련을 나타내므로 ㉢은 현실 세계에 대한 화자의 미련을 떠올리게 하는 대상이라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은 화자가 동병상련을 느끼고 자신의 감정을 이입하는 대상이므로 화자와 동일시되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으나, ㉢은 속세에 대한 미련이나 상실감 등을 떠올리게 뿐 화자가 동병상련을 느끼거나 동일시하는 대상이 아니다.

② 화자는 괴로운 현실로 인해 ㉢에서는 고독함을, ㉢에서는 슬픔이나 상실감, 좌절감, 속세에 대한 미련을 느끼고 있는 있으나, ㉢과 ㉢을 통해 삶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있지는 않다.

③ 의미가 중의적으로 해석되는 소재는 ㉢가 아니라 ㉢이다. ㉢은 시적 화자를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데, 화자를 유랑민으로 볼 경우 사래, 즉 밭으로, 화자를 실연한 여인으로 볼 경우 화자를 버리고 떠난 임으로, 화자를 좌절한 지식인으로 볼 경우 화자와 뜻을 같이하던 벗으로 해석된다.

④ 화자는 ‘넌라와 시름 한 나도’라고 하며 ㉢와 비교하여 자신의 슬픔을 드러내고 있다. 반면 ㉢은 화자가 가지는 유랑민으로서의 슬픔이나 실연의 상실감, 지식인으로서의 좌절감 등과 관련 있는 대상이므로 화자와 대조되는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09 (가)와 (나)에서 각 연의 내용은 하나의 주제로 연결되지 않고 다양한 상황과 정서가 나열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각 연의 내용은 유기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10 (가)는 3·3·2조, 3음보의 율격을 지니고 있으며, 후렴구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에는 율림소리인 ‘ㄹ, ㅇ’이 반복적으로 사용되어 운율감을 형성하고, 밝고 경쾌한 느낌을 주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는 애상적, 체념적 분위기가 주를 이루지만 후렴구는 밝고 경쾌한 느낌을 준다.

② 계절의 변화에 따른 자연의 모습을 묘사한 부분을 찾을 수 없다.

③ 5연과 6연의 순서를 바꿀 경우에는 청산의 노래와 바다의 노래가 구조적으로 대칭을 이룬다. 그러나 현재 구성으로는 1~4연의 시상 전개 과정이 5~8연에서 동일하게 반복된다고 볼 수 없다.

④ 공간의 이동은 드러나지만, 화자의 처지가 방랑에서 정착으로 바뀌지는 않는다. 오히려 화자는 현실로부터 도피하려고 하고 있다.

11 [A]에서 화자는 미워할 사람도 사랑할 사람도 없이 돌에 맞아서 울며 지낸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때 돌은 화자의 비애를 야기하는 매개체인 동시에 인간의 운명을 의미한다. 즉, 화자는 피할 수 없는 운명에 체념하고 있는 것이다.

12 (가)의 ‘사슴미’는 ‘사슴’, ‘사름’, ‘사슴 분장을 한 광대’로 다양하게 해석되며, 이에 따라 ‘사슴미 짚대에 올라서 허금을 허거를 드로라.’라는 시구는 <보기>와 같이 다양하게 해석된다.

오답 풀이 ① 미워할 이도 사랑할 이도 없는 화자의 고통스러운 삶에 대한 운명적인 체념의 자세가 드러난다.

② 시름이 많아 자고 일어나 운다는 것으로 화자의 비애와 슬픔이 드러난다.

③ 바다에서 소박한 음식을 먹고 살고 싶은 화자의 심정이 드러난다.

⑤ 술로 시름을 달래는 화자의 체념적 태도가 드러난다.

13 ‘새’와 ‘촉불’은 모두 화자가 동병상련을 느끼는 감정 이입의 대상이다. (가)의 화자는 ‘새’가 운다고 하였고, 〈보기〉의 화자는 ‘촉불’이 속 타는 줄 모르고 눈물만 흘리고 있다고 하며, 자신의 외로움과 고독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보기 **작품 이해하기** 이개, 「방 안에 췌는 촛불～」

주제: 임의 처지에 대한 염려

감상: 이 시조는 임에 대한 걱정과 염려를 조용하게 타는 촛불에 빗대어 표현한 작품이다. 이개가 영월 산골에서 귀양살이하는 어린 단종을 생각하며 지은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14 ㉔는 숙세와 대비되는 공간으로, 화자의 이상향으로 볼 수 있다. 화자에게 ㉔는 동경의 대상이므로 화자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그에 비해 ㉕는 ㉔와 대비되는 공간으로 화자는 이 공간에 대한 미련을 보이고 있다. 즉 ㉕는 화자가 떠나온 속세이므로 화자가 이미 경험한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③은 화자가 현실로부터 도피하려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⑥는 속세를 의미하므로 도피처라고 볼 수 없다.

② ㉔는 이상향이므로 화자의 내면에 존재하는 가상의 공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㉕는 속세이므로 화자가 경험한 공간이다.

④ ③는 화자에게 동경과 소망의 공간이므로 고독감을 느끼는 공간으로 볼 수 없다. 그에 비해 ⑥는 화자가 미련을 보이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⑤ ㉓는 화자가 꿈꾸는 이상향이다. 하지만 앞으로 화자가 살아가게 될 공간인지는 알 수 없다. ㉔ 역시 화자가 떠난 공간이라는 점에서 화자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공간으로 볼 수 없다.

15 화자를 지식인으로 본다면 화자는 속세에 염증을 느끼고 은거하고 있지만, 속세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 내면적 갈등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화자는 독한 술인 ‘강수’를 마시며 자신의 고통을 일시적으로나마 해소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바쁘(빡)’는 화자의 고독이 극대화되는 시간이다. 그래서 화자는 낮과 달리 밤에 비탄과 절망을 느끼는 것이다. 따라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재회에 대한 확신이 커지는 시간으로 볼 수 없다.

② ‘히금’은 악기로 ‘사사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진다. 사슴으로 해석하면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화자의 절박한 심정을, 사람으로 해석하면 실연의 아픔을 잊고 싶은 심정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어떤 것으로 해석을 하더라도 사랑하는 사람과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로 볼 수 없다.

③ ‘멀위’, ‘드래’는 청산에 있는 자연물로 소박한 음식을 의미한다. 즉 이상적 세계에서 소박한 삶을 살고 싶은 화자의 소망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들 소재를 유랑민의 궁핍한 삶을 보여 주는 소재로 볼 수 없다.

④ ‘새’는 ‘물 아래’를 날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속세를 떠올리게 하는 대상
이므로, 새로운 삶의 터전을 꿈꾸는 유랑민의 소망을 표현한 대상으로 볼
수 없다.

16 (가)에서는 ‘살어리 살어리랏다 청산에 살어리랏다 / 멀이용
드래랑 먹고 청산에 살어리랏다’와 같이 ‘a-a-b-a’의 유사한 문
장 구조를 반복하고 있고, (나) 역시 ‘~처럼 살아라 한다’라는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와 (나) 모두 자연물을 소재로 시상을 전개하고는 있지만, 애상적 분위기는 (가)에서만 나타나고 있다.

② (가)는 후렴구를 활용하여 노래의 흥을 돋우고는 있지만, 후렴구가 시상을 집약하지는 않는다. (나)에는 후렴구가 나타나 있지 않다.

③ (가)의 화자는 2연에서 ‘새’에 감정을 이입하여 비애감을 표현하고는 있지만, 새에 인격을 부여하거나 새를 예찬하고 있지는 않다. (나)의 화자는 ‘산’을 인격화하여 말하고는 있지만, ‘산’을 예찬하고 있지는 않다.

④ (가)와 (나) 모두 인간과 자연의 속성을 대조하고 있지 않다. 또한 (나)에서는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드러나지 않는다.

17 (가)의 ‘청산’은 속세와 대비되는 공간으로 화자가 살고 싶어 하는 이상향 또는 도피처로 볼 수 있다. (나)의 ‘산’은 순수한 자연의 세계로 속세에서 벗어난 초월적 공간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두 공간 모두 화자가 지향하는, 속세에서 벗어난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청산’과 ‘산’ 모두 순수하고 소박한 삶이 존재하는 공간이다.
 ③ ‘청산’은 삶의 비애나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공간이며 ‘산’은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삶이 가능한 공간이다. ‘청산’과 ‘산’ 모두 풍류를 즐기는 공간으로 보기는 어렵다.

④ ‘청산’과 ‘산’ 모두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적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이다.

⑤ ‘청산’과 ‘산’ 모두 화자에게 안식을 가져다주는 공간이다.

18 [A]는 ‘살어리(a), 살어리랏다(a), 청산에(b), 살어리랏다(a)’의 문장 구조를 사용하고 있고, 〈보기〉 역시 ‘형님 온다(a), 형님 온다(a), 분고개로(b), 형님 온다(a)’의 문장 구조를 사용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A]는 3음보, 〈보기〉는 4음보의 율격을 반복하고 있다.

② [A]는 글자 수가 $3 \cdot 3 \cdot 2$ 자로 반복되고 있지만, 〈보기〉는 글자 수가 $4 \cdot 4$ 자로 반복되고 있다.

③ <보기>만 대화체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⑤ <보기>의 ‘시집살이 개집살이’는 언어유희에 해당하지만 [A]에서는 언어 유희를 찾을 수 없다.

보기 작품 이해하기 작자 미상, 「시집살이 노래」

주제: 고된 시집살이의 애환과 체념

감상: 남성 중심의 봉건적 가족 관계 속에서 여인들이 겪는 시집살이의 괴로움을 다양한 표현으로 노래한 작품이다. 부녀자들의 괴로움과 한스러움이 구구절절이 나타나 있으며, 시집살이의 고통을 체념하며 수용하는 화자의 태도가 해학적으로 드러나 있다.

19 ㉠은 이럭저럭 지낼 수 있는 낮과 달리 오는 사람도, 가는 사람도 없어 화자의 고독감이 극대화되는 시간이다. 화자는 밤에 비탄과 절망을 느끼고 있다. <보기>의 ㉡은 사랑하는 임이 부재하는 부정적 시간으로, ‘기나긴’이라는 시어에서 알 수 있듯이 화자는 고독감을 느끼고 있다.

20 ‘돌(㉠)’은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운명을 상징한다. 화자는 이러한 돌에 맞고선 그저 울기만 할 뿐이다. 즉, ‘돌’은 화자의 비애를 야기하는 매개체라고 할 수 있다(ㄱ). 한편 ‘설진 강수(㉡)’는 화자가 빛은 술이다. ‘내 엇디 흐리잇고’에서 드러나듯, 화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즉, ‘술’은 화자가 현실의 고통을 잠시나마 잊기 위해 빛은 것이라 할 수 있다(ㄷ).

21 <보기>는 (가)의 화자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농민이라는 관점에서 작품을 해석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잉 무든 장글란’은 이끼 묻은 쟁기를 뜻하는데, 이는 삶의 터전을 잃어 쟁기를 쓸 수 없게 된 화자의 처지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보기>의 해석을 뒷받침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이상향에서 살고자 하는 화자의 소망을 드러낸다.

③ 삶의 고통이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운명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누구를 탓할 수 없다는 화자의 체념적 태도를 드러낸다.

④ 바다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흔하고 소박한 음식들로, 화자가 추구하는 평화롭고 소박한 삶을 나타낸다.

⑤ 해석하는 관점에 따라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절박한 심정이나 삶의 괴로움을 잊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2 <보기>의 학생은 삶의 고뇌와 비애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를 담은 (가)가 고된 현실을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 마음속에서라도 이상향을 꿈꿔 보자는 의미를 전하는 것 같다고 하며 작품의 의미를 새롭게 구성하고 있다.

23 [B]에서 ‘그믐달’은 자연의 순리를 상징하는 소재이다. 그믐달은 자연의 섭리에 따라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사그라드는 존재이다. 화자는 ‘그믐달처럼 사위어지는 목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화자가 죽음을 자연의 순리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그믐달처럼 산다는 것은 자연에 동화되어 삶과 죽음도 자연의 순리에 따르려는 태도를 보여 주는 것이다.

24 산은 화자에게 ‘들꺠레(㉠)’와 ‘쑥대밭(㉡)’처럼 살라고 말한다. 산은 화자가 추구하는 이상향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산의 권고는 자연과 동화되어 살고자 하는 화자의 내면적 소망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들꺠레’와 ‘쑥대밭’은 자연과 동화된 삶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나머지는 모두 소박하고 평범한 삶을 의미한다.

(2) 시조 세 편

본문 확인 문제



본문 102쪽

- 01** ③ **02** ① **03** ④ **04** 대나무의 절개에 대해 예찬하고 있다. **05** ④ **06** 초장의 ‘밤’은 임이 부재하여 쓸쓸하고 긴 밤이고, 종장의 ‘밤’은 임과 함께하는 짧고 아쉬운 밤이다. **07** ① **08** ② **09** 대상을 희화화하여 해학적으로 표현하였기 때문이다.

01 (가)~(다) 모두 후렴구를 취하고 있지 않다. 후렴구는 시가 양식에서 일정 간격을 두고(주로 각 연의 끝부분) 반복되어 나타나는 말이나 소리를 뜻하는데, 한국 문학에서는 고려 가요와 민요 등에서 후렴구가 발달하였다.

오답 풀이 ① (가)와 (나)는 각 장이 4음보로 구성되어 전개된다. 반면 (다)는 중장이 길어져 4음조의 정형성이 파괴되었다.

②, ④ (가)와 (나)는 평시조로, ‘초장-중장-종장’의 3장 6구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다)는 사설시조로, 이 3장 구성에서 중장이 길어진 변형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⑤ (가)~(다)는 시조로, 고려 말에 발생하여 조선 시대에 향유된 문학 양식이다. 조선 후기에 서민 의식의 성장과 산문 정신으로 평시조가 산문화된 경향을 보였는데, (다)와 같은 작품이 이에 해당하며 이를 사설시조라고 한다.

02 연쇄법은 앞 구절의 끝 어구를 다음 구절의 앞 구절에 이어받아 의미나 이미지를 강조하는 수사법인데, (가)에서는 이러한 표현 방법이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② ‘프를소냐’와 같이 설의법을 사용하여 화자의 지조와 절개를 드러내고 있다.

③ 충신의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대나무를 의인화하여 형상화함으로써 화자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다.

④ 하얀 눈 속에서도 푸른빛을 잃지 않는 대나무의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의 지조와 절개를 강조하고 있다.

⑤ 한겨울에 내리는 ‘눈’은 시련과 고난을 상징하는데, 이런 계절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새 왕조에 협력할 것을 강요받는 상황임을 제시하고 있다.

03 ‘프를소냐’는 결코 절개를 굽히지 않겠다는 화자의 의지를 설의적 표현을 통해 드러낸 것이다. 조선의 신흥 세력들에게 저항하지 못하는 시대 상황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 풀이 ① ‘눈’은 고려 유신들을 억압하는 조선의 신흥 세력을 나타낸다.

②, ③ ‘디’는 절개를 상징하는 소재로 고려 왕조에 충성을 다하는 유신들을 상징한다. 이것이 ‘휘어진’ 것은 고려 유신들의 억압적 상황을 나타낸다.

⑤ ‘세한 고절’은 ‘한겨울의 추위에도 홀로 지키는 절개’라는 뜻으로, 화자의 굳은 절개에 대한 의지를 나타낸다.

04 (가)의 화자는 고려 왕조에 대한 지조를 끝까지 지키고자 하는 자신의 굳은 의지를 대나무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종장의 한겨울의 추위도 이겨 내는 높은 절개를 가진 존재는 너(대나무)뿐이라는 표현에서 화자가 대상에 대해 예찬적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5 (나)는 부재한 임에 대한 화자의 간절한 그리움과 사랑의 정서가 드러난 작품이다. 또한 임과 재회할 시간에 대한 화자의 기대도 담겨 있으므로, 임이 부재한 현실에 대해 개탄하는 태도나 감정은 (나)와 어울리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시간(밤)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 사물로 형상화하고 있다.

② 남녀 사이의 애정이라는 보편적인 정서를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다.

③ ‘서리서리’와 ‘구뽀구뽀’와 같이 우리말로 된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표현 효과를 높이고 있다.

⑤ 일 년 중 밤이 가장 긴 동지를 임이 부재한 시간으로 보고, 임과 함께하는 시간을 ‘춘풍’이라고 하여 봄바람처럼 따뜻하게 표현하고 있다. 겨울의 ‘동지’와 따뜻한 봄날의 ‘춘풍’이라는 계절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임과 함께 하는 시간을 길게 늘리고 싶은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06 초장의 ‘밤’은 임이 없어 외롭고 쓸쓸한 밤이다. 동짓날의 밤이기 때문에 실제로 기나긴 밤이지만 임의 부재로 더욱 길게만 느껴지는 밤이다. 그러나 종장에서 ‘밤’은 임과 함께하는 밤이므로 짧고 아쉽게만 느껴지는 밤이다. 그래서 화자는 동짓날에 잘라 둔 밤을 임과 함께한 밤에 펼치고자 하는 것이다.

07 (다)는 파리를 물고 기세등등하던 두꺼비가 건넌산의 백송골을 보고 놀라 두엄 아래로 자빠진 후에 자기 합리화를 하는 모습을 통해 부패한 양반의 횡포와 허장성세(虛張聲勢)를 풍자하고 있다.

08 (다)는 약자인 파리 앞에서는 강하면서 강자인 백송골 앞에서는 약한 두꺼비의 행태를 통해 당대 세태를 보여 주고 있는데, 종장에서는 화자를 바꾸어 두꺼비의 독백을 통해 자신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 허세를 부리는 모습을 직접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풍자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따라서 종장에서의 화자는 두꺼비이므로 두꺼비 자신이 스스로의 행동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하고서도 합리화하는 모습을 통해 풍자를 이끌어 내고 있는 것이다.

오답 풀이 ① 두꺼비는 파리에겐 강하고 백송골에게는 약한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③, ④ 자신의 실수를 감추기 위해 자화자찬(自畫自讚)하며 자기 합리화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⑤ 파리를 물고 있는 것으로 보아 ‘두터비’는 약자를 괴롭히는 권력자이고, ‘백송골’은 ‘두터비’보다 위에 있는 외세 또는 중앙 관리로 볼 수 있다.

09 (다)는 파리를 물고 허세를 부리던 두꺼비가 백송골을 보고 놀라 자빠지는 모습을 희화화하여 해학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웃음을 자아내고 있다.

학습 활동 짚고 가기

본문 103쪽

01 ⑤ **02** ④ **03** ㉠: 떨어질 잎 ㉡: 이른 바람

01 (가)에서는 누이의 죽음을 겪은 화자가 삶과 죽음의 문제를 나무와 낙엽에 빗대어 말하고 있다. 자연의 영원함이나 인간의 유한한 삶에 대한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02 (나)의 종장의 3음보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평시조의 특징이지만, (가)와 같은 10구체 향가에서 낙구의 감탄사는 음보 수가 고정되어 있지는 않다. 10구체 향가에서 시상을 전환하거나 화자의 정서를 집약하는 기능을 하는 감탄사가 시조의 종장의 첫음보의 기능과 유사하여 그 형식적 전통이 이어져 온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고려 시대나 조선 전기에 지어진 평시조 중 종장의 첫 머리에 감탄사가 들어가는 작품이 많기 때문에 10구체 향가를 시조의 형식적 근원으로 보고 있다.

03 (가)에서 화자는 죽은 누이를 가지에서 ‘떨어질 잎’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고, 누이가 젊은 나이에 죽었음을 잎을 떨어뜨릴 ‘이른 바람’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다.

034 정답과 해설

소단원 평가

본문 104~107쪽

01 ③ **02** ⑤ **03** 화자는 ‘시간’이라는 추상적 대상을 ‘한 허리’라고 표현하여 구체적인 사물로 형상화하고 있다. **04** ① **05** (가)와 (나)는 3장 6구 45자 내외의 형식을 유지하는 평시조이며, (다)는 엄격한 평시조의 형식에서 벗어나 중장이 길어진 형태의 사설시조이다. **06** ② **07** ④ **08** ② **09** ① **10** ① **11** ⑤ **12** ② **13** ① **14** ④ **15** ① **16** ① **17** ㉢: 지방의 탐관오리 ㉣: 힘없는 백성

01 (가)에서는 매서운 한겨울의 추위 속에서 내리는 ‘눈’을 통해 ‘대나무’의 절개와 지조를 강조하고 있고, (나)에서는 ‘동짓달’의 기나긴 밤을 잘라 사랑하는 임이 오는 날 밤에 이어 붙이겠다고 하며 임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고 있다. (다)에서는 쓸쓸하고 외로운 가을의 정서를 끌어내어 누이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인생에 대한 허무함을 표현하고 있다.

02 ‘가는 곳’은 죽음 뒤의 세계를 의미한다. 승려였던 작가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므로 한 부모에게서 태어나도 죽은 뒤에는 가는 곳을 모른다고 하여 죽음에서 느끼는 무상감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낙구에서 미타찰에서 누이와의 재회를 기대하고 있으므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 되도록 멀리하고 싶어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오답 풀이 ① ‘눈’은 ‘뒤’에게 시련이나 고난을 주는 대상으로, 조선 초의 신흥 세력을 가리키므로 화자의 비판적 인식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② ‘뒤’는 화자가 지향하는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소재이다.

③ ‘세한 고절’은 한겨울의 추위에도 홀로 지키는 절개를 뜻하는 말로, 이는 대나무의 속성과 관련되어 대나무가 상징하는 의미로 주로 사용된다. 따라서 고려 왕조에 대한 절개와 지조를 지키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④ ‘이른 바람’과 ‘떨어질’은 죽음을, ‘잎’은 누이를 의미하므로 누이의 이른 죽음으로 슬퍼하고 있는 화자의 상황을 알 수 있게 해 주는 시어이다.

03 추상적인 개념인 ‘시간’을 한 허리를 베어 낸다고 표현함으로써 구체적인 사물로 형상화하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의 한 허리를 베어 내어 임이 온 날 밤에 이불 아래에 넣고 편다고 하여 시간을 시각화한 발상이 독특하고 신선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04 ㉠은 누이가 죽은 일에 무상감을 느끼다가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져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하는 부분으로, 불교적 깨달음을 통해 개인적 슬픔을 극복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05 (가)와 (나)는 3장 6구 45자 내외로 평시조의 형식을 엄격히 지키고 있다. 그러나 (다)는 평시조에서 중장이 길어져 형식이 파괴적이다. 시조가 발전함에 따라 기존의 형식이 파괴되고 형식이 자유로운 사설시조가 등장한 것이다.

06 (가)는 화자의 굳은 절개와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단호하고 의지적인 어조가 어울린다. (나)는 동짓달 밤에 임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며, 임과의 재회의 시간을 애타게 기다리는 마음을 노래한 것으로 나직하고 간절한 어조가 어울린다.

07 ‘백송골’은 ‘두터비’를 두렵게 만드는 존재로서 ‘두터비’보다 더 권력이 높고 힘이 있는 존재인 중앙 관리 혹은 외세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두터비’는 ‘파리’를 물고 달아나는 데서 민중을 괴롭히는 탐관오리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② ‘파리’는 ‘두터비’에게 물려 괴롭힘을 당하는 데서 힘없는 피지배 계층인 민중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③ ‘백송골’의 등장에 놀라 자빠지는 ‘두터비’의 행동을 통해 해학성을 엿볼 수 있다.

⑤ 종장은 화자를 바꾸어 ‘두터비’의 독백을 그대로 옮겨 놓은 부분이다. ‘두터비’가 자신의 실수에 대해 자화자찬(自畫自讚)하며 자기 합리화하는 모습을 직접 제시함으로써 ‘두터비’에 대한 풍자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08 (다)는 파리를 물고 기세등등하던 두꺼비가 백송골을 보고 놀라서 두엄 아래로 자빠진 후에 자기 합리화하는 행동을 통해 당시 탐관오리의 횡포와 허장성세를 풍자하고 있다. 즉, 두꺼비의 행동을 희화화함으로써 웃음을 유발하여 풍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두터비’의 외모가 아닌 행동을 희화화하고 있다.

③ 백송골 앞에서 비굴해지는 ‘두터비’에 대한 화자의 동정과 연민의 태도는 드러나 있지 않다.

④ ‘두터비’의 이름에 대한 언급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⑤ ‘두터비’와 관련된 설화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09 (가)의 화자는 고려 왕조에 대한 자신의 굳은 지조와 절개를, 눈 속에서도 푸른빛을 잃지 않는 대나무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지조와 절개는 유교에서 중시하는 가치관이라는 점에서 (가)를 창작한 작가가 사대부 계층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임과 함께하고 싶은 간절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을 뿐, 유교적 이념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다)는 작자 미상의 사설시조로, 사설시조는 보통 조선 후기에 서민과 몰락한 양반 등이 주로 썼다.

오답 풀이 ② (가)는 ‘눈’과 같은 겨울의 이미지를 드러내는 시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나)는 ‘동지’와 같은 겨울의 이미지를 드러내는 시어와 ‘춘풍’과 같은 봄의 이미지를 드러내는 시어를 사용하고 있다. (다)에는 계절적 이미지를 드러내는 시어가 사용되지 않았다.

③ (가)의 화자는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대나무를 휘게 만드는 ‘눈’의 차가운 속성을 이용하여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으며, (나)의 화자는 ‘동짓달’이라는 밤이 긴 날의 속성을 활용하여 임이 부재하는 시간이라는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다)의 화자는 힘없는 파리는 괴롭히면서도 강자에게는 약한 모습을 보이는 두꺼비의 이중적 속성을 이용하여 현실의 부조리함을 풍자하고 있다.

④ (가)와 (나)는 4음보의 정형성을 유지하고 있는 평시조이지만, (다)는 4음보의 정형성이 파괴되면서 종장이 길어진 형태를 취한 사설시조이다.

⑤ (가)~(다)는 모두 초장, 중장, 종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종장의 첫 음보는 (가)는 ‘아마도’, (나)는 ‘어른 님’, (다)는 ‘모쳐라’로 모두 3음절이다.

10 (가)는 언제나 곧고, 눈 속에서도 푸른 ‘대나무’를 가리켜 ‘너’라고 표현함으로써 대나무에 대한 친근감을 드러내는 한편 그 지조와 절개를 예찬하고 있다.

11 ‘구귀구귀 퍼리라’는 초장에서 잘라 두었던 밤 시간을 임이 오신 날 밤에 이어 붙여 임과 함께 있는 시간을 늘리고 싶은 화자의

바람을 드러낸 것일 뿐, 그런 화자의 모습을 해학적으로 표현한 것은 아니다.

12 ①은 두꺼비의 독백으로 자신의 약점을 감추고자 하는 허장성세의 말이다. 자신의 실수에 대해 자화자찬하며 자기 합리화하는 모습을 직접적으로 제시하여 두꺼비를 희화화함으로써 풍자의 효과를 높이고 있을 뿐, 부조리한 현실을 직접적으로 비판한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다)의 초장과 중장에서는 작품 밖의 화자가 두꺼비의 모습을 관찰하고 있었지만, 종장에서는 화자가 두꺼비로 전환되고 있다.

③, ④, ⑤ ①은 백송골을 보고 놀라 도망치다가 두엄 위에 자빠진 두꺼비가, 자신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 자기 합리화하면서 자화자찬하는 부분이다. 이처럼 두꺼비의 허장성세를 희화화함으로써 풍자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13 눈(㉠)은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대나무(㉡)를 굽히는 존재로, 대나무에게 고통을 주는 존재라 할 수 있다. 또한 두꺼비(㉢)는 파리(㉣)를 입에 물고 괴롭히고 있다는 점에서, 파리에게 고통을 주는 존재라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눈(㉠)과 백송골(㉤)은 모두 흰색의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은 차가운 이미지를 지녔으며 대나무의 절개와 지조를 굽히고자 하는 존재라는 점에서, ㉤은 약자를 괴롭히는 두꺼비 위에 군림하는 존재라는 점에서 고결함, 순수함을 상징한다고 보기 어렵다.

③ 대나무(㉡)는 시련 속에서도 푸른빛을 잃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조와 절개를 굳게 지키는 존재로 볼 수 있지만, 파리(㉣)는 두꺼비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모습만 나타나고 있어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존재로 보기 어렵다.

④ (가)의 화자는 대나무(㉡)를 예찬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을 뿐, 그 인식이 전환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다)의 화자 역시 인식이 전환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백송골(㉤)은 두엄 위에 앉아 있던 두꺼비가 놀라 도망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을 뿐이다.

⑤ (나)의 두꺼비가 건너편 산 위에 떠 있는 백송골(㉤)을 보고 지레 겁을 먹고 도망치게 된 것일 뿐, 백송골(㉤)이 파리(㉣)를 구원해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14 (다)의 화자가 파리를 물고 기세등등하던 두꺼비가 백송골을 보고 놀라 두엄 아래로 자빠진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에서 시각적 이미지가 활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나)와 (라)에 공감각적 이미지는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가)는 눈의 흰색 이미지와 대나무의 푸른색 이미지가 대비되고 있으며, (나)는 동지로 대변되는 겨울의 이미지와 춘풍으로 대변되는 봄의 이미지가 대비되고 있다.

② (가)는 관습적으로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대나무의 속성을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으며, (라)는 9행에서 ‘아아’라는 감탄사를 활용하여 시상을 집약하고 있다.

③ (가)는 대나무를, (다)는 두꺼비를 의인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라)는 요절한 누이를 ‘떨어질 잎’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다.

⑤ (가), (나), (라)와 달리, (다)는 작품 밖 화자와 작품 안 화자가 나타나고 있다. 초장과 중장에서는 작품 밖 화자가, 종장에서는 작품 안 화자(두꺼비)가 말하고 있다.

15 (가)의 ‘눈’은 대나무의 절개와 지조를 꺾으려고 하는 존재로, 시련과 고난을 의미한다. (나)의 ‘동지(冬至)스들’은 사랑하는 임이 부재한 시간을 의미한다. 즉, (가)의 ‘눈’과 (나)의 ‘동지(冬至)스들’은 화자가 부정적으로 여기는 대상이라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가)의 '푸를소냐'는 대나무가 겨울에도 여전히 푸른빛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뜻으로, 대나무의 지조와 절개를 예찬한 것이다. 이를 통해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지조와 절개를 굽히지 않겠다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라)의 '어찌 갑니까'는 영탄적 어조로 일찍 세상을 떠난 누이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낸 것일 뿐 시련을 극복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낸 것은 아니다.

③ (나)의 '어론 님'은 화자가 간절하게 기다리는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다)의 '백송골'은 힘없는 약자를 괴롭히는 두꺼비 위에 군림하는 존재라는 점에서 화자가 간절하게 기다리는 존재로 보기 어렵다.

④ (나)의 '춘풍(春風)'은 화자가 임과 함께하고 싶은 시간으로, 임과 함께했던 짧았던 시간을 의미하지 않는다. (라)의 '어느 가을'은 누이가 요절하면서 이별하게 된 시기를 의미한다.

⑤ (라)의 '머뭇거리고'는 죽음에 대한 화자의 두려움을 표현한 것이며, (다)의 '젓바지거고'는 백송골을 보고 도망치다가 두엄 위에 넘어진 두꺼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일 뿐이다. 따라서 둘 다 미래의 상황에 대한 두려움의 표현으로 볼 수 없다.

16 A는 임이 부재한 동짓달의 어느 긴 밤 시간을 잘라 두었다가 임이 오신 날 밤에 이어 붙여 임과 오랫동안 함께 하고 싶은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B는 누이가 요절한 것에 대하여 슬퍼만 하지 않고, '미타찰'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A와 B 모두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 만나게 되기를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라)의 화자(B)는 시적 대상인 누이의 이른 죽음에 슬퍼하고 있다. 하지만 (나)의 화자(A)가 임과 이별한 상태임을 짐작할 수는 있지만, 갑작스럽게 이별하게 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③ A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지 않다. B 역시 종교적 힘으로 슬픔과 번뇌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이고는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지는 않다.

④ A는 임과 재회하기를, B는 누이와 미타찰에서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대상과 더 빨리 만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⑤ A와 B 모두 시적 대상과 이별한 상황에서 시적 대상과의 재회를 기대하고 있으므로, 이별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17 (다)의 두꺼비는 힘없는 존재인 파리를 입에 물고 괴롭히면서, 두엄 위에 기세등등하게 앉아 있다. 이로 보아, 두꺼비는 조선 후기에 백성들을 괴롭히던 지방의 탐관오리를, 파리는 탐관오리의 횡포에 힘들어하는 백성들이라고 할 수 있다.

(3) 홍계월전

본문 확인 문제



본문 109~117쪽

- 01 ⑤ 02 ③ 03 ② 04 ③ 05 ⑤ 06 ① 07 ②
 08 ① 09 ② 10 ① 11 (1) ○ (2) × (3) × 12 ⑤
 13 계월 모르게 군사를 거느려 황성을 치고 천자에게 항서를 받는다. 14 ⑤ 15 ③ 16 ② 17 ⑤ 18 ③ 19 ②
 20 ① 21 ⑤ 22 순식간에 한수 북쪽에 다다라서 23 ①
 24 ② 25 ③ 26 ⑤

01 계월이 여자임이 발각된 이후에도 천자는 계월의 벼슬을 거두지 않았으며 천자의 명에 따라 보국과 혼인한 후에도 계월은 벼슬을 놓지 않았다고 제시되어 있다.

오답 풀이 ① 앞부분 줄거리에서 이 글의 시대적 배경이 명나라 때임을 알 수 있다.

② 계월이 보국의 애첩인 영춘을 죽인 일로 갈등이 고조되나, 근본적으로는 보국의 가부장적 가치관으로 인해 보국과 계월이 갈등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③ 앞부분 줄거리에 영웅의 일대기 구성 중 '고귀한 혈통-비정상적 출생-비범한 능력-어릴 적 위기-조력자의 도움-성장 후의 위기'까지가 제시되어 있다.

④ 앞부분 줄거리에 계월이 남장을 하고 과거에 급제한 후 전쟁에 나가서 영웅적 활약을 보여 준 사실이 제시되어 있다.

02 여공은 계월의 행동을 비난하는 보국의 말을 듣고, 보국을 만류하며 보국의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깨우쳐 주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계월은 다섯 살 때 장사랑의 반란으로 부모와 헤어지게 된다.

② 계월은 여공에게 구출된 뒤 보국과 함께 곁 도사의 가르침을 받고 과거에 급제한다.

④ 계월은 전쟁에 다녀온 후 병이 깊어지는데, 천자가 보낸 어의의 진맥으로 인해 여자임이 탄로 나지만 천자는 이를 용서한다.

⑤ 계월은 보국과 혼인한 뒤 자신에게 예의를 지키지 않았다 하여 보국의 첩 영춘을 군법을 적용하여 죽인다.

03 앞부분 줄거리에서 계월이 다섯 살 때, 장사랑의 반란이 일어나 난리 속에서 부모와 헤어져 강에 던져지는 위기를 겪게 되는데, 이때 여공이라는 사람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지게 된다고 하였으므로 구출자의 역할을 하는 인물은 여공이다.

04 이 글에서 계월은 보국과 혼인하고 보국이 사랑하는 첩인 영춘의 행동을 문제 삼아 영춘을 죽인다. 이로 인해 보국은 계월에게 불만을 갖고, 둘은 갈등을 겪게 된다. 그러나 갈등의 근본적인 이유는 남편의 권위를 내세우는 보국의 가부장적 가치관과 남존여비 의식 때문이다.

05 [A]는 보국이 계월의 행동을 비난하는 말을 하자, 여공이 보국을 만류하는 부분이다. 여공은 계월의 뛰어난 능력을 인정하고 계월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인물이므로 계월에게 해가 될 후일을 도모할 것을 추측하기는 어려우며, 이 글에도 이러한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06 보국은 계월이 자신의 애첩인 영춘을 죽인 일로 분개하며 자신의 아버지에게 ㉠과 같이 말한다. 남자가 계집한테 무시를 당하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보국의 가부장적 가치관을 확인할 수 있다.

07 계월은 천자의 부름에 크게 놀라기는 하지만,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08 당시에는 규중에 있는 여성이 사회생활을 할 수 없었다. 천자는 계월이 보국의 아내로서 가정에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들어 계월을 전쟁터로 보내는 일을 주저한 것이다.

09 ㉠은 보국이 계월의 부하가 되어 전쟁터로 나가게 되는 상황으로, 억지로 끌려가는 심정임을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싫은 일을 억지로 마지못하여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 ‘울며 겨사 먹기’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뜻하지 않은 일을 공교롭게 당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③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 남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는 말이다.

④ 무식한 사람도 유식한 사람과 같이 오래 지내면 자연히 견문이 생긴다는 말이다.

⑤ 자기 흉이 더 크면서 도리어 남의 작은 흉을 본다는 말이다.

10 계월은 출전하기로 결정한 뒤 보국을 중군장으로 임명해 부하로 삼는다. 이와 같이 남성을 여성의 부하로 설정한 것은 여성의 능력이 남성보다 뛰어날 수 있음을 보여 주기 위한 의도라고 볼 수 있다.

11 (1) 장수와 군졸들은 계월의 추상같은 호령에 겁을 내어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었다.

(2) 중군장은 천자의 명령이 아니라 원수인 계월의 명령에 따라 적진에 나가 싸워 공을 세웠다.

(3) 적장 운경은 운평이 죽는 것을 보고 매우 화를 내어 말을 몰아 달려들어 보국과 싸웠으나 보국에게 죽임을 당하였다.

12 보국은 싸움터에 나가 용맹을 떨치며 적장을 물리치는 등 큰 활약을 한다. 하지만 적장 구덕지 등 상대편 군사들에게 포위를 당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은 갑자기 수많은 적병에 의해 포위를 당해 죽을 처지에 놓이게 되어 한탄하는 상황이다.

13 (바)에서 오와 초의 양 왕이 계월에게 나라가 망할 것이라며 눈물을 흘리자, 맹길이 계월 모르게 군사를 거느려 황성을 친 후 천자에게 항서를 받으면 된다는 계교를 말하고 있다.

14 전기성은 고전 소설에 자주 등장하는 요소로 현실적으로 일어나기 어려운 신기하고 괴이한 내용적인 특성을 말한다. 이 글에서도 계월이 한칼로 군사들을 소멸하고, 천기를 살피 천자의 위기를 알아내며, 하루 만에 황성에 도착한다는 내용 등이 전기적 특성에 해당한다.

15 ㉠은 보국이 계월에 대해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보국이 영춘의 일로 계월에게 불만을 가지고 그를 여자라는 이유로 무시했었는데, 계월이 막상 자신의 목숨을 구해 주자 그 동안의 자신의 태도에 부끄러움을 느꼈기 때문이다.

16 ㉠은 맹길의 계교에 따라 계월 몰래 오왕과 초왕이 맹길을 앞세워 천자가 있는 황성을 침략한 상황이다. 따라서 계월이 이를 미리 알았으나 대처하지 못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⑤ ㉠은 오와 초의 양 왕이 계월을 두려워하자 계월을 피하자는 맹길의 제안에 의해 이루어진 일이다.

③ ㉠은 천자가 피난 가고 백성들이 피해를 입는 일과 관련 있다.

④ ㉠으로 인해 계월의 승전에 안심하던 천자가 매우 놀라게 된다.

17 ㉠은 천자가 적군을 피해 도망가다가 뒤로는 맹길에게 쫓기고 앞으로는 큰 강에 가로막히게 된 매우 위급한 상황에서 한 말이다. 그런데 ⑤의 ‘삼고초려(三顧草廬)’는 유비가 제갈공명을 세 번

이나 찾아가 군사(軍師)로 초빙한 데서 유래한 말로, ‘인재를 찾기 위해 참을성 있게 노력함.’을 의미하므로 ㉠의 상황과는 거리가 멀다.

오답 풀이 ① ‘사면초가(四面楚歌)’는 사방에서 들리는 초나라의 노래라는 뜻으로,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외롭고 곤란한 지경에 빠진 형편을 이르는 말이다.

② ‘진퇴양난(進退兩難)’은 나아갈 수도 물러설 수도 없는 궁지에 빠짐을 이르는 말이다.

③ ‘풍전등화(風前燈火)’는 바람 앞의 등불이란 뜻으로, 사물이 오래 견디지 못하고 매우 위태로운 처지에 놓여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④ ‘누란지위(累卵之危)’는 알을 쌓아 놓은 듯한 위태로움이라는 뜻으로, 매우 아슬아슬한 위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18 오왕과 초왕은 계월을 피해 몰래 황성을 침략한다. 그러나 계월은 하늘의 천기를 살피다가 별의 모습을 통해 불길한 예감을 느끼고 홀로 황성으로 향한다.

19 ‘뜻밖에도 도적이 들어와 ~ 나는 갈 길을 몰라 이 구멍에 들어와 피난했’다는 여공의 말에서 도적이 갑자기 쳐들어와 어디로 가야할지 몰라 미처 피난을 가지 못해 수챗구멍에 숨었음을 알 수 있다.

20 ㉠은 앞뒤 사건과 연관 지어 볼 때,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황성에 들어닥친 적들로 인해 위협에 처한 천자의 상황과 하늘의 천기를 살피 보고 천자의 위기를 짐작하게 되는 계월의 상황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오답 풀이 ② 앞 사건은 맹길이 계월 모르게 황성을 쳐 천자를 사로잡는 내용이고, ㉠ 이후의 내용은 계월이 천기를 살피다가 천자의 위태함을 알게 된 사건이기 때문에 ㉠을 앞 사건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③ 서술자는 일관되게 작품 밖에서 전지적으로 모든 사건과 인물들의 심리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④ 이 글은 주인공인 계월의 일대기를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다른 이야기가 삽입되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⑤ 계월의 대범한 성격이나 영웅적 면모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21 이 글에는 계월이 천자의 부름을 받아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는 모습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당시의 유교적 충의 사상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계월이 신분 상승의 의지 때문에 임금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계월은 이부 시랑 홍무의 자녀로 태어나 고귀한 혈통을 지니고 있으며, 나라에서도 대원수의 계급을 가지고 있다.

22 순식간에 다른 장소에 다다른다는 내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로 고전 소설의 비현실성을 잘 보여 준다.

23 ㉠은 적들에게 포로가 되어 항복을 강요받는 천자의 상황을 나타낸 것으로, ‘제정신을 잃고 어리둥절한 모양을 이르는 말’인 ‘망연자실(茫然自失)’이 이 상황에 가장 어울린다.

오답 풀이 ② ‘와신상담(臥薪嘗膽)’은 불편한 쉼에 몸을 눕히고 쓸개를 맛본다는 뜻으로, 원수를 갚거나 마음먹은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온갖 어려움과

괴로움을 참고 견뎌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③ ‘전전반측(顛轉反側)’은 누워서 몸을 이리저리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함을 뜻하는 말이다.

④ ‘진퇴유곡(進退維谷)’은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고 꼼짝할 수 없는 궁지에 이르렀음을 의미하는 말이다. 천자와 신하가 어찌할 줄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는 하지만, 맹길의 급습에 너무 놀라서 한 행동일 뿐 적들에게 저항할 방법을 찾지 못한 반응으로는 볼 수 없다.

⑤ ‘오매불망(寤寐不忘)’은 자나 깨나 잊지 못함을 이르는 말이다.

24 이 글을 보면 계월의 말은 천자를 모시고 맹길이 댔던 말은 계월이 댔다고 했으므로 ②는 적절하지 않다.

25 뒷부분 줄거리를 보면, 계월은 영웅적 활약으로 두 차례에 걸친 국가의 위기를 극복해 내고, 높은 지위에 오른 후 행복한 삶을 살게 되므로 결말은 ‘위기의 극복과 행복한 결말’이 가장 적절하다.

26 뒷부분 줄거리를 보면, 보국이 계월의 능력이 자기보다 모든 면에서 뛰어남을 인정함으로써 둘의 갈등이 해소되었다고 하였다.

학습 활동 짚고 가기

본문 118쪽

01 ④ 02 수동적 03 ④

01 사 씨는 유교적 가치를 중시하고 가부장적 가치관을 옹호하는 인물이다. ‘암탉이 새벽에 울고 철부(哲婦)가 나라를 기울게 하는 것은 경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여성이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사 씨는 부부의 도를 지켜야 함을 말하고 있으나, 계월이 부부 사이의 의리를 중시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② 사 씨는 가부장적 가치관에 대해 옹호하는 인물이고, 계월은 가부장적 가치관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는 인물이다.

③ 계월의 능력이 뛰어난 것은 맞지만 이는 개인의 능력일 뿐이지 여성이기 때문에 남성보다 출중한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성별 구분 없이 능력에 따라 인정받는 것을 중시하고 있다.

⑤ 사 씨는 여성의 사회 활동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성의 힘으로 나라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다고 믿지는 않을 것이다.

02 사 씨는 유교적 가치관을 지닌 인물로 여성을 수동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있고, 계월은 뛰어난 능력을 지닌 인물로 주체적 의지에 따라 적극적으로 활약하여 국난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03 계월이 두 차례에 걸친 국가의 위기를 구하여 대사마 대장군의 작위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보국과도 행복한 가정생활을 꾸려 나간다고 하였으므로, 가정에서 벗어나 전장에 남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강고한 세계의 질서’는 당대의 사회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유교적 윤리관이 지배했던 남성 중심 사회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다.

② 뒷부분 줄거리에서 공을 세운 이후에 보국을 섬기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제시하고 있으므로 계월의 영웅적 활약을 ‘한바탕 꿈을 꾸는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지만, 여러 차례 위기에서 나라와 천자를 구하고 높은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사회와 가정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점에서 한바탕 꿈으로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038 정답과 해설

③ 보국이 계월을 무시할 때 계월은 남자가 되지 못한 것이 분해 눈물을 흘리며 세월을 보냈다고 서술하고 있으므로 ㉠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

⑤ 여자임을 거부하고 세상을 지배하는 남자로 살고 싶어 하는 모습으로 볼 때 계월은 여자로서의 자기 정체성이 뚜렷한 인물은 아니지만, 자기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보국을 꾸짖고 조롱하는 것으로 볼 때 성별의 구분 없이 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단원 평가

본문 119~125쪽

01 ① 02 ⑤ 03 계월은 가부장적 가치관을 부정적으로 보고 여성도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나, <보기>는 가부장적 가치관을 옹호하여 여성의 사회 활동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04 ① 05 ④ 06 집단 간의 갈등인 외적의 침입은 계월의 뛰어난 무예로 극복하였고, 계월과 보국의 갈등은 보국이 계월의 우월한 능력을 인정함으로써 극복하게 된다. 07 ④ 08 ② 09 ② 10 ①
11 ④ 12 ③ 13 ④ 14 ③ 15 여성인 계월이 남성보다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여, 위기에 처한 보국을 구해 내었다. 16 ⑤
17 ③ 18 ③ 19 ② 20 ④

01 보국과 여공의 대화, 천자와 계월의 대화, 보국에 대한 계월의 발화를 통해 인물 간의 관계와 갈등 양상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고전 소설의 경우 서술자가 개입하여 장면을 평가하는 편집자적 논평이 많이 나타나지만 이 글에서는 찾을 수 없다.

③ (다)에서 전쟁 상황을 요약적으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지만, 과거의 사건을 회상하고 있지는 않다.

④ 이 글에서 구체적인 배경 묘사가 나타나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⑤ 계월의 일생이 영웅의 일대기를 보여 주고 있지만, 그가 천상에서 적강한 인물은 아니다.

02 (나)에서 계월은 ‘신첩이 비록 어리석으나’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천자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 겸손하게 표현한 것이자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출전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계월은 천자의 은혜에 감사하며 출전의 뜻을 밝히고 있다.

03 <보기>의 사 씨는 유교적 가치를 중시하고 가부장적 가치관을 옹호하는 인물로, 여성을 남성을 섬기는 수동적인 존재로 인식하여 여성의 사회 활동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반면 이 글의 계월은 가부장적 가치관을 따르지 않는 인물로, 여성이지만 사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며 성별이 아닌 능력에 따라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04 (가)에는 계월이 영춘을 죽인 일로 보국이 불만을 품자 여공이 보국에게 생각을 고쳐먹을 것을 설득하는 대화가 제시되어 있다.

05 보국을 구하는 계월의 모습은 남편을 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의 부하를 구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여성 영웅이 남성인 부하를 구하는 모습은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질서를 비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계월이 천자의 명령에 충성을 다하는 모습은 유교적 이념인 충군 사상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② 여성이 주인공이며 영웅으로 등장하는 것은 당시 독자층이었던 사대부가 여성이나 평민의 취향을 고려한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③ 남성인 보국을 부리는 여성 계월의 모습은 이전의 영웅 소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조선 후기 여성 의식의 성장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⑤ 보국은 부인인 계월이 영춘을 죽인 것에 분개하고 있다. 처첩 제도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의 인권이 매우 낮았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남성에게 굴종을 강요하던 남존여비 사상이 여전히 남아 있음을 보여 준다.

06 이 글에서는 외적의 침입이라는 집단과 집단 간의 갈등과 계월과 보국과의 갈등인 개인과 개인 간의 갈등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국난이 일어나 계월이 전쟁에 출정하여 뛰어난 무예와 영웅적 활약으로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고, 가부장적 가치관을 지닌 보국이 자기보다 우월한 능력을 지닌 계월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둘 사이에 갈등이 발생한다. 그러나 계월이 모든 면에서 자신보다 우월함을 보국이 인정함으로써 갈등을 해소하게 된다.

07 영웅의 일대기적 구성에서 ‘성장 후 위기’ 단계에 해당하는 계월의 일생은 잦은 국난과 여자임이 탄로 나는 사건, 보국과의 갈등 등을 들 수 있으나 제시된 글에서는 잦은 국난과 보국과의 갈등이 나타나 있다. 그리고 ‘위기 극복과 행복한 결말’ 단계에 해당하는 계월의 일생은 (바)의 뒷부분 줄거리에 나타나 있는데 보국이 계월의 능력을 인정함으로써 보국과의 갈등을 해소하게 되고, 위기에 처한 나라를 여러 차례 구함으로써 높은 작위를 받고 대대손손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으로 결말을 맺고 있다.

08 (나)에서 천자는 맹길 등 적군을 피해 도망하다가 앞에는 큰 강, 뒤에는 적병이 있어 도망갈 길이 막힌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적에게 둘러싸인 상태나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고립 상태에 빠짐을 이르는 말’인 사면초가(四面楚歌)가 가장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유유자적(悠悠自適)’은 여유가 있어 한가롭고 걱정이 없는 모양을 뜻한다.

③ ‘수주대토(守株待兔)’는 어떤 착각에 빠져 되지도 않을 일을 공연히 고집하는 어리석음을 비유하는 말이다.

④ ‘적수공권(赤手空拳)’은 가진 것이 아무 것도 없음을 뜻한다.

⑤ ‘감탄고토(甘香苦吐)’는 사리에 옳고 그름을 돌보지 않고, 자기 비위에 맞으면 취하고 싫으면 버림을 뜻한다.

09 [A]는 멀리 떨어져 있는 변방에서 어떻게 자기를 구하러 올 수 있었는지를 묻는 천자의 말에 대한 대답으로 계월이 천자를 구하러 오기까지의 경위를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10 전기성은 고전 소설에서 흔히 나타나는 특징으로 비현실적인 요소를 뜻한다. 이 글에서 계월이 불길한 느낌에 마음이 어지러워 천기를 살피는 장면이나 하룻밤 사이에 먼 거리인 황성에 다다른 사건, 순식간에 한수 북쪽으로 이동하는 사건 등은 현실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비현실적인 요소에 해당한다.

11 (나)에서 계월은 규중에 홀로 있으며 매일 시녀를 데리고 장기와 바둑으로 세월을 보내다, 사관이와 천자가 부른다는 명령을 전하자 크게 놀라는 모습을 보인다. 이처럼 계월이 크게 놀란 것은, 천자가 자신을 찾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보국은 계월이 영춘을 죽였다는 말을 듣고 분함을 느끼며 부모를 찾아가 이를 알고 있다.

② (라)에서 ‘보국이 원수 보기를 부끄러워하니 원수가 보국을 꾸짖어 말했다.’라고 서술한 것에서 알 수 있다.

③ (나)에서 천자가 계월에게 “그런데 짐이 덕이 없어 지금 오와 초 두 나라가 반란을 일으켜 …… 경은 스스로 마땅히 일을 잘 처리하여 사직을 보호하도록 하라.”라고 말한 데에서 알 수 있다.

⑤ (다)에서 보국이 여공에게 “계월이 또 소자를 중군장으로 부리려 하오니 이런 일이 어디에 있사옵니까?”라고 말한 데에서 알 수 있다.

12 [A]에서 여공은 보국이 천자가 중매해 준 계월을 싫어한다면 장차 보국에게 해로움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부디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다. 반면에 [B]에서 여공은 개인사보다 나라일이 더 중요함을 강조하며 계월의 명령을 따를 것을 설득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A]에서는 영춘이 거만하게 굴다가 죽임을 당했다고 말하고 있는 반면에 [B]에서는 보국이 계월을 팔시하다가 지금과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② [A]는 제삼자인 영춘에게서 문제의 원인을 찾고 있는 반면에 [B]는 당사자인 보국에게서 문제의 원인을 찾고 있다.

④ [A]에서는 계월이 천자가 중매한 여자임을 이야기하며 현재의 상황을 수용할 것을 권하고 있지만 [B]에서는 개인사보다 나라일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보국이 태도를 바꿀 것을 권하고 있다. 이를 천자에 대한 충성심과 의무를 강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⑤ [A]에서 여공은 계월이 잘못이 있어도 아무도 계월에게 잘못을 꾸짖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계월의 권위를 내세워 보국을 설득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B]에서 여공은 나라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을 뿐, 계월의 처지를 강조하고 있지 않다.

13 ㉠에서 보국이 하늘을 바라보며 탄식한 것은, 적장이 달려들고 적병이 사방을 에워싸서 자신이 죽을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지, 자신이 지난날 계월을 업신여기고 팔시했던 일을 후회하였기 때문은 아니다.

14 (다)에서 계월이 “만일 명령을 거역하는 자가 있다면 군법으로 시행할 것이다.”라고 엄중하게 말한 것은, 출정을 앞두고 군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함이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자신을 무시하는 군사들을 응징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15 (라)에서 계월은 적들에 에워싸여 위기에 처한 보국을 구해 낸다. 이러한 계월의 모습은 남성보다 뛰어난 여성의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기존의 수동적이고 순종적인 여성상이 아닌, 뛰어난 능력을 바탕으로 위기를 극복해 내는 능동적이고 의지적인 여성상을 그려 낸 것이라 할 수 있다.

16 ‘망운지정(望雲之情)’이란 자식이 객지에서 고향에 계신 어버이를 생각하는 마음을 뜻하는 말로, 적들을 피해 수컷구멍에 숨어 있던 시아버지를 발견하고 이에 통곡하는 계월의 심정을 드러내기에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군계일학(群鷄一鶴)’은 닭의 무리 가운데서 한 마리의 학이란 뜻으로, 많은 사람 가운데서 뛰어난 인물을 이르는 말이다.

② ‘사면초가(四面楚歌)’는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외롭고 곤란한 지경에 빠진 형편을 이르는 말이다.

③ ‘속수무책(束手無策)’은 손을 묶은 것처럼 어찌할 도리가 없어 꼼짝 못함을 이르는 말이다.

④ ‘훈비백산(魂飛魄散)’은 훈백이 어지러이 흩어진다는 뜻으로, 몹시 놀라 났을 앓음을 이르는 말이다.

17 <보기>를 통해 조선 후기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성에게 굴종을 강요당하던 여성의 의식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홍계월전」이 당대 여성 독자들에게 인기를 얻었던 이유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여성 주인공 계월의 활약으로 국난을 극복해 내는 모습에 당대 여성 독자들이 동패함을 느꼈기에 이 소설이 인기를 끌었던 것이다.

18 ㉔은 적을 피해 수컷구멍에 숨어 있던 여공을 계월이 우연히 발견한 사건이다. 이는 계월이 천자의 행방을 찾는 계기가 되는 사건일 뿐, 반전을 통해 가족 간의 갈등이 해소될 것을 암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오답 풀이 ① ‘물 끓듯 하다’는 ‘여러 사람이 몹시 술렁거리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관용 표현이다. ㉔은 이 표현을 활용하여 적의 급습으로 혼란스러운 황성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② 만 리 변방에 있던 계월이 하룻밤 사이에 황성에 다다른 것은, 현실에서는 일어나기 어려운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이 소설은 이러한 비현실적 사건을 통해 계월의 비범함을 부각하고 있다.

④ ㉔은 적병의 수와 위세를 과장하여 위기에 빠진 천자의 상황을 부각함으로써,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⑤ ㉔은 승전을 하고 궁으로 돌아가고 있는 계월 일행의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위세를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9 [A]는 천자가 “원수는 만 리 변방에서 어찌 알고 와 짐을 구했는고?”라고 질문한 것에 계월이 답한 내용이다. [A]에서 계월은 자신이 황성에 오게 되고, 천자를 찾게 된 계기 등을 요약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20 <보기>의 인물은 “암탉이 새벽에 울고 철부(哲婦)가 나라를 기울게 하는 것은 경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라고 말하면서 가부장적 가치관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자신의 능력으로 국난을 극복해 낸 계월의 모습과 상반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계월은 이 인물의 말에 ④와 같이 답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대단원 평가

본문 126~135쪽

01 ⑤ **02** ② **03** ④ **04** 화자가 부정적 현실에서 벗어나 지향하고자 하는 이상적인 세계를 나타낸다. **05** ⑤ **06** ④ **07** ⑤ **08** 추상적 관념을 구체화된 대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09** ④ **10** ⑤ **11** ① **12** ③ **13** ② **14** ① **15** 여성의 비범한 능력을 형상화함으로써 여성의 주체성에 대한 자각을 보여 주었다. **16** ④ **17** ④ **18** ② **19** ④ **20** ② **21** ② **22** ⑤ **23** ① **24** ② **25** 추상적인 개념을 형태가 있는 구체적인 사물처럼 형상화하였다. **26** ② **27** ④ **28** ③ **29** 보국이 가부장적 가치관과 남존여비 의식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30** ⑤ **31** ② **32** ⑤ **33** ② **34** 여성인 계월이 비범한 능력을 발휘하여 적을 물리치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였다.

040 정답과 해설

01 (가)는 8연의 ‘내 었디 흐리잇고.’를 통해 설의적 표현을 확인할 수 있으나, (나)에서는 설의적 표현이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가)는 각 연이 독립적인 내용으로 구성되는 분장제, 분연체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② (나)는 3장 6구의 전형적인 시조 형식에서 중장이 길어진 사설시조이다.

③ (가)에는 각 연의 끝에 후렴구가 배치되어 있으나, (나)는 후렴구가 없는 단형 시조이다.

④ (나)에서는 ‘두터비, 파리, 백송골’을 의인화하여 지배 계층의 수탈을 비판하고 있지만, (가)에는 우의적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다.

02 (가)는 고려 시대 평민들이 내우외환의 어려운 현실에서 느끼는 진솔하고 솔직한 삶의 애환을 그리고 있는 고려 가요이다. 삶의 비애와 고독,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동경과 지향 등이 진솔하게 그려져 있다는 점에서 독자들에게 많은 공감을 얻었을 것이다.

03 ‘돌’에 ‘마자서 우니노라.’는 피할 수 없는 운명적인 고난에 의한 삶의 비애를 나타낸 것이다. 화자가 떠도는 일에 지쳤음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자고 니러 우니로라.’는 화자가 현재 겪는 슬픔과 시름을 가리키는 말로, 난리로 삶의 터전을 잃고 떠도는 삶의 비애와 고뇌를 나타낸다.

② ‘가던 새’는 ‘갈던 발이랑’이란 뜻으로, 예전에 경작하며 살던 화자의 삶을 짐작할 수 있다.

③ ‘장글’은 쟁기를 가리키는 말로, 화자가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는 점을 나타낸다.

⑤ ‘난리’는 화자를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하는 것으로, ‘바룰’로 가고자 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

04 ㉔은 화자가 괴로운 현실에서 벗어나 다다르고자 하는 이상향을 나타낸다. <보기>의 ㉔도 화자가 부정적 현실을 이겨 내고 오기를 바라는 화합과 평화의 이상적인 세계를 나타낸다.

<서술형 평가 기준>

평가 기준	평가
화자가 부정적 현실에서 벗어나 이상적 세계를 추구하고자 한다는 내용을 <조건>에 맞게 적절하게 서술하였다.	상
화자가 부정적 현실에서 벗어나 이상적 세계를 추구하고자 한다는 내용을 적절하게 서술하였으나 <조건>에 맞게 서술하지 못하였다.	중
의미는 맞게 제시하였으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내용도 미흡하게 서술하였다.	하

보기 작품 이해하기 박두진, 「해」

주제: 화합과 평화의 세계에 대한 소망

감상: 역사적 격변기인 광복 직후의 상황에서 모든 생명체들이 평화롭게 화합하며 공존하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다. 밝음과 어둠의 상징적 의미를 지닌 시어를 대립하여 화자가 소망하는 이상적인 세계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05 ‘에헬질 번 하괘라’는 ‘두터비’가 ‘백송골’ 때문에 놀라 자빠진 일에 대해 변명을 하는 것이지, 반성의 태도를 나타낸 것이 아니다.

- 오답 풀이** ① ‘두터비’는 힘없는 파리를 괴롭히는 존재라는 점에서 화자에게 비판의 대상이 된다.
- ② ‘파리’는 ‘두터비’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존재로서 약한 민중을 나타낸다.
- ③ ‘백송골’은 ‘두터비’를 섬뜩하게 만드는 존재로서 ‘두터비’보다 더 힘이 강한 중앙 관리나 외세를 나타낸다.
- ④ ‘두터비’가 두엄 아래 자빠진 것은 ‘두터비’의 우스꽝스러운 행동으로 대상을 희화화하는 요소라 할 수 있다.

06 (가)에서는 ‘눈’, (나)에서는 ‘동지스들’ 등을 활용하여 계절적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④는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가)는 고려 말이라는 시대적 배경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 ② (나)는 현재 함께하지 못하는 임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노래하고 있다.
- ③ (가)에는 대나무에 대한 예찬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⑤ (가)는 ‘눈’과 ‘디’, (나)는 초장의 ‘(임이 부재한) 밤’과 종장의 ‘(임과 함께 하는) 밤’의 대립적인 성격을 바탕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07 ‘너뿐인가’는 화자의 절개와 지조에 대한 다짐과 의지와 관련 있는 것으로, 화자의 반성적 태도는 나타나지 않는다.

- 오답 풀이** ① ‘눈 마주’는 대나무가 억압당하는 상황을 나타낸다.
- ② ‘디’는 화자가 추구하는 올바른 태도와 관련 있는 소재이다.
- ③ ‘뉘라셔’는 눈 맞아 휘어진 대나무를 굽었다고 하는 존재이다.
- ④ ‘프를소냐’는 눈 속에서도 푸름을 유지하는 것이므로, 화자가 추구하는 절개와 지조의 자세와 연관되어 있다.

08 초장의 ‘밤’은 임과 떨어져 있는 때로, 너무 길기 때문에 화자가 베어 내고 싶은 시간이다. 종장의 ‘밤’은 임과 함께 지낼 때로, 짧고 아쉬운 시간이다. 이렇게 화자는 관념적인 속성의 밤을 베어 내고 붙일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으로 표현하고 있다.

〈서술형 평가 기준〉

평가 기준	평가
추상적 속성과 구체적 대상을 〈조건〉에 맞게 정확하게 서술하였다.	상
추상적 속성과 구체적 대상에 대한 내용 중 한 가지만 서술하였다.	중
추상적 속성과 구체적 대상에 대한 언급을 하였으나 미흡하게 제시하였고 〈조건〉에 맞게 서술하지 못하였다.	하

09 이 글에서는 전지적 작가가 등장해 인물과 사건을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으나, 서술자가 인물과 사건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밝히는 편집자적 논평은 드러나지 않는다.

- 오답 풀이** ① 여공과 천자, 신하들은 계월이 여성이지만 탁월한 능력을 가진 인물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 ② 여공과 보국의 대화에서 여공은 근거를 들어 보국을 설득하고, 천자와 신하의 대화에서 신하는 계월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들어 천자를 설득한다.
- ③ ‘경’, ‘신첩’ 등에서 등장인물 간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다. 또한 계월이 천자 앞에 엎드려 여를 다하는 것에서 신분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 ⑤ ‘이때’를 통해 천자와 신하들이 대화를 나누는 상황과 계월이 집에 홀로 있는 상황이 병치되어 있다.

10 (다)에서 계월은 규중에서 홀로 있다가 사관이 천자께서 부르신다는 명령을 전하는 것을 듣고 여자 옷에서 조복으로 갈아입고

임금에게 간다. 따라서 조복으로 갈아입는 것은 사회적 신분으로 변모함을 나타낸다.

11 [A]는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천자가 계월을 불러 대처하고 싶으나 계월이 혼인 후 규중에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 주저하고 있음이 나타나는 부분이다. 따라서 [A]에 나타난 말하기 방식은 인물이 처한 상황을 들어 결정을 주저하고 있음이 적절하다.

12 신하들은 나라에 중대한 위기가 오자 계월을 전장에 보내야만 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계월의 탁월한 능력을 인정하고 나라일에 기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 오답 풀이** ① 여공은 자신의 아들인 보국보다 계월의 능력이 뛰어남을 인정하고 보국을 설득하고 있다.
- ② 애첩인 영춘을 죽인 계월의 행동에 대하여 여공은 보국에게 이해하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보국은 계집에게 팔시를 당하는 것이 남성으로서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는 보국이 기존의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가치관에 갇혀 있는 인물임을 드러내는 부분이다.
- ④ 계월은 규중에 홀로 있으면서 소일거리로 세월을 보내고 있다. 이는 높은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안에서는 한 남성의 아내로서의 삶을 살고 있음을 보여 준다.
- ⑤ 천자의 뜻에 따라 전장에 나가 나라를 구하겠다는 계월의 말에서 임금에게 충성한다는 충군의 유교적 가치를 엿볼 수 있다.

13 계월은 천기를 살펴보고 천자의 위기를 예감한다. 그리고 홀로 황성으로 향하고 중군장으로 하여금 진지를 지키도록 명령한다. 따라서 중군장과 함께 황성으로 향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여공은 천자가 천태령으로 갔는데 그 뒤를 도적이 따라가 천자가 위급한 상황에 처했음을 계월에게 전해 주고 있다.
- ③ 천자는 계월에 의해 구출된 후 은혜를 무엇으로 갚겠느냐며 고마워한다.
- ④ 계월은 여공의 말을 듣고 천자를 구출하기 위해 천태령을 넘는다.
- ⑤ 천자와 신하들은 적병에게 사로잡혀 넋을 잃고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었다.

14 (가)에서 계월이 중군장에게 ‘천기를 보니 천자의 위태함이 경각에 있도다.’라고 말하는 데서 계월이 황성으로 오게 되는 계기를 알 수 있다.

15 이 글은 여성이 주인공으로 설정되었고, 남편을 부하로 두는 등 여성의 주체적인 면모를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 독자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 수 있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서술형 평가 기준〉

평가 기준	평가
여성 주인공의 활약상이 갖는 의미를 적절하게 서술하였다.	상
여성 주인공이 활약한 점만을 서술하였다.	중
주인공의 영웅적인 면에만 주목하여 여성 주인공의 활약의 의미를 제대로 서술하지 못하였다.	하

16 전쟁에 나가 나라를 구하는 여성 영웅의 등장과 활약은 여성 독자들을 고려한 것이지, 실제 여성들도 전쟁에 빈번하게 참여했기 때문이라 보기는 어렵다.

오답 풀이 ① 계월이 천자를 구출하고자 애쓰는 장면에서 임금에 대한 충군 사상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여성 영웅으로서 계월이 남성인 적군의 장군을 물리치는 모습은 당시 독자들에게 통쾌함을 주었을 것이다.

③ 여성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것은 소설의 독자층이 여성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취향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당시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로, 보국과 같은 남존여비의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여성인 계월이 남성인 보국보다 뛰어나다는 설정은 작품이 창작된 당시에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17 (가)의 화자는 속세와 대비되는 공간이자 이상향을 상징하는 '청산'과 '바다'에서 살고자 하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으며, (나)의 화자는 속세에서 벗어난 초월적 공간인 '산'을 동경하며 자연에 동화되어 순리에 따르는 삶을 추구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와 (나)에는 모두 계절의 변화가 나타나 있지 않다.

② (가)와 (나)의 화자가 동경하는 자연을 순수성을 간직한 이상향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이면에 현실 세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담겨 있다고 볼 수는 있다. 그러나 (가)와 (나) 모두 순수성을 간직한 자연과 현실의 부조리함을 대비하고 있지는 않다.

③ (가)와 (나) 모두 화자가 과거를 회상하며 그리워하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⑤ (나)의 화자가 죽음을 자연의 섭리로 생각하고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볼 수는 있지만, (가)의 화자가 자연의 섭리에 대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희망을 드러낸 부분은 찾을 수 없다.

18 (가)의 '떨워'랑 '드래'는 산에서 구할 수 있는 소박한 음식들이다. 화자가 이를 먹고 청산에 살겠다고 한 것은, 소박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화자의 바람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나)에서 산이 화자에게 씨를 뿌리고 밭을 갈며, 아들 딸 낳고 호박을 심고 살아가라고 한다고 표현한 것은, 소박하고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자 한 화자의 바람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의 '살어리랏다'는 화자가 청산에서 살고 싶은 마음을 드러낸 것이라는 점에서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였다고 볼 수 있지만, (나)의 '살아라 한다'는 자연에 동화되어 살고자 하는 화자의 내면적 소망을 드러낸 것으로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③ (가)의 '자고 니러 우니로라'는 울고 있는 새보다 더 시름이 많은 화자 자신도 울고 있다는 뜻으로, 삶의 비애와 슬픔이 표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나)의 '그믐달처럼 사위어지는 목숨'은 죽음을 자연의 순리로 받아들이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낸 것으로 삶의 비애와 슬픔을 표현한 것이 아니다.

④ (가)의 '히금을 허거를 드로라'는 삶의 괴로움을 잊고 싶은 화자의 심정을 드러낸 것이다. 사슴이 장대에 올라 연주하는 해금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절박한 상황에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나)의 '산이 날 에워싸고'는 순수한 자연에 동화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낸 것으로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절박한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⑤ (가)의 '물 아래 가던 새 본다'는 속세에 대한 미련을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나)의 '어느 짧은 산자락에 집을 모아'는 화자가 추구하는 소박한 삶의 모습을 드러낸 것일 뿐, 방향을 끝내고 정착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낸 것은 아니다.

19 [A]에서 화자는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운명에 체념한 채 울기만 할 뿐, 자신의 운명을 개척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반면에

[B]에서 화자는 죽음을 자연의 순리로 받아들이면서 그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 즉, 자신의 운명을 능동적이고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20 (가)의 후렴구와 <보기>의 후렴구는 모두 각 연을 나누고, 노래의 운율을 형성하는 역할만 하고 있을 뿐, 작품의 주제를 집약적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

21 이 시의 화자는 '산이 살아라 한다.'와 같은 구조의 문장을 반복함으로써 운율을 형성하는 한편, 자연과 동화되어 살기를 바라는 화자의 심정을 강조하고 있다.

22 화자가 현실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를 빛낸 것이라는 점에서, ㉠는 괴로움을 잊기 위한 매개라고 할 수 있다. 즉, ㉠의 관점에서나 ㉡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가 부조리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를 다지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

23 (가)는 눈의 흰색 이미지와 대나무의 푸른색 이미지의 대비를 통해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지조와 절개를 지키려는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동지의 겨울 이미지와 춘풍의 봄 이미지가 대비되고 있을 뿐, 색채 대비는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② (가)는 대나무를 의인화하여 절개와 지조를 지키려는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나)는 두꺼비를 의인화하여,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하며, 허장성세를 부리는 탐관오리의 이중성을 풍자하고 있다.

③ (가)에는 '눈'과 같은 겨울의 이미지를 드러내는 시어가 나타나 있으며, (라)에는 '어느 가을'과 같이 계절을 드러내는 시어가 나타나 있다.

④ 음성 상징어는 소리와 의미의 관계가 필연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단어로, 의성어와 의태어 등이 이에 속한다. (나)에서는 '서리서리', '구뽀구뽀', (다)에서는 '풀덕' 등 의태어를 사용하여 생동감을 주고 있다.

⑤ (나)의 화자는 이별한 임을 그리워하고 있으며, (라)의 화자는 죽은 누이를 안타깝워하며 그리워하고 있다. 즉, (나)와 (라)의 화자 모두 현재 부재한 대상을 그리워하고 있다.

24 <보기 1>을 고려할 때 (가)의 '휘어진 닻'은 조선 초의 신흥 세력이 고려의 유신에게 가하는 회유와 압박 때문에 고통받던 화자가 자신의 처지를 눈에 휘어진 대나무에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보기 2>의 '눈물'은 멸망한 고려 왕조를 바라보는 화자의 안타까움과 슬픔을 표현한 것이다.

오답 풀이 ① (가)의 '눈'은 대나무에게 시련을 안겨 주는 존재라는 점에서 조선 초의 신흥 세력들이라 할 수 있다. 즉, 이러한 신흥 세력들 때문에 고려 왕조가 멸망하게 되면서, '만월대'에 '추초'가 가득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③ (가)의 '푸를소냐'는 어떠한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푸른빛을 잃지 않는 대나무처럼 자신도 지조와 절개를 굽히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보기 2>의 '목적에 부쳐시니'는 '목동의 피리에 담겨 있으니(오백 년 왕조의 업적이 이젠 목동의 피리 소리에도 남았음)'란 뜻이다. 이는 청각적 심상을 통해 애상감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멸망한 왕조의 퇴락한 유산을 바라보는 화자의 쓸쓸한 심정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④ <보기 1>을 고려할 때, (가)의 '새한 고절(추운 겨울에도 홀로 푸르른 대나무)'은 고려 왕조에 대한 지조와 절개를 지키려고 하는 화자 자신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으며, (나)의 '오백 년 왕업'은 고려 왕조의 유구한 역사를 가리킨다.

⑤ (가)의 ‘너’는 대나무로, 화자가 자신과 동일시하는 대상이라 할 수 있다. 반면 <보기 2>의 ‘객’은 화자가 자신을 객관화한 대상이라 할 수 있다.

보기 2 작품 이해하기 원천석, 「흥망이 유수하니 ~」

주제: 망국의 한과 회고의 정

감상: 이 시조는 풀만 무성하게 자란 고려의 궁궐터를 돌아보며 고려 왕조에 대한 회고와 무상감을 노래한 작품이다.

25 ㉠은 동짓달 밤이라는 추상적인 시간 개념을 칼로 잘라 낼 수 있는 사물처럼 표현하고 있으며, <보기>는 ‘봄’을 부칠 수 있는 사물로, ‘해’를 옥루에 올려놓을 수 있는 사물로 구체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보기 작품 이해하기 정철, 「사미인곡」

주제: 연군지정(戀君之情)

감상: 뛰어난 우리말 구사와 세련된 표현으로 속편인 ‘속미인곡’과 함께 가사 문학의 최고 걸작으로 꼽히는 작품이다. 사계절의 변화에 따라 임에 대한 한결같은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다.

26 (다)는 백송골을 보고 놀라 도망치다가 두엄 위에 자빠졌는데도, 자신이 날래서 어혈이 지지 않았다며 자기 합리화하고 있는 두꺼비를 희화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횡포를 부리는 탐관오리의 부조리함을 날카롭게 풍자하고 있다.

27 미타찰은 아미타불이 살고 있는 극락세계로, 죽은 누이와 화자가 재회하게 될 세계이다. 화자는 이곳에서 죽은 누이를 다시 만나게 되기를 기원하면서, 종교적 신념으로 슬픔을 극복하고자 한다. 따라서 ㉠을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는 화자의 심정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8 여공은 계월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보국에게 나랏일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계월의 명령을 받아들이라고 촉구하고 있을 뿐, 보국이 중군장이 된 것을 다행으로 여기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여공이 보국에게 “영춘은 네 첩이다. 자기가 거만하다가 죽임을 당했으니 누구를 한하겠느냐?”라고 말한 것에서, 여공이 계월이 영춘을 죽인 사건의 원인을 영춘에게서 찾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천자가 “평국이 전날에는 세상에 나왔으므로 불렀지만 지금은 규중에 있는 여자니 차마 어찌 불려서 전장에 보내겠는가?”라고 한 것에서 계월을 전장에 보내는 것을 두고 고민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④ 계월이 군사들에게 “만일 명령을 거역하는 자가 있다면 군법으로 시행할 것이다.”라고 분부하자 보국은 겁을 내면서 중군장 처소로 돌아갔다.

⑤ 계월이 영춘을 죽인 일 때문에 보국이 자신을 찾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누가 보국을 남자라 하겠는가? 여자에게도 비할 수 없구나.”라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다.

29 계월이 영춘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 보국이 분함을 이기지 못했던 까닭은, 그것이 곧 계월이 남편의 권위를 무시한 결과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보국의 생각에는, 당시에 팽배하였던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가치관과 남존여비 의식이 반영되어 있다.

<서술형 평가 기준>

평가 기준	평가
보국이 지닌 가부장적이고 남존여비적인 의식을 바르게 서술하였다.	상
보국이 지닌 가부장적이고 남존여비적인 의식 중 한 가지만 서술하였다.	중
보국이 지닌 가부장적이고 남존여비적인 의식 모두 제대로 서술하지 못하였다.	하

30 “그러나 예로써 너를 섬기고 있으니 어찌 마음 씀을 그르다고 하겠느냐?”라는 여공의 말은, 계월이 가정에서의 질서에 따라 남편인 보국을 섬기고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여공이 계월을 가리켜 기개가 당당하다고 한 것은 계월의 능력이 보국보다 뛰어남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31 향서를 올리라는 맹길의 말을 전해 들은 천자는 혼비백산한 채 향서를 쓰러다가 통곡하며, 사직을 지키지 못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였다. 이로 볼 때 감독이 천자에게 맹길의 말에 분개하는 모습을 보일 것을 요구하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32 [A]에서는 과장법을 활용하여 계월이 물리친 적졸이 흘린 피가 내가 되어 흐른다고 표현하고, 비유법을 활용하여 적졸의 주검이 쌓인 모습을 산에 빗대어 표현함으로써, 계월의 비범한 능력을 부각하고 있다.

33 밤하늘에 자미성이 자리를 떠났음을 확인한 계월은 천자에게 큰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하고는, 급히 황성으로 향한다. 이로 볼 때, ㉠은 천자가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암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4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은 수동적이고 순종적인 모습만을 강요당하였지만, 조선 후기에 이르러 이러한 의식은 점차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의식의 변화는 여성인 계월이 비범한 능력을 발휘하여 남성들도 하지 못했던 적을 물리쳐 나라를 위기에서 구원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술형 평가 기준>

평가 기준	평가
계월이 비범한 능력을 지녔으며 이를 바탕으로 나라를 구했음을 서술하였다.	상
계월이 지닌 능력이나 계월이 나라를 구했다는 내용 중 한 가지만 서술하였다.	중
계월이 지닌 능력이나 계월이 나라를 구했다는 내용 모두 제대로 서술하지 못하였다.	하

9. 우리 말과 글의 역사 위에서 미래를 보다



(1) 국어의 어제와 오늘

본문 확인 문제



본문 138~143쪽

- 01 ① 02 ① 03 중세 국어, 차이점 04 ② 05 ⑤
06 ② 07 ④ 08 현대 국어에서는 어두 자음군이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09 ① 10 ② 11 이, ㅣ 12 ④ 13 ⑤
14 ⑤ 15 ② 16 ③ 17 ③ 18 ④ 19 ④ 20 세
종 학당은 전 세계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21 ③ 22 ⑤ 23 ④ 24 ⑤

01 이 글은 국어의 변천, 세계 속 한국어의 위상, 국어를 사랑하고 국어 발전에 참여하는 태도에 대해 살펴보기 위한 강연문이다. (다)에서 10세기부터 16세기까지의 시기를 ‘중세’라고 한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만, 국어사에서 각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02 (다)의 “어지”는 훈민정음, 즉 한글을 창제한 세종 대왕의 한글 창제의 목적과 정신을 직접 밝힌 글로, ‘어제 서문’이라고도 합니다. 이를 통해 ‘세종어제훈민정음 어지’가 한글을 창제한 목적과 정신이 담긴 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③ ‘세종어제훈민정음 어지’에는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나, 훈민정음과 한자가 서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다.

④ ‘세종어제훈민정음 어지’에는 훈민정음이 사용되는 분야에 대한 언급은 드러나 있지 않다.

⑤ ‘세종어제훈민정음 어지’에는 글을 모르는 백성들의 언어 현실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언어에 대한 백성들의 요구는 나타나 있지 않다.

03 (다)에서 ‘세종어제훈민정음 어지’는 중세 국어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자료라고 하면서 이를 통해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차이점을 밝힐 수 있다고 하였다.

04 우리말이 한자와 달라 서로 통하기 힘들다는 내용(나·랏·말·ㅅ·미·中·國·국·에·달·아·文·문·字·중·와·로·서·르·스·못·디아·니·홀·썬)이 ‘세종어제훈민정음 어지’에 나타나 있기는 하지만, 우리말을 한자와 함께 쓰기 힘들다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새·로·스·물·여·똥·字·중·로·밍·고·노·니’를 통해 세종 대왕이 28자를 새롭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이런·전·추·로·어·린·百·씩·姓·성·이·니·르·고·저·홍·배·이·셔·도·무·춤·내·제·쁘·들·시·러·퍼·다·물·홍·노·미·하·니·라’를 통해 당시 많은 백성들이 한자를 몰랐음을 알 수 있다.

④ ‘사·롬·마·다·히·여·수·비·니·겨·날·로·부·메·便·安·한·키·후·고·저’를 통해 훈민정음이 익히기 쉽고 쓰기에 편한 글자임을 알 수 있다.

⑤ ‘내·이·로·爲·왕·후·야·어·엇·비·너·겨’를 통해 세종 대왕은 한자를 모르는 백성들을 불쌍하다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05 중세 국어에서는 ‘·쁘·들’, ‘·부·메’와 같이 음절 첫머리에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자음이 올 수 있었다.

오답 풀이 ① 가로쓰기를 하는 현대 국어와 달리 중세 국어는 세로쓰기를 하였다.

② 띄어쓰기를 하는 현대 국어와 달리 중세 국어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다.

③ 중세 국어에는 ‘ㅇ(옛이음), ㅎ(여린히음), ㅃ(순경음 비음), ·(아래아)’ 등과 같이 오늘날 쓰이지 않는 글자가 존재하였다.

④ 중세 국어에서는 앞 음절의 끝소리를 뒤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 적는 ‘이 어 적기’를 하였다.

06 중세 국어에는 ‘ㅇ(옛이음), ㅎ(여린히음), ㅃ(순경음 비음), ·(아래아), △(반치음)’ 등과 같이 현대 국어에 사용하지 않는 글자들이 존재했는데, 이 중 ‘△’은 ‘어지’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07 중세 국어에서 사용된 방점은 소리의 성조, 즉 소리의 높낮이를 표시한 것이다.

08 ‘세종어제훈민정음 어지’의 ‘·쁘·들’은 중세 국어의 모습으로, 음절의 첫머리에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자음이 올 수 있는 ‘어두 자음군’이 사용되었음을 보여 준다. 반면 현대 국어의 모습인 ‘뜻 올’은 이러한 어두 자음군이 사용되지 않은 것이다.

09 중세 국어의 ‘에’는 현대 국어에서 비교를 나타내는 ‘와/과’와 같은 의미로 쓰인 것으로, 다른 것과의 비교를 나타내는 격 조사이다. ‘둥꺾에달아’가 ‘중국과 달라’로 해석되는 것으로 볼 때, 중국과 우리나라의 말을 비교할 때 서로 다름을 나타내는 조사이다.

10 중세 국어에서는 모든 음운 환경에서가 아니라 조사나 어미가 결합할 때 모음 조화가 잘 지켜졌다고 제시되어 있다.

오답 풀이 ① 현대 국어에서는 ‘자를’과 같이 양성 모음 다음에 음성 모음을 가진 조사가 결합되는 경우가 흔하다고 하면서 이를 통해 모음 조화 현상이 약해졌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③ 현대 국어의 ‘가’는 끝음절에 받침이 없는 경우에 쓰이는데, 중세 국어에서는 ‘가’가 쓰이지 않는 대신 ‘·홍·배(바+ㅣ)’와 같이 ‘ㅣ’가 쓰였다. 이를 통해 현대 국어의 주격 조사 ‘가’는 중세 국어에서 ‘ㅣ’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④ 중세 국어에서는 주격 조사 ‘이/ㅣ’가 쓰인 반면 현대 국어에서는 ‘이/가’가 쓰였다. ‘이’는 끝음절 받침이 있는 환경에서 쓰인다는 점에서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에서의 쓰임이 동일하다.

⑤ 중세 국어에서는 ‘말·ㅅ·미’(말·ㅅ+ㅣ)에서 보듯이 끝음절에 받침이 있는 경우에는 ‘이’가, ‘·홍·배(할·바+ㅣ)’에서 보듯이 끝음절에 받침이 없는 경우에는 ‘ㅣ’가 쓰였다. 현대 국어에서는 ‘말·ㅅ·미’에서 보듯이 끝음절에 받침이 있는 경우에는 ‘이’가, ‘하는·바·가’에서 보듯이 끝음절에 받침이 없는 경우에는 ‘가’가 쓰였다. 이를 통해 앞의 단어가 어떤 환경에 있는가에 따라 주격 조사가 달리 쓰이는 것은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가 같다고 할 수 있다.

11 ‘百·씩·姓·성·이·니·르·고·저·홍·배·이·셔·도’는 ‘백성이 이르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라는 의미로, ‘百·씩·姓·성·이’에서 ‘이’, ‘·홍·배(바+ㅣ)’에서 ‘ㅣ’라는 주격 조사가 쓰였다.

12 ‘전·츠’는 음성 모음인 ‘ㅗ’와 양성 모음인 ‘ㅗ’가 결합된 단어이기 때문에 모음 조화가 지켜지지 않은 예로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달·아’는 양성 모음인 ‘ㅏ’가 연속적으로 결합되기 때문에 모음 조화가 지켜진 예이다.

② ‘서르’는 음성 모음인 ‘ㅓ’와 음성 모음인 ‘ㅡ’가 결합되었기 때문에 모음 조화가 지켜진 예이다.

③ ‘ㅸ·들’은 음성 모음인 ‘ㅡ’가 연속적으로 결합되었기 때문에 모음 조화가 지켜진 예이다.

⑤ ‘중·룰’은 양성 모음인 ‘ㅜ’가 연속적으로 결합되었기 때문에 모음 조화가 지켜진 예이다.

13 <보기>의 ‘말씀, 니르다’는 모두 의미는 그대로인데 형태가 변화된 단어이다. ‘하·니·라’는 ‘ 많다’는 의미로 형태는 그대로인데 의미가 변화한 예이다.

오답 풀이 ① ‘서르’는 ‘서로’, ② ‘퍼·디’는 ‘퍼지’, ③ ‘ㅸ·스·물’은 ‘스물’, ④ ‘ㅸ·들’은 ‘뜻을’로 바뀌었다. 이 단어들은 <보기>와 같이 의미는 그대로이나 형태가 변화한 예이다.

14 ‘뿌·메’는 ‘쓰에, 사용함에’라는 뜻으로, 현대 국어로 오면서 형태가 변한 예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태와 의미가 모두 변하였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무·춤·내’는 현대 국어에서 ‘마침내’라고 쓰이므로 형태가 변한 것이다.

② ‘니·겨’는 현대 국어에서 ‘익혀’로 쓰이므로 형태가 변한 것이다.

③ ‘어·린’은 중세 국어에서 ‘어리석은’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현대 국어로 오면서 의미가 ‘나이가 적은’으로 의미가 변하였다.

④ ‘노·미’는 중세 국어에서는 ‘보통 사람’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현대 국어로 오면서 ‘남자를 낮추어 가리키는 말’로 의미가 변하였다.

15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가 표기 및 음운, 문법, 어휘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언어가 시대에 따라 변했기 때문이다. 이는 언어의 여러 가지 특성 중 언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는 ‘언어의 역사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언어의 사회성이란 언어가 사회적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사회적 약속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는 특징을 말한다.

③ 언어의 불절성이란 언어는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세계를 불연속적으로 끊어서 표현한다는 특징을 말한다.

④ 언어의 자의성이란 언어에서 의미와 소리의 관계가 임의적으로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말한다.

⑤ 언어의 창조성이란 한정된 말소리로 무수히 많은 단어를 만들 수 있고, 단어의 나열을 통해 아주 많은 문장을 새로 만들 수 있다는 특징을 말한다.

16 중세 국어에서는 음운 환경에 따라 주격 조사로 ‘이/ㅣ’가 쓰였으므로 현대 국어에서 쓰이지 않는 조사의 사용이 확인되지만 현대 국어에서 사용되는 주격 조사 ‘가’는 없었으므로 중세 국어에서 현대 국어보다 조사를 더 다양하게 사용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오답 풀이 ① 중세 국어에서는 ‘퍼·디·물’처럼 글자의 왼쪽에 방점을 찍어 소리의 높낮이를 표시했다.

② 중세 국어에는 ‘ㅅ, ㅅ, ㅅ, ㅅ, ㅅ’ 등의 글자가 있었는데 현대 국어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중세 국어에서는 글자 수가 현대 국어보다 많았음을 알 수 있다.

④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에서 나타나는 표기, 음운, 문법, 어휘의 차이를 통해 언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세종어제훈민정음 어지’를 보면 당시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의 한자와 통하지 않아 백성들이 그 뜻을 전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7 (가)~(다)는 세계 속 한국어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18 제시된 그래프는 한국어 능력 시험 지원자 수 및 세종 학당 학생 수의 추이를 나타낸 것으로, 세종 학당의 수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이 글에 세종 학당 수와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들의 수요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세종 학당의 수가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들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지는 이 글을 통해 알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한국어 능력 시험 지원자 수와 세종 학당 학생 수가 점점 늘어나는 것으로 보아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② 세종 학당은 해외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③ 한국어 능력 시험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재외 동포나 외국인의 한국어 사용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인데, 그 지원자 수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볼 때 한국어 사용 능력을 평가받으려는 외국인들이 많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제시된 그래프는 한국어 능력 시험 지원자 수와 세종 학당 학생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를 통해 외국인들이 한국을 배우고 이해할 필요가 높아짐에 따라 한국어의 위상도 함께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 국제 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과 역할이 커지면서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한국을 알고 이해할 필요가 높아지고, 이에 따라 한국어의 국제적인 위상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20 세종 학당은 해외에 있는 한국어 교육 기관으로, 전 세계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21 이 강연에서는 외래어와 외국어를 과도하게 사용한 예와 가상 공간에서 언어를 잘못 사용한 예를 제시하여 올바른 국어 사용 방법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상황은 다르지만 국어를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두 가지 예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대조적인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이 강연에서 강연자는 청자를 대상으로 국어의 올바른 사용 방법을 제시하며 국어를 사랑하고 국어의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지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② 강연자는 청자의 수준에 맞게 ‘ 좋겠어요’ 등과 같은 구어체를 사용하여 친근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④ 외래어와 외국어를 과도하게 사용한 예와 가상 공간에서 언어를 잘못 사용한 예를 시각 자료로 제시하여 청자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⑤ 일상생활에서의 예를 통해 국어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실태를 제시하고, 올바른 국어 사용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2 [A]는 일상생활에서 우리말로 표현해도 되는 것을 외래어와 외국어를 과도하게 사용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로, 전문 분야에서 사용하는 말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해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다.

오답 풀이 ①, ②, ④ 외래어와 외국어를 과도하게 사용하면 의사소통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기분을 언짢게 할 수도 있다. 더 나아가 국어의 발전을 가로막는 일이기도 하다.

③ 우리말로 표현해도 충분히 의사소통이 가능한데 외국어나 외래어를 지나치게 사용한 예이다.

23 담화의 맥락을 살펴볼 때, ‘짐ㄱㄱ’은 ‘지금 나가.’의 의미라고 해석할 수 있다.

24 가상 공간에서는 대화 상대를 직접 대면하지 않아 의사소통 시 오해의 소지가 많은 것은 사실이나, 일상생활에서 대화할 때 사용하는 언어 표현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일상생활에서도 규범에 맞지 않는 표현을 사용하여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가상 공간 이든 일상생활 공간이든 언어 규범에 맞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② 외래어나 외국어 사용을 자제하고 고유어나 순화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③ 최근에는 가상 공간에서처럼 규범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표현을 일상생활까지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가 된다고 하였으므로 일상생활에서도 규범에 맞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④ 국어의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 자신이 국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고 국어를 사랑하고 국어의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지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자신의 언어 사용 습관을 되돌아보고 국어를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노력하는 것은 적절하다.

학습 활동 짚고 가기

본문 144쪽

01 ② 02 ⑤ 03 ② 04 ③

01 ‘나라히’는 ‘나라가’라는 뜻으로 ‘나라ㅎ + 이’로 이루어진 것을 보면 주격 조사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보미’는 ‘봄에’라는 뜻으로 ‘봄 + 인’로 이루어진 것을 보면 부사격 조사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후니, ㄱ룬, 보미’에서 현대 국어에는 존재하지 않는 ‘· (아래 아)’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③ ‘썸’에서 음절의 첫머리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자음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④ ‘앗’은 ‘안의’라는 뜻으로, ‘ㅅ’이 관형격 조사의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⑤ ‘보미’는 ‘봄 + 인’로 이루어진 것으로, 앞 음절의 끝소리 ‘ㅁ’을 뒤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 적는 이어 적기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02 ‘피’는 ‘산’으로, ‘ㄱ름’은 ‘강’으로, ‘갯’은 ‘성’으로, 고유어가 한자어로 대체되었다. 한자어가 널리 쓰이면서 고유어가 사라지고 한자어가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이다.

03 <보기>는 ‘노키즈존’이라는 외국어를 ‘어린이 제한 (공간)’이라는 우리말로 순화한 사례이다. 이와 같이 ‘잔반 → 음식 찌꺼기’, ‘레시피 → 조리법’, ‘카운터 → 계산대’, ‘테이크아웃 → 포장 판매/포장 구매’로 순화되었다. 그러나 ‘커피’는 우리말로 번역되지 않고 그대로 사용되는 외래어이다.

04 신조어, 줄임말, 통신 언어의 과도한 사용 등 우리말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게 될 경우 기존 단어가 사장되거나 의사소통의 단절과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 이 같은 현상은 결국 우리말의 가치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문자를 쉽고 빠르게 입력할 수 있는 것은 줄임말을 사용할 때의 장점으로 볼 수 있다.

② 개성 있는 표현이 가능하고 상대방에게 친근감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줄임말이나 신조어 등을 활용할 때의 장점으로 볼 수 있다.

소단원 평가

본문 145~151쪽

01 ④ 02 ④ 03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여서 04 ⑤ 05 ① 06 ④ 07 ③ 08 ④ 09 ④ 10 ⑤ 11 ④ 12 ⑤ 13 ⑤ 14 모든 사람이 쉽게 익혀 편만한 문자 생활을 하도록 했다는 점 15 ④ 16 ② 17 ③ 18 ① 19 ③ 20 [A]는 ‘독특한 모양과 화려한 색상이 돋보이는 이 상품은 이미 많은 유명 인사가 선택한 최신 유행 상품입니다.’와 같이 고칠 수 있다. 이렇듯 언어 규범에 맞는 표현을 사용하면 내용을 쉽게 이해하여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21 ③ 22 ⑤ 23 ③ 24 ③

01 중세 국어에는 어두 자음군이 사용되었는데, 이것이 현대 국어에서는 된소리로 바뀌었다. 또한 ‘세종어제훈민정음 어지’을 보면 ‘썸’과 같이 어두에 같은 두 자음이 함께 쓰이기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세 국어에는 현대 국어에서의 된소리를 표기할 수 있는 글자가 없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나)의 내용을 통해 중세 국어는 가로쓰기를 하는 현대 국어와 달리 세로쓰기를 했음을 알 수 있다.

② (가)의 내용을 통해 ‘세종어제훈민정음’이 중세 국어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자료임을 알 수 있다.

③ (나)의 내용을 통해 중세 국어는 끊어 적기를 하는 현대 국어와 달리 이어 적기를 했음을 알 수 있다.

⑤ (다)의 내용을 통해 중세 국어에는 ‘ㄴ, ㄷ, ㄹ’과 같이 현대 국어에는 없는 음운을 표기하기 위한 문자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02 ‘세종어제훈민정음 어지’를 통해 세종 대왕이 중국과 우리말의 언어 차이를 인식하여 의사소통에 불편을 겪는 백성들을 위해 누구나 사용하기에 쉽고 편리한 새로운 문자를 창조했음을 알 수 있다. 문자 창제를 통해 평등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한 것이 아니다.

오답 풀이 ①, ⑤ ‘나·랏·말싸·미중동國·꺅·에달·아文문字·쥬·와·로 서르스못·디 아·니홀·씨’를 통해 중국과 우리나라의 언어에 차이가 있음을 인식하고, 우리말을 제대로 표기할 수 있는 문자가 없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꼈음을 알 수 있다.

② ‘어·린百·빅姓·성·이니르·고·저·홀·배이·셔·도무·츄·내제·쁘·들시·러퍼·디·문홀·노·미하·니·라·내·이·룰爲·윙·후·야·어·엇·비너·겨’를 통해 문자 생활을 하지 못하는 백성을 불쌍하게 여겼음을 알 수 있다.

③ ‘·내·이·룰爲·윙·후·야·어·엇·비너·겨·새·로·스·물여·둑字·쥬·룰밍·ㄱ노·니·사롬·마·다·히·예·수·비니·겨·날·로·뿌·매便便·안한·키후·고·저홀썸루·미니·라’를 통해 백성들이 배우고 익히기 쉬운 문자를 만들 필요를 느꼈음을 알 수 있다.

03 ‘세종어제훈민정음 어지’에는 자주 정신, 애민 정신, 창조 정신, 실용 정신이 드러나 있는데, ‘나·랏·말싸·미중동國·꺅·에

달·아문文字·중·와·로서르스뭇·디 아·니홀·씨'가 자주 정신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중국과 다른 우리말을 위한 문자를 만들겠다는 취지가 잘 드러나 있다.

04 ‘:말썸·미’는 ‘말썸+이’, ‘이·셔·도’는 ‘잇어+도’, ‘·쁘·들’은 ‘뜯+을’, ‘·노·미’는 ‘눔+이’, ‘·뿌·메’는 ‘뽀+에’로 이루어져 있는데, 앞 음절의 끝소리를 뒤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 적는 이어 적기를 한 경우이다.

오답 풀이 ① 어미와 결합된 것은 ‘이·셔·도(잇-(어간)+-어도(어미))’뿐이다. 나머지는 조사와 결합되어 있다.

② 모두 방점이 사용되었는데, 방점은 소리의 장단이 아니라 소리의 고저, 즉 소리의 높낮이를 표시하기 위한 것이다.

③ 어두 자음군은 ‘·쁘·들’과 ‘·뿌·메’에만 사용되었다.

④ 현대 국어에 쓰이지 않은 자모는 ‘· (아래아)’로, 이것이 쓰인 것은 ‘말썸·미’뿐이다.

05 (나)를 보면, 중세 국어에서는 주격 조사로 ‘이’와 ‘이’만 쓰였으며, 현대 국어에서 사용되는 주격 조사 ‘가’는 없었다고 하였다.

오답 풀이 ② ‘·쁘·들’, ‘·중·롤’과 같이 중세 국어에서는 모음 조화가 비교적 잘 지켜졌음을 알 수 있다.

③ ‘中동國·국·에달’(중동국과 달라)와 같이 중세 국어에서는 조사 ‘에’가 현대 국어 조사 ‘와/과’와 같은 의미(비교격 조사)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④ ‘서르’가 현대 국어에서 ‘서로’로 쓰이는 것과 같이 중세 국어에서는 현대 국어와 의미는 같지만 형태가 다른 단어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⑤ 중세 국어에서 ‘어·린’이 ‘어리석은’이라는 의미로 쓰였지만 현대 국어에서는 ‘나이가 적은’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것과 같이 중세 국어에서는 현대 국어와 형태는 같지만 의미가 다른 단어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06 중세 국어에서 ‘서르’는 ‘서로’를 뜻하는 말로 현대 국어와 형태만 다르다. 따라서 의미의 변화가 아니라 형태의 변화가 이루어진 단어이다.

오답 풀이 ① 중세 국어의 ‘어·린’은 ‘어리석은’을 의미하였으나 현대 국어에서는 ‘나이가 적은’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따라서 의미의 변화에 속한다.

② ‘무·춤·내’는 의미는 그대로인데 형태만 ‘마침내’로 변한 형태의 변화에 속한다.

③ 중세 국어의 ‘·눔’은 ‘보통 사람’을 의미하였으나 현대 국어에서는 ‘남자를 낮추어 가리키는 말’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따라서 의미의 변화에 속한다.

⑤ 중세 국어의 ‘·스·물’에서 원순 모음화가 적용되어 현대 국어에서는 ‘스물’로 변화하였다. 이는 형태의 변화에 속한다.

07 중세 국어에서 ‘에’는 비교를 나타내는 비교격 조사로 사용되었다. ‘나이에 비해 조숙하다.’의 ‘에’ 또한 비교의 의미로 사용된 비교격 조사이다.

오답 풀이 ① ‘추위에 물이 얼었다.’의 ‘에’는 앞말이原因的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다.

② ‘옷에 먼지가 묻었다.’의 ‘에’는 앞말이 처소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다.

④ ‘동생은 방금 집에 갔다.’의 ‘에’는 앞말이 진행 방향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다.

⑤ ‘우리는 햇볕에 옷을 말렸다.’의 ‘에’는 앞말이 수단, 방법 따위의 대상이 되는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다.

08 중세 국어에서는 조사나 어미가 결합할 때 모음 조화가 잘 지켜졌는데, ‘ㅎ·고·저’는 양성 모음을 가진 어간 ‘ㅎ-’에 ‘-고저’라는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을 가진 어미가 결합된 경우로 모음 조화가 지켜지지 않은 예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쁘·들’은 음성 모음을 가진 체언 ‘뜯’에 음성 모음의 조사 ‘을’이 결합되어 모음 조화가 잘 지켜진 경우이다.

② ‘세·워’는 음성 모음을 가진 어간 ‘세우-’에 ‘-어’라는 음성 모음을 가진 어미가 결합되어 모음 조화가 잘 지켜진 경우이다.

③ ‘文문字·중·와’는 체언의 끝음절 모음이 양성 모음인 ‘문중’에 ‘와’라는 양성 모음을 가진 조사가 결합되어 모음 조화가 잘 지켜진 경우이다.

⑤ ‘中동·國·국·에’는 음성 모음을 가진 체언 ‘동국’에 ‘에’라는 음성 모음을 가진 조사가 결합되어 모음 조화가 잘 지켜진 경우이다.

09 (가)를 보면, 세종 학당은 해외에 있는 한국어 교육 기관으로, 전 세계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 교육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나)를 보면, 국제 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과 역할이 커지면서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한국을 이해할 필요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② (다)를 보면, 국어를 잘못 사용하면 의사소통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기분을 언짢게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가)를 보면, 한국어 능력 시험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재외 동포나 외국인의 한국어 사용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임을 알 수 있다.

⑤ (가)의 그래프와 (나)를 보면, 한국어 능력 시험 지원자 수와 세종 학당 학생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0 (라)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글의 화자는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변하고, 또 사라지기도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는 언어의 특성 중 언어의 역사성과 관련 있다.

오답 풀이 언어의 특성 중 ①은 언어의 기호성, ②는 언어의 자의성, ③은 언어의 사회성, ④는 언어의 창조성과 관련된 설명이다.

11 가상 공간에서 이모티콘을 사용해 자신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지만, 문자로 직접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오해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 지나치게 이모티콘을 다양하게 많이 사용하는 것은 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과의 의사소통에 방해가 될 수 있으며, 특히 어린 세대와는 세대 간의 벽을 느끼게 할 수 있다.

12 강연자는 (가)에서 ‘세종어제훈민정음 어지’를 소개한 후, (나)~(바)에서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차이점을 표기 및 음운, 문법, 어휘 면에서 살펴보고 있을 뿐, 한글의 우수성을 강조하고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세종어제훈민정음 어지’의 개념과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②, ③ (나)~(바)에서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차이점을 표기와 음운, 문법, 어휘 면에서 살펴보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 국어의 변화 양상을 알게 쉽게 설명하고 있다.

④ 국어의 변천이라는 중심 화제를 설명하기 위해 강연자는 (가)와 (라)에서 시각 자료인 ‘세종어제훈민정음 어지’를 제시하여 내용의 이해를 돕고 있다.

13 (다)를 보면 중세 국어에는 ‘·쁘·들’, ‘·뿌·메’와 같이 음절 첫머리에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자음이 올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현대 국어에서 음절의 첫머리에는 ‘ㄱ~ㅎ’까지 자음 하나로 이루어진 14개의 자음과 ‘ㄲ’, ‘ㄴ’, ‘ㄷ’, ‘ㄹ’과 같이 같은 자음 두 개로 이루어진 된소리만 올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나)에서 현대 국어에서는 일반적으로 가로쓰기를 하지만 중세 국어에서는 세로쓰기를 한다고 하였다.

② (다)에 따르면 중세 국어에는 ‘ㅇ, ㅎ, ㅁ, ㅂ’ 등과 같이 오늘날 쓰이지 않는 글자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③ (나)에 따르면 중세 국어에서는 ‘퍼·디:물흙’처럼 글자 왼쪽에 방점을 찍어 성조, 즉 소리의 높낮이를 표시했음을 알 수 있다.

④ (마)를 보면 중세 국어에서는 체언이나 용언 어간의 끝음절 모음이 양성 모음이나, 음성 모음이나에 따라 조사나 어미의 형태가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모음 조화 현상이라고 하는데, 현대 국어에서는 모음 조화 현상이 약해졌다고 설명하고 있다.

14 ‘어지’에서 ‘:사름:마:다:히:여:수:비니:겨:날:로:뿌:메便安한:괴ㅎ:고:저흙ㅁㅁ:미니:라(사람마다 하여금 쉽게 익혀 날마다 씹어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에서 실용 정신을 확인할 수 있다.

15 (가)에서 ‘하·니·라’는 현대 국어의 ‘ 많다’와 같은 의미를 지닌 단어이다. 현대 국어에서 ‘하다’는 ‘사람이나 동물, 물체 따위가 행동이나 작용을 이루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오답 풀이 ① 현대 국어에서 ‘어리다’는 ‘나이가 적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② 중세 국어의 ‘무·춤:내’와 현대 국어의 ‘마침내’는 비록 형태는 다르지만 ‘드디어 마지막에는’이라는 의미로 동일하게 사용되었다.

③ 현대 국어에서 ‘놈’은 ‘남자를 낮잡아 이르는 말’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⑤ 현대 국어에서 ‘어엿비’는 ‘예쁘게’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16 ‘나·랏:말ㅁㅁ:미中國:귀:에달:아’는 현대 국어로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이다. 이를 통해 중세 국어의 조사 ‘에’가 현대 국어에서 비교를 나타내는 조사 ‘와/과’와 같은 의미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②의 ‘과’는 다른 것과 비교하거나 기준으로 삼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로 사용되었으므로 ①과 문법적 의미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④ ‘과’가 ‘일 따위를 함께 함’을 나타내는 격 조사로 사용된 예이다.

③, ⑤ ‘과’가 ‘상대로 하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로 사용된 예이다.

17 ‘:쁘:들’의 ‘ㅁㅁ’과 ‘:뿌:메’의 ‘ㅁㅁ’은 모두 어두 자음군이다(ㄴ). 또한 ‘:쁘:들’의 경우 체언 ‘뜰’에 조사 ‘을’이 결합된 것으로 체언과 조사의 모음이 모두 음성 모음이고, ‘뿌메’의 경우 용언의 어간 ‘쁘-’에 어미 ‘-음’이 결합하여 ‘뽕’이 된 것으로, 어간과 어미의 모음이 모두 음성 모음이다. 따라서 ㉠과 ㉡ 모두 모음 조화가 엄격히 적용되었음(ㄷ)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쁘:들’은 ‘뜰을’을, ‘:뿌:메’는 ‘뽕에’를 이어 적기 방식으로 표기한 것(ㄹ)이다.

오답 풀이 ㄱ. ‘:쁘:들’과 ‘:뿌:메’ 모두 주격 조사를 사용하지 않았다. ㄴ. ‘:뿌:메’에서 조사 ‘에’는 비교의 의미가 아닌 ‘앞말이 목표나 목적의 대상이 되는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로 사용되었다.

18 ‘가까워’는 기본형 ‘가깝다’의 활용형으로, 어간 ‘가깝-’에 어미 ‘-어’가 결합한 것이다. 어간의 모음이 양성 모음임에도 불구하고, 어간에 결합한 어미의 모음은 음성 모음이다. 따라서 모음 조화가 일어나지 않은 예로 제시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어간 ‘깎-’에 어미 ‘-아서’가 결합되었다. 어간과 어미의 모음이 모두 양성 모음이다.

③ 어간 ‘죽-’에 어미 ‘-었-’가 결합되었다. 어간과 어미의 모음이 모두 음성 모음이다.

④ 어간 ‘숫-’에 어미 ‘-아라’가 결합되었다. 어간과 어미의 모음이 모두 양성 모음이다.

⑤ 어간 ‘먹-’에 어미 ‘-어도’가 결합되었다. 어간과 어미의 모음이 모두 음성 모음이다.

19 이 강연에서는 현재 언어생활의 문제점 중 하나로 외래어나 외국어를 불필요하게 많이 사용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하지만 외래어와 외국어의 차이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여 설명하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1문단에서 ‘한국어 능력 시험 지원자 수 및 세종 학당 학생 수’의 변화를 알 수 있는 그래프 자료를 제시하고, 3문단에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들이 늘어나는 이유와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자료의 의미를 해석하고 있다.

② 2문단에서 ‘한국어 능력 시험’의 응시 대상과 목적, ‘세종 학당’의 역할 등을 설명하고 있다.

④ 마지막 문단에서 ‘모든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한다는 특성을 언급한 후, 우리가 국어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⑤ 5문단에서 국어를 잘못 사용하는 현상의 문제점과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20 [A]는 ‘유니크한 디자인’, ‘비비드한 컬러’, ‘셀럽’, ‘초이스’, ‘하아이템’ 등 외국어나 외래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 이를 ‘독특한 모양’, ‘화려한 색상’, ‘유명 인사’, ‘선택’, ‘최신 유행 상품’ 등 우리말로 바꾸어 표현하면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21 ‘ㅇㅁ’와 ‘ㅈ’은 각각 ‘어디야?’, ‘집이야.’라는 말을 초성만으로 간략하게 표기한 것이며(ㄴ), ‘안나와?’와 ‘언능와.’는 ‘안 나와?’, ‘얼른 와.’라는 의미로,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무시하고 표기한 것이다(ㄷ).

오답 풀이 ㄱ. ‘ㅇㅇ’은 ‘응’을 간략하게 표시한 것일 뿐, 한글의 모양을 활용하여 표정이나 기분을 표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ㄹ. ‘집’은 ‘지금’의 줄임말로 비속어로 볼 수 없다.

22 강연자는 부적절한 국어 표현을 사용한 예를 제시하고, 올바른 국어 사용이 필요한 이유를 언급하고 있다. 이후 올바른 국어 사용 방법으로 외국어나 불필요한 외래어 사용을 자제하고 고유어나 순화어를 사용하며, 가상 공간에서도 언어 규범에 맞는 표현을 사용하자고 하였다.

23 ㉠에는 신조어와 줄임말 등의 언어가 시대적 흐름임을 보여주는 근거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현대 사회의 모습이나 변화를 반영한 언어라는 점(ㄴ), 가상 공간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형태의 언어라는 점(ㄷ)은 신조어와 줄임말 등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옹호하는 내용이므로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오답 풀이 ㄱ. 일부 신조어나 줄임말이 표준어가 되기도 하지만, 이는 그 표현의 적절성 및 보편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일 뿐, 그것이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다고 하여 모두 표준어가 되는 것은 아니다.

ㄹ. 언어는 의사소통의 도구라는 점에서 항상 사회적 기능을 담당한다.

24 ㉠에는 신조어나 줄임말 등을 무분별하게 사용했을 경우 나타나는 문제점이 들어가야 적절하다. 쉽고 빠르게 입력할 수 있는 문자나 개성 있는 표현이 가능하다는 점은 신조어나 줄임말 등의 언어가 지닌 장점에 해당한다.

(2) 우리말의 담화 관습 다시 보기

학습 활동 응용문제

본문 153~155쪽

01 ④ 02 ② 03 ② 04 ⑤ 05 김 선생이 한 말의 의도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06 ⑤ 07 ④ 08 ② 09 (가): 경청하기 (나): 신중하게 판단하며 가려듣기 10 ③ 11 ③ 12 ⑤

01 ‘말을 말할 것이’, ‘말 말할까 하노라’와 같이 ‘말’과 ‘말다’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읊는 데 재미를 주는 언어유희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시조는 ‘말’을 함부로 하는 것에 대한 경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관조적 태도가 드러난다고 할 수 없다.

②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이 아니라 독백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③ 당대 사회상에 대하여 알 수 있는 내용은 드러나지 않는다.

⑤ 3장 6구 45사 내외의 전형적인 시조의 형식을 따르고 있는 평시조이다.

02 이 시조의 화자는 남에 대해 함부로 말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내가 남에 대해 함부로 말하면 남도 똑같이 나에게 함부로 말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함부로 말하지 말고 신중하게 말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03 이 시조는 함부로 말하지 말고 꼭 필요한 말만 신중하게 말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내가 할 말을 사돈이 한다.’는 ‘내가 해야 할 말을 남이 가로채어 한다.’라는 의미로 이 시조의 주제와는 상관없다.

오답 풀이 ① ‘발 없는 말이 천 리 간다.’는 말은 비록 말이 없지만 천 리 밖 까지도 순식간에 퍼진다는 뜻으로, 말을 삼가야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속담이다.

③ ‘아 해 다르고 어 해 다르다.’는 같은 내용의 이야기라도 표현하는 데 따라 다르게 들린다는 뜻으로, 말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의미의 속담이다.

④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는 아무도 안 듣는 데서라도 말 조심해야 한다는 말로 말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진 속담이다.

⑤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는 가루는 체에 칠수록 고와지지만 말은 길어질수록 거칠어져 시비가 붙을 수 있고 마침내는 말 다툼까지 가게 되므로 꼭 필요한 말만 신중히 하라는 의미를 가진 속담이다.

04 김 선생은 친구의 인색함을 직설적으로 지적하지 않고 부드럽게 돌려 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돌려 말하기는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내용을 완곡하게 돌려 말하는 방식이다(ㄷ). 이와 같은 돌려 말하기 방식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말하는 의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ㄴ). 그러나 의도를 직접 드

려내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말의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나 잘못 받아들일 수도 있다(ㄹ).

오답 풀이 ㄱ. 김 선생의 말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방식이 아니라 돌려 말하는 방식이다.

ㄴ. 정확한 정보 전달이나 주장을 드러내기에는 적당한 말하기 방식이 아니며, 오히려 상대방이 자신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잘못 받아들일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05 김 선생은 자신을 인색하게 대접하는 친구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닭을 잡아 안주를 내오라는 의도로 “닭을 빌려 타고 가려네.”라고 말한다. 이 말을 들은 주인이 닭을 잡아 대접한 것으로 볼 때, 주인이 크게 웃은 것은 자신의 인색함을 지적하는 김 선생의 의도를 파악했기 때문이다.

06 김 선생이 “닭을 빌려 타고 가려네.”라고 말한 것은 자신을 인색하게 대접하는 친구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닭을 잡아 안주를 내오라는 자신의 요구를 드러내고자 한 표현이다.

오답 풀이 ① 안주로 친구의 닭을 잡아 내오라는 의미이므로 친구의 형편을 고려한 것은 아니다.

② 자신을 인색하게 대접하는 친구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한 것으로 자신의 말보다 친구의 닭이 안주로 더 좋다는 의도로 말한 것이 아니다.

③ 표면적이지만 자신의 말을 잡아 안주를 장만하라고 하였으므로 자신의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닭을 빌려 달라는 의도로 말한 것이 아니다.

④ 김 선생은 배가 고픈 상황이나 친구의 인색한 대접에 섭섭함을 느낀 상황이다. 따라서 배가 고플기 때문에 다른 안주라도 먹고 싶다는 의도로 말한 것이 아니다.

07 출연자는 진행자의 ‘혁명적 존재’라는 말에 ‘모르겠어요.’라며 자신을 칭찬하는 말에 동조하지 않고 자신을 낮추어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자신감 있게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② 진행자는 출연자를 높여서 소개하며 한 평론가의 말을 활용하여 칭찬하고 있으므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⑤ 출연자는 ‘혁명적 존재였다.’라는 진행자의 말에 대해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과분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라며 자신을 낮추어 겸손하게 말하고 있다.

08 ㉠에서 출연자는 자신을 칭찬하는 뉴스 진행자의 말에 동의하지 않고 겸손하게 말하고 있다. 겸손하게 말하기에서는 자기를 높이는 표현을 삼가야 하므로 자신을 자랑하거나 자신을 칭찬하는 말에 동조하는 표현을 하지 않아야 한다. 제시된 대화에서는 토론 대회에서 상을 받은 것을 언급하며 말재주를 칭찬하는 수진의 말에 정연이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자신을 낮추는 표현을 해야 한다. 따라서 ②가 가장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모르겠어.’라고 하였지만 ‘나도 이어 받은 것 같아.’라며 자신을 칭찬하는 말에 동조하고 있다.

③ 자신을 낮추기보다는 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④ ‘그러게 말이야.’라고 자신을 칭찬하는 말에 동조하며 자신의 실력을 과시하고 있다.

⑤ 자신이 좋은 성적을 거두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09 (가)는 상대방의 말을 중간에 끊고 자신의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다. 이는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듣기를 강조하고 있다. (나)는 응답패설, 도리에 안 맞는 말 등은 듣지 말라고 말하고 있다. 상대방의 말을 가려들어야 하는 경우를 보여 준 것으로, 이는 상대방의 말을 신중하게 판단하며 가려듣기를 강조하고 있다.

10 진목이 ㉔과 같이 말한 것은 상대방의 권유에 부담을 느끼고 정중하게 거절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함부로 말한 것이다.

오답 풀이 ① ㉔은 지난달과 비교하여 연주 실력이 나아졌으며 상대방을 칭찬하는 것이다.

② ㉔은 상대방의 칭찬을 거부하는 심리가 담겨 있는 비언어적 표현이다. 상대방에 대하여 예의를 갖추지 않고 있다.

④ ㉔은 지난 척하는 상대방을 비난하려는 의도가 담긴 발화로 자신을 몰아붙이는 상대방의 말에 기분이 상해 상대방에 대한 배려 없이 함부로 말하는 것이다.

⑤ ㉔은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상대방을 낮추어 비난하는 것이다.

11 의사소통 문화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말의 담화 관습을 무조건 수용할 것이 아니라, 비판적인 안목으로 바라보고 오늘날의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수정하거나 보완하여 계승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② (가)는 겸손하게 자신을 표현하고 있고, (나)는 자기 자신의 장점을 드러내는 표현을 하고 있다. (나)와 같은 방식의 말하기는 면접 담화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의사소통 방법이다. 그러나 면접 담화 상황에서 (가)와 같이 겸손하게 표현하다가 자신의 장점을 드러내지 못하면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

④, ⑤ 언어 공동체의 담화 관습은 사회·문화적 상황에 따라 변화하므로 우리말의 담화 관습을 무조건 수용할 것이 아니라, 이를 비판적인 안목으로 바라보고 현실에 적절하게 적용해야 한다.

12 ㉔은 상대방의 말을 중간에 끊고 자신의 말만 하고 있을 뿐, 자기 생각을 상대방에게 강요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②, ③ ㉔은 대화 상대방과 대화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 없이 성적이 떨어져 힘들어하는 친구의 고민을 무시한 채 자신의 성적이 잘 나왔음을 과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④ ㉔은 친구의 말을 중간에 끊으며 자신의 말만 하는 등 상대방이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있다.

소단원 평가

본문 156~157쪽

01 ⑤ **02** ① **03** 자신을 인색하게 대접하는 친구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닭을 잡아 안주를 내오라는 자신의 요구를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이므로, ㉔은 “마당에 있는 닭을 잡아 안주를 내오게.” 등과 같이 바꾸어 표현할 수 있다. **04** ② **05** ① **06** ② **07** 면접은 자신의 능력을 평가받아야 하는 상황이므로 겸손하게만 표현하면 자신의 장점을 드러내지 못해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려워진다.

01 (가)의 화자는 함부로 말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따라서 ‘가르는 체에 칠수록 고와지지만 말은 길어질수록 거칠어져 시비가 붙을 수 있고 마침내는 말다툼까지 가게 된다’는 의미를 지닌 ‘가

르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라는 속담을 활용하여 신중하게 말을 해야겠다고 반응한 ⑤가 (가)를 감상한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라.’라는 속담은 ‘상황이 어떻든 지 말은 언제나 바르게 하여야 함’을 의미하므로 (가)의 내용과 관련이 없다.

② ‘발 없는 말이 천 리 간다.’라는 속담은 ‘말은 비록 발이 없지만 천 리 밖 까지도 순식간에 퍼진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를 활용한다면 말의 파급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말을 해야겠다고 반응할 수 있다.

③ ‘아 해 다르고 어 해 다르다.’라는 속담은 ‘같은 내용의 이야기라도 표현하는 데 따라서 다르게 들린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를 활용한다면 상대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말을 해야겠다고 반응할 수 있다.

④ ‘말 안하면 귀신도 모른다.’라는 속담은 ‘마음속으로만 애태울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말은 시원스럽게 해야 함’을 의미하므로 (가)의 내용과 관련이 없다.

02 (나)의 ‘김 선생’은 닭을 잡아 안주를 내오라는 의도로 “닭을 빌려 타고 가려네.”라고 돌려 말함으로써, 자신을 인색하게 대하는 친구의 잘못을 에둘러 지적하고 있다. ㄱ에서 지은은 영화를 보러 가자는 은주의 말에 감기에 걸린 자신의 몸 상태를 말하며 에둘러 거절하고 있다. 또한 ㄴ에서 상민은 정국에게 교실이 춥지 않느냐고 물으며 창문을 닫아 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돌려 말하고 있다.

03 김 선생은 안주는 채소뿐이라고 미리 사과하는 벼의 집 마당에 한 무리의 닭들이 어지럽게 모이를 쪼고 있는 것을 보며 벼의 말이 거짓임을 알았다. 김 선생은 벼의 인색함을 지적하고, 닭을 잡아 안주를 내오라는 자신의 요구를 “닭을 빌려 타고 가려네.”라고 돌려 말하였다. 이를 직접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마당에 있는 닭을 잡아 안주를 내오게.” 정도가 적당하다.

04 ㉔은 상대방이 매우 인지도가 높은 인물임을 드러내는 말이므로 출연자를 칭찬하는 말하기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언어유희를 사용하여 말의 재미를 주는 표현은 아니며, 이로 인해 출연자가 긴장을 풀 수 있는 것 또한 아니다.

05 <보기>에서 ‘남학생’은 친구의 말을 중간에 끊으며 자신의 말만 하고 있다. 따라서 상대방의 말에 관심이 없더라도 귀 기울여 끝까지 듣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와 같은 담화 관습을 ‘경청하기’라고 한다.

06 (가)의 정연은 자신의 실력을 과시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를 낮추어 겸손하게 말하고 있다. (다)의 철호 역시 자신을 과시하지 않고 겸손한 태도로 스스로를 낮추어 말하고 있다. 반면 (나)의 민수와 (라)의 유슬은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는 말을 하고 있다.

오답 풀이 ㄴ. (가)의 수진은 정연에게 말재주가 좋다고 칭찬하고 있다. 그에 비해 (라)의 진목은 상대방을 칭찬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ㄹ. (나)의 영화와 (라)의 유슬 모두 돌려 말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07 면접 담화 상황에서는 자신의 장점과 능력을 드러내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철호는 겸손한 태도로 자신을 낮추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의 장점을 드러내지 못하면 면접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다.

01 ① 02 중세 국어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자료이다.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와의 차이점을 밝힐 수 있다. 03 ③ 04 ③ 05 ④ 06 ④ 07 ③ 08 뽐을, 뉘이 09 일상생활에서 외국어나 불필요한 외래어의 사용을 자제하고 고유어와 순화어를 사용해야 하며, 가상 공간에서도 언어 규범에 맞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10 ② 11 ② 12 ② 13 ④ 14 문제를 틀린 친구에게 직접적으로 잘못을 지적하고 비난하여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돌려 말하기를 활용할 수 있다. 15 ② 16 ② 17 ③ 18 ⑤ 19 ③ 20 ② 21 ⑤ 22 의사소통을 방해할 뿐 아니라, 상대방의 기분을 언짢게 할 수 있다. 나아가 국어의 발전을 가로막는 일이다. 23 ⑤ 24 ⑤ 25 겸손하게 말하기 26 ② 27 ① 28 ④

01 이 글은 국어의 변천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통시적으로 고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세 국어의 특징을 현대 국어와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② ‘세종어제훈민정음 어지’의 음운과 어휘를 예로 들어 분석하면서 청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③ 이 글은 다수의 청중 앞에서 강의를 하는 강연문으로, 구어체를 사용하여 청자에게 친근함을 주고 있다.

④ 중세 국어의 특징을 표기 및 음운, 문법, 어휘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⑤ 현대 국어와 비교하여 중세 국어의 특징을 이해하기 쉽게 제시하고 있다.

02 ‘세종어제훈민정음 어지’는 한글 창제의 목적과 정신을 밝힌 글이다. 중세 국어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자료로, 이를 통해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차이점을 밝힐 수 있다.

〈서술형 평가 기준〉

평가 기준	평가
‘세종어제훈민정음 어지’가 지니는 의의를 두 가지 모두 서술하였다.	상
‘세종어제훈민정음 어지’가 지니는 의의 중 한 가지만 서술하였다.	하

03 ‘세종어제훈민정음 어지’에는 한글 창제 정신이 드러난다. 먼저 ㉠ ‘나·랏·말싸·미 ~ 아·니힐·씨’에는 자주 정신이, ㉡ ‘이런전·초·로 ~ 밍·노·니’에는 애민 정신이, ㉢ ‘:사름·마·다 ~ 썩록·미니·라’에는 실용 정신이 드러난다.

04 중세 국어에서는 주격 조사가 ‘이/ㅣ’의 형태로 사용되었다. ‘:홍·배’는 주격 조사가 생략된 것이 아니라, ‘:홍·배(바+ㅣ)’에서 보듯이 주격 조사 ‘ㅣ’가 ‘바’와 결합된 것이다.

오답 풀이 ① 중세 국어의 ‘中(동국·국·에)’를 현대어로 풀이하면 ‘중국과’로 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중세 국어에서는 비교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로 ‘에’가 쓰였지만 현대 국어에서는 ‘과’가 쓰임을 알 수 있다.

② 중세 국어의 ‘서로’는 현대 국어와 의미는 같은데 ‘서로’로 형태가 변한 경우이다.

④ 중세 국어의 ‘: 쯔·롤’은 양성 모음 다음에 양성 모음 조사가 결합되었으므로 모음 조화가 지켜진 것이다. 그런데 현대 국어에 와서 모음 조화가 약

해져 ‘자름’과 같이 양성 모음 ‘ㅏ’ 다음에 음성 모음 ‘ㅡ’가 결합되고 있다.

⑤ 중세 국어에서는 ‘: 뽐·메’와 같이 어두 자음군이 사용되었지만, 현대 국어에서는 ‘썸에’로 어두 자음군이 사용되지 않았다.

05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표기하는 가로쓰기를 한 것은 현대 국어이다. 중세 국어는 위에서 아래로 표기하는 세로쓰기를 하였다.

오답 풀이 ① (나)의 내용을 통해 어절 단위로 띄어쓰기를 하는 현대 국어와 달리 중세 국어에서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② (마)의 내용을 통해 중세 국어에서는 현대 국어에서보다 모음 조화가 잘 지켜졌음을 알 수 있다.

③ (나)의 내용을 통해 중세 국어에서는 글자 왼쪽에 방점을 찍어 성조, 즉 소리의 높낮이를 표시했음을 알 수 있다.

⑤ (다)의 내용을 통해 중세 국어에서는 음절 첫머리에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자음이 올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06 〈보기〉에는 음절의 첫머리에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자음이 오는 어두 자음군이 나타나지 않았다. ‘씨’는 같은 두 자음이 온 것이다.

오답 풀이 ① ‘:뽐·씨’의 ‘씨’에서 된소리를 확인할 수 있다.

② 글자 왼쪽에 방점을 찍어 소리의 높낮이를 표시하였다.

③ 현대 국어에서는 사라진 ‘: (아래아)’를 사용하였다.

⑤ ‘기쁜’은 ‘:깁+은’으로, 앞 음절의 끝소리를 뒤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 적는 이어 적기를 하여 ‘기쁜’으로 표기하였다.

07 〈보기〉의 ㄱ은 의미의 축소가 이루어진 단어이고, ㄴ은 의미의 이동이 이루어진 단어이다. 이와 관련된 단어를 ‘세종어제훈민정음 어지’에서 각각 찾으면 ‘: 뉘·과’ : ‘어엿·비’이다. ‘: 뉘’은 중세 국어에서는 ‘보통 사람’을 뜻하는 표현이었지만 현대 국어에서는 ‘남자를 낮추어 가리키는 말’로 의미가 축소되었다. ‘:어엿·비’는 중세 국어에서는 ‘불쌍히’의 뜻이었으나 현대 국어에서는 ‘예쁘게’로 의미가 이동한 경우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어·린’은 중세 국어에서 ‘어리석은’이라는 의미였지만 현대 국어에서는 ‘나이가 어린’이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의미가 이동한 경우에 해당한다.

② ‘:수·빔’은 중세 국어에서 ‘쉽게’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현대 국어에서 형태가 변화한 단어로 볼 수 있다.

④ ‘:말싸·미’의 ‘:말싸’는 중세 국어에서 ‘말’의 의미였지만 현대 국어에서는 ‘말’의 높임말이 되었다. 따라서 의미가 축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쁘·들’의 ‘:쁘’는 ‘뜻’이라는 의미는 그대로인데 현대 국어에서 형태만 변화된 단어이다.

⑤ ‘전·초·로’의 ‘전·초’는 중세 국어에서 ‘까닭’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현대 국어에서 형태가 변화한 단어로 볼 수 있다.

08 중세 국어에서는 앞 음절의 끝소리를 뒤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 적는 이어 적기를 하여 ‘:쁘·들’, ‘:노·미’가 된 것이므로 끊어 적기를 하는 현대 국어에서의 모습은 ‘뽐을’ ㉠, ‘뉘이’ ㉡일 것이다.

09 국어 발전에 참여하는 태도는 국어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 (가)의 1문단에서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국어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외국어나 불필요한 외래어의 사용을 자제하고 고유어와 순화어를 사용해야 하며, 가상 공간에서도 언어 규범에 맞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서술형 평가 기준〉

평가 기준	평가
국어 발전에 참여하는 태도로 국어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 두 가지를 모두 서술하였다.	상
국어 발전에 참여하는 태도로 국어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 두 가지를 제시하였으나 한 문장으로 서술하지 못하였다.	중
국어 발전에 참여하는 태도로 국어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 두 가지 중 한 가지만 제대로 서술하였다.	하

10 통신 언어나 줄임말의 경우는 기존의 언어를 변형하거나 줄여서 쓴 것이므로 기존 단어로 바꾸어 쓰면 된다. 따라서 이러한 말의 사용을 피할 수 없다고 보기는 힘들다.

오답 풀이 ①, ⑤ (가)에서는 가상 공간에서 언어 규범에 맞지 않는 표현을 사용하면 의사소통을 방해할 뿐 아니라 국어의 발전을 가로막는 일이 된다고 하였고, (나)에서는 신조어, 줄임말 등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게 될 경우 기존의 단어가 사장되거나 의사소통의 단절과 혼란을 불러와 우리말의 가치 왜곡과 의사소통의 혼란으로 이어진다고 하였다.

③ 가상 공간에서 줄임말을 사용하면 빠른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줄임말은 가상 공간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형태라고 하였다. 따라서 이런 형태의 언어가 등장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보고 있다.

④ 누리소통망(SNS)과 같은 가상 공간에서 줄임말과 통신 언어를 사용하는 행위는 이미 보편화되어 있다고 하였다.

11 ㉠은 외래어나 외국어를 불필요하게 많이 사용한 경우이고, ㉢은 가상 공간에서 규범에 맞지 않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이다. '저 UCC는 이 영화와 싱크로율이 100%이다.'는 불필요하게 외래어와 외국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의 예로 적절하고 'UCC'는 '손수 제작물'로 바르게 고쳐 썼으나 '싱크로율'은 '완성도'나 '정확도'를 나타내는 말로, '표절'과는 거리가 있다. '싱크로율'은 '일치율'이라는 순화된 말로 고쳐 써야 한다.

오답 풀이 ① '트렌드 세터들이 즐겨 찾는 럭셔리 아이템입니다.'는 지나치게 외래어나 외국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므로 ㉢의 예로 적절하며, 우리말을 사용하여 '유행 선도자들이 즐겨 찾는 고급 상품입니다.'로 바르게 고쳐 썼다.

③ '아메리카노 한 잔 테이크아웃주세요.'는 외래어나 외국어를 불필요하게 많이 사용하고 있으므로 ㉢의 예로 적절하며, 우리말을 사용하여 '커피 한 잔 포장 구매합니다.'로 바르게 고쳐 썼다.

④ '깎기빠빠.'는 기존의 말을 규범에 맞지 않게 줄여 쓴 것이므로 ㉠의 예로 적절하며, 원래 형태대로 '깎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로 바르게 고쳐 썼다.

⑤ '저 사람 고답이야.'는 '고답이(고구마를 먹고 목이 메는 것처럼 답답하게 구는 사람)'라는 줄임말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의 예로 적절하며, 이를 순화하여 '저 사람 딱 막힌 사람이야.'로 바르게 고쳐 썼다.

12 이 시조는 내가 남의 말을 하면 남도 나의 말을 하므로 남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이는 말을 중요하게 여겨 신중하게 말하는 우리나라의 담화 관습을 보여 준다.

13 ㉠에는 자신을 인색하게 대접하는 친구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답을 잡아 안주를 내오라는 자신의 요구를 드러내고자 하는 김 선생의 의도가 담겨 있다.

오답 풀이 ① 친구의 잘못을 친구가 알게 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② 자신의 섭섭한 마음을 친구가 알게 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③ 친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친구에 대한 섭섭한 마음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

⑤ 친구가 가난한 생활을 이유로 자신을 인색하게 대접하는 것에 섭섭함을 느끼고 있으므로 친구의 가난한 생활에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며, 친구의 잘못을 지적하므로 친구를 도와주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없다.

14 여학생은 문제를 틀려 속상해하는 친구에게 직접적으로 잘못을 지적하고 비난하여 감정을 상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친구의 마음이 상하지 않게 돌려 말하며 위로해 주는 말하기 태도가 필요하다.

〈서술형 평가 기준〉

평가 기준	평가
대화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돌려 말하길라는 우리말의 담화 관습을 적용해야 함을 서술하였다.	상
대화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밝혔으나 돌려 말하길라는 우리말의 담화 관습과 연관 지어 서술하지 못하였다.	중
대화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서술하지 못하고 돌려 말하길라는 우리말의 담화 관습만 서술하였다.	하

15 뉴스 진행자는 평론가의 말을 인용하여 출연자가 혁명적 존재였다는 것을 강조하며 칭찬하고 있다(㉠). 또한 출연자는 뉴스 진행자의 칭찬의 말에 '과찬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겸손하게 대답하고 있다(㉢).

오답 풀이 ㉡ 뉴스 진행자는 출연자에게 구체적 수치를 들어가며 질문을 하고 있지 않다.

㉢ 출연자는 뉴스 진행자의 말에 호응하기는 하지만, 말하기 어려운 내용을 돌려서 말하고 있지는 않다.

16 (다)에서 '병, •, △'은 현대 국어에는 없는 음운을 표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이 음운들을 어떻게 발음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① (나)에서 글자 왼쪽에 방점을 찍어 성조, 즉 소리의 높낮이를 표시했다고 하였다.

③ (다)에서 'ㄸ', 'ㅃ'과 같은 어두 자음군은 현대 국어에서 'ㄸ', 'ㅃ'과 같은 된소리로 바뀌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④ (바)에서 중세 국어에 쓰인 어휘 중에는 '서르'나 '어·린'과 같이 형태나 의미가 현대 국어와 다른 것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⑤ (마)에서 중세 국어에는 체언이나 용언 어간의 끝음절 모음이 양성 모음이냐, 음성 모음이냐에 따라 조사나 어미가 달리 선택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17 〈보기〉에 따르면 뜻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하기 위하여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는 방식은 표의주의 표기이다. '•ㅃ•들'은 소리대로 이어 적은 것이므로 표음주의 표기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중세 국어의 이어 적기는 소리대로 적는 것이므로 표음주의 표기에 해당한다.

② '끓어 적기'는 여러 형태소가 연결될 때 그 각각을 음절이나 성분 단위로 밝혀 적는 표기 방식으로, 표의주의 표기 방식에 해당한다.

④ '•노•미'는 앞 음절의 끝소리를 뒤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 적는 '이어 적기'를 따른 것이다. 이를 현대 국어의 어법에 맞도록 적는 원칙을 적용하면 끓어 적기 방식으로 '놈이'라고 표기해야 한다.

⑤ ‘·ㅸ·들’은 소리대로 적는 방식이므로 글을 쓰는 사람이 더 편리한 방식이다. 그에 비해 ‘뽉을’은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는 방식이므로 글을 읽는 사람이 더 편리한 방식이다.

18 <보기>는 중세 국어에서 사용된 어휘 중 형태는 비슷하지만 현대 국어에서 그 의미가 달라진 어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⑤의 ‘어리다’는 중세 국어에서 ‘어리석다’의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현대 국어에서는 ‘나이가 적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②, ③, ④ 현대 국어와 형태가 다르고 의미는 변하지 않은 어휘에 해당한다.

19 ‘:수·빔’는 ‘쉽게’라는 의미를 지닌 부사어이다. 이때 ‘-이’는 현대 국어의 부사형 어미와 같은 의미로 쓰였다.

오답 풀이 ① ‘·바 + ㅣ’로 주격 조사 ‘ㅣ’가 사용되었다.

② ‘·놈 + 이’로 주격 조사 ‘이’가 사용되었다.

④ ‘·말씀 + 이’로 주격 조사 ‘이’가 사용되었다.

⑤ ‘ㅸ·빅·성 + 이’로 주격 조사 ‘이’가 사용되었다.

20 ㉠는 체언 ‘하늘’에 조사 ‘을’이 결합한 것이다. 이는 양성 모음(·, ㅏ, ㅑ)을 가진 ‘하늘’에 음성 모음을 가진 조사 ‘을’이 결합한 것으로, 모음 조화가 지켜지지 않은 예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어간의 모음(ㅡ)과 어미의 모음(ㅡ)이 모두 음성 모음이다.

③ 체언의 모음(ㅏ)과 조사의 모음(ㅡ)이 모두 음성 모음이다.

④ 어간의 모음(ㅏ)과 어미의 모음(ㅏ)이 모두 양성 모음이다.

⑤ 어간의 모음(·)과 어미의 모음(·)이 모두 양성 모음이다.

21 현대어 풀이를 참고할 때 ‘저비’는 현대 국어의 ‘제비’를 의미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대 국어와 형태는 다르지만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어휘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긴녀름’은 현대어 풀이를 참고할 때 ‘긴 여름’임을 알 수 있다. 현대 국어와 달리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있다.

② 현대어 풀이를 참고할 때 ‘아나’는 ‘안아’임을 알 수 있다. 현대 국어와 달리 소리대로 이어 적기를 하고 있다.

③ 어간의 모음(·)과 어미의 모음(·)이 모두 양성 모음으로, 모음 조화 현상이 잘 지켜지고 있다.

④ ‘·, ㅏ’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들 음운은 현대 국어에서 사용되지 않는다.

22 ㉠은 외래어와 외국어를 불필요하게 많이 사용한 예이다. 글 쓰이는 이렇게 국어를 잘못 사용하면 의사소통을 방해하며, 상대방의 기분을 언짢게 하고, 국어의 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하였다.

23 한 사람이 ‘ㅇㄷ?(어디야?)’라고 묻자 상대방이 ‘ㅈ(집)’이라고 대답한 것이나, 또 ‘안나와?(안 나와?)’라고 묻자 상대방이 지금 가겠다고 한 것으로 볼 때 두 사람은 원활하게 의사소통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과도한 줄임말 사용으로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은 사례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집’의 바른 표기는 ‘지급’이고, ‘언능’의 바른 표현은 ‘얼른’이다. 이는 기본적인 맞춤법을 지키지 않은 사례로 볼 수 있다.

② ‘ㅇㄷ?’는 ‘어디야?’를, ‘ㅈ’은 ‘집’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어의 초성만을 표기하고 있다. 이는 음운 하나만 이용하여 표기한 것이므로 과도한 줄임말로 볼 수 있다.

③ ‘안나와?’는 ‘안 나와?’로, ‘언능와.’는 ‘얼른 와.’로 띄어 써야 한다.

④ ‘ㄱㄱ’는 ‘고고’라는 말로 ‘출발한다’ 혹은 ‘나간다’의 뜻을 표기한 것이고, ‘ㅇㅇ’은 ‘응’을 표기한 것이다. 이는 문자를 쉽고 빠르게 입력하기 위해 사용하는 통신 언어이다.

24 딸이 사용한 ‘취존’, ‘마상’과 같은 줄임말은 가상 공간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형태의 언어이고, 엄마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화 상황을 고려하면서 대화 상대방과 원활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표현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엄마와 딸이 얼굴을 보면서 대화하는 상황이므로 가상 공간에서도 언어 규범에 맞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는 방안은 적절하지 않다.

② 딸과 엄마 모두 외래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③ 딸이 줄임말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므로 친밀감을 쌓기 위해 지역 방언을 사용하라는 방안은 적절하지 않다.

④ 딸이 줄임말을 과도하게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언어 규범에 맞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는 해결 방안이 적절하다.

25 (가)의 출연자는 평론가의 말을 빌려 자신을 ‘혁명적 존재’라고 칭찬한 뉴스 진행자의 말에 ‘과찬의 말씀’이라며 겸손하게 대답하고 있다. 또한 (나)의 정연은 말재주가 좋다는 수진의 칭찬에 자신은 말재주가 없다며 겸손하게 대답하고 있다. 이들의 말하기에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갖추면서 자기를 낮추어 말하는 ‘겸손하게 말하기’의 담화 관습이 드러난다.

26 ㉠은 유슬 엄마가 대화 상대인 진목에게 자신이 학원까지 데려다주겠다고 그 의사를 물어본 것으로, 자신의 의도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27 (가)에서 남학생은 성적이 떨어져 힘들어하는 친구의 고민을 무시한 채 자신의 성적이 잘 나왔음을 과시하고 있으며, (나)에서 여학생은 문제를 틀린 친구에게 직접적으로 잘못을 지적하고 비난하여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모두 대화 상대나 상황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말을 삼가고 꼭 필요한 말만 가려서 신중하게 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오답 풀이 ② (가)의 남학생은 자신을 과시하고 있을 뿐 상대방을 비난하지는 않았지만, (나)의 여학생은 상대방을 비난하고 있다.

③ (가)의 남학생은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말만 하고 있지만, (나)의 여학생이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④ (가)와 (나)에서 인물들의 말에는 의견의 차이점이 드러나지 않는다.

⑤ 상대방의 말을 신중하게 판단하여 가려들어야 하는 것 또한 우리가 지켜야 할 담화 관습이지만, (가)와 (나)의 상황에서는 ‘가려들어야 할 말’은 찾을 수 없다.

28 <보기>는 ‘경청하며 가려들기’와 관련된 설명이다. 의사소통 상황에 맞게 청자와 화자의 역할이 원활하게 바뀌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말을 중간에 끊지 말고 귀 기울여 끝까지 잘 듣고, 상대방의 말이 끝난 후에 자신의 말을 시작해야 한다.

시험 직전, 최종 실전 평가

본문 168~174쪽

6. 세상을 바라보는 예리한 눈

01 ⑤ 02 ③ 03 ④ 04 (가)와 (나)는 보령 머드 축제의 긍정적인 면만 소개하고 있고 축제의 문제점과 같은 부정적인 면을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정성이 떨어진다. 05 ③ 06 보령 머드 축제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참여하는 세계적인 축제임을 뒷받침한다. 07 ③ 08 ③ 09 ① 10 ③ 11 ② 12 ② 13 ⑤ 14 ④ 15 ③ 16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시각 17 ③ 18 ㉠과 '마지막 땅'은 모두 강 노인의 땀방울이 묻어 있는 공간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은 계속 존재하는 공간이고, '마지막 땅'은 이제 곧 팔릴(사라질) 공간이라는 점에서 작가는 ㉠을 제시함으로써 강 노인이 처한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19 ⑤ 20 ① 21 ② 22 ④ 23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의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므로 24 ① 25 ④ 26 ⑤

01 인쇄 매체는 주로 문자 언어로 내용을 전달하므로 (가)와 같은 방송 매체와 달리 복잡한 내용을 논리적으로 전달하기가 쉽다. 그러나 (다)는 광고의 특성상 복잡한 내용을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전달하기가 쉽지 않다. 인쇄 광고는 시각적으로 눈에 띄고 사람들의 기억에 남도록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이미지 자료를 주로 활용한다.

오답 풀이 ① (가)는 방송 매체, (나)와 (다)는 인쇄 매체로 모두 정보를 전달하는 이의 관점과 의도가 드러나 있다.

② (나)와 (다) 모두 인쇄 매체이므로 방송 매체인 (가)와 달리 주로 문자 언어로 정보를 전달한다. (가)는 주로 음성 언어, 영상, 자막을 통해 정보를 전달한다.

③ (가)는 방송 매체이므로 인쇄 매체인 (나), (다)와 달리 전파를 이용하여 정보를 전달한다.

④ 신문 기사는 '표제-부제-전문-본문-해설'로 구성되는데 특히 표제와 기사 본문, 사진 등에서 글쓴이의 관점이나 의도가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02 (나)에서 스페인 토마토 축제를 언급하고 있지만 이는 보령 머드 축제를 해외에 전파한 사례로 제시한 것일 뿐 둘을 비교하여 보령 머드 축제의 특징과 장점을 부각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주한 뉴질랜드 대사의 인터뷰를 직접 제시하여 그가 머드 체험장을 찾았다는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② 보령 머드 축제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43만 9,000여 명으로 지난해 30만 4,000여 명보다 약 44퍼센트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통계 자료를 제시하여 보령 머드 축제가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해 가고 있다는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④ 'The 19th Boryeong MUD Festival'과 같이 축제명을 영어로 표기하여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홍보 효과를 의도하고 있다.

⑤ 우리나라 사람과 외국인이 함께 축제를 즐기는 모습은 머드 축제가 세계적인 축제임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054 정답과 해설

03 방향을 맞춘 젊은이들이 머드 축제를 즐긴다는 내용은 (가)에서 주한 뉴질랜드 대사의 말에서만 언급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의 마지막 기자의 말에서, (나)의 보령 시장의 말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가)의 뉴스 진행자의 말과 기자의 마지막 말에서, (나)의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해 왔다.'와 보령 시장의 말 "국내외 언론의 조명을 받는 세계적인 축제로 성장해 왔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가)의 기자의 첫 번째 말에서, (나)의 3문단 '주한 뉴질랜드 대사가 보령 머드 축제장을 찾아'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가)의 기자의 두 번째 말에서, (나)의 1문단 '충남 보령시는 뉴질랜드로 토루아 시와 협약을 체결해 내년부터 5년 동안 머드 원료 등을 수출한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04 공정성이란 내용이 편견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한 것을 의미한다. (가)와 (나)는 축제가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음을 부각하고 많은 외국인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하고 있다며, 보령 머드 축제의 긍정적인 면만 소개하고 있다. 축제에 따르는 부작용이나 문제점, 보완할 점 등의 부정적인 측면은 제시되어 있지 않아 편견에 치우쳐 있으며 따라서 공정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할 수 있다.

〈서술형 평가 기준〉

평가 기준	평가
(가)와 (나)의 내용이 긍정적인 면만 드러나 있어 공정하지 않다고 평가한 내용으로 완결된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상
(가)와 (나)의 내용이 공정하지 않다고 평가하여 썼지만 그 이유를 서술하지 못하였다.	중
(가)와 (나) 중 하나만 공정하지 않다고 평가하거나 〈조건〉에 맞게 서술하지 못하였다.	하

05 기자의 말에서 '내년부터 5년간 머드 원액을 수출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했으므로 수출이 시작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머드 원액을 화물선에 싣고 있는 영상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세계인이 함께하는 보령 머드 축제를 만들어 가겠'다는 보령 시장의 인터뷰가 제시되어 있으므로 보령 시장의 인터뷰 영상을 내보내는 것은 적절하다.

② 보령시가 뉴질랜드와 머드 원액 수출 협약을 체결했다고 했으므로 협약 증서를 담은 영상을 내보내는 것은 적절하다.

④ '보령 머드 축제가 세계적인 축제로 커 가고 있'다는 뉴스 진행자의 말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⑤ 기자의 말 "주한 뉴질랜드 대사가 ~ 머드를 얼굴에 바르며 신기한 듯 미소를 띠었다."를 통해 뉴질랜드 대사가 머드를 체험하고 있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영상을 내보내는 것은 적절하다.

06 (나)에서 보령 머드 축제가 세계적인 축제이고, 축제장에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다고 했으므로, 외국인 관광객의 사진을 제시하면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서술형 평가 기준〉

평가 기준	평가
보령 머드 축제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참여하는 세계적인 축제임을 뒷받침한다고 서술하였다.	상

'외국인', '세계적인 축제'라는 말 중 한 가지만 포함하여 의미는 맞게 서술하였다.	중
'외국인', '세계적인 축제'를 모두 포함하지 않았지만 의미는 맞게 서술하였다.	하

07 ㉠의 앞뒤 문맥을 보면 주한 뉴질랜드 대사가 축제장을 찾아 다양한 색의 머드를 얼굴에 발랐다고 하였다. 따라서 ㉠에는 '그림이나 물건에 물이 들어지거나 색이 칠하여져 빛깔이 나게 됨.'의 의미를 지닌 '착색'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에는 '모임이나 회의 따위를 주최하여 엮.'의 의미를 지닌 '개최'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의 앞뒤 문맥을 보면 보령 머드 축제가 곧 세계적인 축제라는 점을 밝히고 있으므로 ㉢에는 '이름과 실상이 서로 꼭 맞음.'의 의미를 지닌 '명실상부'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 '탈색'은 '섬유 제품 따위에 들어 있는 색깔을 뺌.' 또는 '빛이 바래.'의 뜻을 지닌다.

㉡ '개회'는 '회의나 회합 따위를 시작함. 또는 의회, 전람회, 박람회 따위를 엮.'의 뜻을 지닌다.

㉢ '주최'는 '주창하여 개최함.'의 뜻을 지니는데, 어떤 일 또는 행사에 대하여 계획하거나 최종 결정을 하며 이에 따르는 책임을 질 때 쓰인다.

㉣ '명실불부'는 명실상부와 반대되는 말로 '이름과 실상이 서로 맞지 아니함.'의 뜻을 지닌다.

08 매체를 읽을 때에는 매체에 드러난 글쓴이의 관점이나 표현 방법의 적절성을 평가하며 읽어야 한다. 사진이나 그림과 같은 시각 자료는 매체의 특성에 따라 활용할 수 있으나 이것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전달하려는 내용과 매체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시각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방송, 인쇄, 인터넷 매체 등 각 매체에 적절한 표현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표현 방법을 사용했는지 파악하는 것은 필요하다.

㉡, ㉤ 글쓴이가 어떤 점에 중점을 두어 표현하였는지, 자신의 관점이나 의도를 드러내기 위해 어떤 표현 방법을 사용하였는지 파악해야 그 표현 방법이 효과적으로 쓰인 것인지 판단할 수 있다.

㉣ 글의 주제에 대해 글쓴이가 어떤 관점을 지니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글을 잘 이해했다고 할 수 있다.

09 '구둣발로 대충대충 불더미를 다독거려 놓'는 주 씨의 행위는 불이 다른 곳에 옮겨 불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주 씨가 일처리가 깔끔하지 않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답 풀이 ㉡ (나)의 '강 노인은 언제 보아도 막일꾼 차림새였다.'와 (라)의 '강 노인은 어김없이 허름한 옷차림으로, 맨발 위에 신은 검정 고무신을 끌고'에서 알 수 있다.

㉢ (나)의 '썩썩한 걸음걸이하며 노상 걷어붙인 채인 팔뚝의 꿈틀거리는 힘줄 따위를 보노라면 노인의 나이가 이제 칠순을 코앞에 둔 것이라고 어렵잡기는 좀체 어려웠다.'에서 알 수 있다.

㉣ (다)의 '모종의 사건으로 한재산 다 날리고 달랑 맨손으로 부천에 내려와 ~ 박 씨가 원미동에서 한재산 단단히 붙잡혔다는 사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에서 알 수 있다.

㉤ (다)의 '강 노인 말고는 가장 오래 이 동네에 터를 잡고 있는 가게가 강남 부동산이었으니까.'에서 알 수 있다.

10 (나)의 '그 지주네 밭에서 일어나는 여름과 겨울의 난리판'을 통해 강 노인의 밭 때문에 여름과 겨울에 동네에 소란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 (가)에서 동네 아이들이 하루종일 집 밖에서 뛰어노는 떠들썩한 분위기를 묘사한 것으로 보아 원미동은 소박하고 활기찬 분위기를 지닌 동네임을 알 수 있다.

㉡ (라)에서 강 노인의 아들이 둘 있지만 생활비를 보태 줄 자식은 없다고 하였으나, 이 자식들이 타지에서 어떻게 사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다.

㉣ (라)에서 강 노인은 겨우내 굳어 있던 땅에서 연탄재 부스러기들을 골라 내며 땅을 갈아엎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겨울 동안에는 땅이 얼어 농사를 짓지 못한 것이지 연탄재 부스러기를 골라내느라 농사를 짓지 못한 것은 아니다.

㉤ 땅을 팔지 않겠다는 강 노인의 고집 때문에 개발이 안 된 곳도 있지만, (다)에서 헐값이었던 원미동 땅들이 박 씨 부부의 활약상으로 요 근래 들어 황금값이 되었다는 것으로 보아 원미동의 땅값이 이미 많이 오른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1 강 노인은 땅에서 나는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땅을 팔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며 밭농사에 정성을 쏟고 있다. (라)에서도 몇 억짜리 땅에 고추 농사나 지어서는 이익이 남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으므로, 강 노인이 이득을 얻기 위해 농사를 짓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라)에서 용문이가 연탄재를 거둔 일을 보고는 '요 모양이었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강 노인은 용문이가 일한 것이 마음에 차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라)를 보면 강 노인은 지난 몇 년간 땅을 사겠다는 사람이 있었지만 절대 팔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라)를 보면 강 노인은 원미동 사람들을 '서울 것들'이라 칭하며 땅의 소중함을 모른 채 밭에 연탄재를 내다버린 그들의 행동을 비판하고 있다.

㉤ (라)에서 강 노인은 재박에 안 남은 쓰레기 태운 자리에서 밭에 거름이 될 만하다 싶으면 어떤 것이라도 쓸어 담는다고 한 것으로 보아 짐작할 수 있다.

12 (나)는 강 노인의 외양 묘사가 두드러지는데, '큰 키에 거대한 몸집, 검붉은 얼굴과 유난히 크고 빨간 주먹코, 썩썩한 걸음걸이, 팔뚝의 꿈틀거리는 힘줄, 우렁찬 목소리' 등을 통해, 강 노인이 꾸밈없고 썩썩하며 주관이 뚜렷하고, 당당한 성격을 지닌 인물임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 액자 구조는 이야기 안에 이야기가 들어 있는 구조인데, 이러한 구성은 나타나지 않으며, 단일 구조로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 서술자는 작품 밖에 있으므로 서술자의 내면을 서술하며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지 않다.

㉣ 서술자는 (나)에서 서술되고 있는 강 노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에 있지 않으며 풍자적 서술 또한 드러나지 않는다.

㉤ 이 작품은 1980년대를 배경으로 당시의 사회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지만 (나)에서는 특별한 시대적 배경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사회 현실의 문제 또한 드러나지 않는다.

13 (가)에서는 강 노인이 땅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 땅에 대한 바람직한 인식의 중요성을, (나)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시각과 그에 대한 반성을 통해 외국인들에 대한 바람직한 인식의 중요성을 주제 의식으로 삼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가)는 금전적 이익을 중시하는 주변 인물들을 통해 '욕심'에 대한 경계를 이끌어 낼 수 있지만 (나)에서는 찾을 수 없는 내용이다.
- ② (나)는 '아시안 젊은 남녀'라는 외국인 노동자가 등장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배려'는 적절치 않으며, (가)에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을 찾을 수 없다.
- ③ (가)는 땅을 팔라는 주변 인물들의 태도와 상황이 드러나지만 '극복 의지'를 주제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나)에서는 부정적 현실을 찾을 수 없다.
- ④ (가)에서는 땅의 소중함을 아는 강 노인의 모습이 나타나 있으나 '조화를 이루는 삶'의 추구'를 이끌어 내기는 무리가 있으며, (나)에서는 자연에 대한 내용을 찾을 수 없다.

14 <보기>는 (가) 작품의 일부로, 강 노인에 대한 집주인들의 불만이 드러나 있다. 강 노인의 땅 문제로 강 노인과 동네 사람들 간에 갈등은 발생하지만, 동네 사람들끼리의 갈등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집주인들은 각자 개인의 이익을 얻기 위해 합심하여 강 노인이 땅을 팔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강 노인의 땅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와해되는 중이라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보기>를 보면 집주인들은 도로변의 땅에 푸성귀나 심는 것보다 건물이 들어서서 동네 신수가 환해지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한다.
- ② (가)를 보면 강 노인의 아내는 남은 땅을 팔아 자식들을 돕고 싶어 함을 알 수 있다.
- ③, ⑤ 강 노인은 큰돈을 벌 수 있지만 자신의 땅에 밭농사를 짓고자 하는 것으로 보아 물질적 가치가 아닌 정신적 가치를 중시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큰돈이 들어와도 금방 빠져나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땅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15 강 노인은 과거 원미산에서의 추억을 떠올리고 있는데, 나무하러 술하게 오르내린 기억을 떠올리고 있으므로 땅이 사람들에게 따뜻한 추억을 만들어 준다는 내용과는 관련이 없다.

- 오답 풀이** ① 강 노인이 땅을 팔러 가면서도 밭의 채소에 물을 주려는 것에서 짐작할 수 있다.
- ② '마지막 땅 조각을 붙들고 있다는 위안이 강 노인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에서 알 수 있다.
- ④ '씨를 뿌리고 수확을 거두는 재미만큼은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그였다.'를 통해 알 수 있다.
- ⑤ '씨 뿌린 땅에서 거두어들이는 수확이 아닌 담에야 어찌 땅 팔아서 그 돈으로 쌀 사고 채소 사며 살 수 있을 것인가.'를 통해 알 수 있다.

16 (나)는 지하철에서 마주하게 된 아시안 남녀 곧 외국인 노동자를 친박한 호기심을 가지고 바라본 데에 대한 반성을 담고 있으므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시각'이라는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서술형 평가 기준>

평가 기준	평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시각이라는 문제의식을 정확하게 서술하였다.	상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시각이라는 문제의식을 미흡하게 서술하였다.	중

'외국인 노동자'와 '차별적 인식'이라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미흡하게 서술하였다.	하
--	---

17 (나)는 다문화 시대에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모습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를 다룬 작품이다. 작가는 다문화 사회에서 조화와 공존의 가치를 실천해야 한다는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사회·문화적 가치를 해석하고 평가하여 그것을 작품의 주제로 삼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적 인식과 편견을 버려야 한다는 자신의 관점을 '뽕짝 부끄러웠다'와 같은 반성적 태도로 드러내고 있다.
- ② 화자가 '나'로 표현되어 있어 작가가 직접 경험한 일을 바탕으로 사회·문화적 가치를 부여하여 작품을 생산해 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화자가 '나'로 설정되어 있다고 해도 꼭 작가 자신이 아닐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경험을 재창작했다는 근거도 찾을 수 없다.
- ④ 글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는 우리 사회의 전 세대를 아울러 문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 ⑤ 생활 주변의 경험을 특수하고 함축적 시어가 아닌 평이한 시어와 진솔로 표현하고 있다.

18 강 노인은 원미산 장대봉을 바라보며 젊은 날에 나무하러 술하게 오르내렸던 것을 떠올린다. 즉 원미산은 그의 땅방울이 묻어 있는 산으로, '마지막 땅'과 유사한 의미를 지닌 공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원미산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그 자리에 존재하는 공간이라면 '마지막 땅'은 곧 팔려서 사라질 공간으로 상반된 상황에 놓여 있다. 작가는 이러한 대조적인 상황을 통해 강 노인이 처한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서술형 평가 기준>

평가 기준	평가
①과 '마지막 땅'의 의미상 공통점과 차이점을 모두 밝혀 작가가 얻고자 한 효과를 올바르게 서술하였다.	상
①을 제시하여 작가가 얻고자 한 효과를 올바르게 썼으나 '마지막 땅'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서술하지 못하였다.	중
①과 '마지막 땅'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모두 밝혀 썼으나 작가가 얻고자 한 효과를 미흡하게 서술하였다.	하

19 깃털 색깔이 다른 새 여러 마리가 함께 어우러져 물결을 타고 있는 모습은 외국인 노동자를 차별적 시각으로 바라보며 이들과 동등하지 못하는 화자의 태도와 대비되면서 화자가 자신의 인식에 대하여 반성하게 되므로 화자에게 깨달음을 준다고 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화자에게 자기반성, 성찰의 정서를 유발할 뿐 어떤 대상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유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② 화자를 부끄럽게 하므로 서정적인 분위기를 고조시킨다고 볼 수 없다.
- ③ 화자에게 자기반성의 계기가 될 뿐, 화자가 과거를 떠올리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과거를 회상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④ 색채 이미지는 여러 색깔의 새들이 어우러진 모습을 드러내기 위한 장치이므로 화자의 내면을 나타낸다고 볼 수 없다.

20 강 노인은 당시의 개발 열풍으로 서울에서 밀려 나온 사람들 때문에 원미동까지 땅값이 들쭉거리고, 이 상황에 휘말려 자식들이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자식들이 잘못 큰 원인을 사회적 현상으로 돌리고 있으므로 아내를 원망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② 강 노인은 이전에는 더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으나 많이 처분했고, 또 땅을 팔 상황에 처해 있다. 따라서 허탈한 심정이 들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③ 부동산으로 가던 발길을 다시 밭으로 돌린 것으로 보아 아직 밭에 미련과 애착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④ 원미산 장대봉을 바라보며 오래 산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아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며 회한을 느끼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⑤ 강 노인은 땅을 팔러 부동산에 가다가 밭에서 자라나는 고추 모종, 아욱 등을 보며 목을 축여 줘야겠다는 생각에 다시 발걸음을 돌려 집으로 향한다. 팔기로 결심한 땅이지만 정성을 다하는 것을 통해 땅에서 나는 모든 것에 진실한 애정을 지니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21 (가)에서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소개하고, (나)에서 저출산의 문제점을 분석한 후, 이어지는 (다)~(마)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저출산 현상과 관련된 사례는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그 의의 또한 밝히고 있지 않다.

③ (다)에서 저출산 현상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된 출생률을 높이는 정책에 대한 반론이 제시되어 있을 뿐, 저출산 현상에 대한 통념을 비판하고 있지는 않다.

④ 저출산 현상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을 뿐, 저출산 현상의 양상을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⑤ (다)에서 저출산에 대한 다른 시각이 제시되고 있지만, 이와 비교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다.

22 이 글의 글쓴이는 출생률을 실질적으로 높이려면 신생아 출산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대안으로 들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결혼 적령기층을 대상으로 출산과 결혼에 대한 인식 및 가치관을 변화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오답 풀이 ① 혼인 건수가 출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히며 최근 국내 출산과 혼인 건수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하였다.

② 현재 국내 출생률이 감소하는 추세인데,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추세와 맞물려 있어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저출산과 고령화가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오늘날 일자리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인구를 늘리는 것이 최선의 대안은 아니라는 의견이 있음을 들고 있다. 국내 적정 인구의 규모를 오늘날에 맞게 정확히 계산하여야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의 당위성이 확보될 것이라 하였다.

⑤ 젊은 여성 직장인들이 결혼과 출산을 꺼리고 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육아로 인해 발생하는 경력 단절을 우려해서라고 하였다.

23 (다)의 ‘국제 경쟁력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도 ~ 정책의 당위성도 확보될 것이다.’를 통해 적정 인구의 정확한 계산이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의 당위성 확보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서술형 평가 기준〉

평가 기준	평가
㉠의 이유를 〈조건〉에 맞게 정확하게 서술하였다.	상
㉠의 이유를 제시하였으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서술하였다.	하

24 글쓴이는 출생률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방안으로 신생아 출산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새로운 육아 문화를 이루어야 한다며 크게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 중 다자녀 가정의 행복을 알리는 데 힘써야 한다는 것은 신생아 출산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안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② 글쓴이는 새로운 육아 문화로 각 지역이나 기업 단위로 공동 육아 시설을 확충하여 사회 전체가 육아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③ 글쓴이는 새로운 육아 문화의 하나로 육아 도우미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④ 글쓴이는 남녀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현재 여성이 지고 있는 육아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이러한 육아 문화가 서둘러 정착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⑤ 남녀 모두 육아 휴직을 편히 쓰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새로운 육아 문화의 한 가지이다.

25 독자는 읽기를 통해 자신이 속한 사회에 참여하고 사회 구성원들과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 이를 읽기를 통한 사회적 상호 작용이라고 한다. 먼저 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읽을 사회적 문제나 성찰할 만한 삶의 문제를 다룬 글이나 책을 선정하여 읽고(ㄷ) 글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에 대한 글쓴이의 대안을 찾으며 읽는다(ㄹ). 그리고 나서 자신이 속한 구체적 상황과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글에서 다루고 있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형성한다(ㄱ). 그 뒤에 다른 사람들과 책 내용을 공유하고 소통하며(ㄴ) 문제 해결을 위한 최적의 대안을 찾도록 한다(ㄴ).

26 사회적 이슈를 다룬 글을 읽고 다른 사람과 의견을 공유하는 활동을 통해 독자는 자신이 사회의 일원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 문제를 제기한 글쓴이에게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은 선택 사항일 뿐 이러한 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장점이라고 할 수는 없다.

오답 풀이 ①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에서 나아가 여론을 형성할 수도 있다.

② 책이나 글에서 다루고 있는 사회적 이슈를 살펴보고 자신이 속한 사회의 문제를 파악할 수 있다.

③ 독자는 책이나 글을 읽고 글쓴이의 생각과 비교해 보며, 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형성할 수 있다.

④ 사회 구성원들과 서로 의견을 나눔으로써 크고 작은 영향을 주고받으며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낼 수 있다.

7. 설득이라는 이름의 창과 방패

본문 176~178쪽

01 ⑤ 02 ④ 03 ② 04 교차 조사, 질의응답 05 ④
06 ③ 07 ① 08 (나)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이 자료를 통해 일반인의 심폐 소생술 실시율과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의 관계를 한눈에 쉽게 알 수 있으며, 심폐 소생술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다. 09 ⑤ 10 ② 11 ① 12 ㉠은 고당류 음료를 ‘무설탕’이라고 홍보하면서 ‘액상 과당’을 사용하는 것을, ㉡은 응급 환자를 목격한 상황을 의미한다.

01 토론은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 타당성 있는 근거를 들어 가며 자신의 주장을 내세워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상대방의 주장이나 근거가 지닌 약점을 지적하면서 자기의 주장이 옳음을 밝히 나가는 말하기이다. 합의나 협력을 통해 쟁점을 풀어 가고 문제를 해결하는 말하기는 토론이 아닌 토의이다.

오답 풀이 ① 토론은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말하기이다.
② 토론은 반드시 토론자가 논제에 대해 찬반 양측으로 나뉘어 의견을 달리해야 한다.
③ 토론자는 토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논제에 따라 쟁점을 선정하고, 쟁점별로 논증을 구성하여 토론에 참여해야 한다.
④ 토론은 정해진 절차와 규칙에 따라야 하며, 사회자의 진행하에 이루어진다.

02 ㉡에는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리면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가 들어가야 한다. 반대 2는 유럽 의회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하며 특정 성분의 가격 상승이 결과적으로 더 해로운 성분의 소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근거를 들고 있다. 따라서 ㉡에는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리면 당보다 더 해로운 성분의 소비가 증가할 수 있다.’가 들어가야 한다.

오답 풀이 ①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리면 더 해로운 성분의 소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에는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리는 것이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가?’라는 쟁점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②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리면 더 해로운 성분의 소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에는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려도 별다른 이익이 없다.’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③ 반대 측의 입론 과정이기 때문에 쟁점에 반대하는 주장이 들어가야 하므로, ㉡에는 ‘비만보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음주와 흡연이다.’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⑤ 반대 2는 비만보다 음주와 흡연의 사회 경제적 비용이 더 많다는 사실을 건강 보험 정책 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비만보다 음주와 흡연이 더 많은 사회 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에 들어갈 근거로 적절하다.

03 찬성 2는 ‘우리나라도 고당류 음료에 부과된 세금을 국민 건강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한다면, 이 또한 국민에게 이로운 일이 되지 않을까요?’를 통해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리는 정책으로 거두어들이는 세금이 국민 건강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되는 기대 효과를 가정하며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리는 것이 국민에게 이익이 된다는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찬성 2는 고당류 음료에 부과된 세금을 국민 건강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할 때의 기대 효과를 제시하며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을 뿐,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③ 반대 2는 고당류 음료에 부과된 세금이 직접적으로 국민 건강을 위해 쓰일지는 확인할 수 없으며 세금의 징수와 집행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국민 건강을 위한 예산을 꼭 고당류 음료에 부과된 세금을 통해 마련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윤리적 차원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④ 반대 2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찬성 2가 주장하는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⑤ 찬성 2는 설탕 세를 통해 얻은 세금을 국민 복지를 위해 사용하는 프랑스와 영국의 사례를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서 이와 같이 우리도 고당류 음료에 부과된 세금을 국민 건강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한다면 국민에게 이로운 일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에 반대 2는 이러한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므로 찬성 2와 반대 2가 모두 설탕 세와 관련된 정책이 성공적이라는 데에 동의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4 이 토론은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입론할 때 상대측의 토론자가 교차 조사를 하고 반론으로 넘어가는 교차 조사식 토론이다. 교차 조사는 입론을 마친 토론자를 대상으로 상대측 토론자가 질의응답 형식으로 입론 내용을 검증하는 단계이다.

05 이 말하기는 토론으로, 상대측 토론자의 주장에 대해 근거를 들며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것은 토론자의 역할이지 사회자의 역할이 아니다.

오답 풀이 ① 상대측에 대한 예의를 갖춘 언행은 토론자가 반드시 지녀야 할 태도이다.

② 토론자는 상대측과 배심원을 설득하기 위해 분명하고 효과적인 표현으로 주장을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

③ 청중은 주장의 타당성과 정당성, 근거의 신뢰성 등을 판단하며 능동적으로 들어야 한다.

⑤ 배심원은 토론자의 주장이 이치에 맞고 합리적인가를 면밀하게 살펴본 후에 판정을 내려야 한다.

06 (가)에는 심폐 소생술을 실행하여 어머니를 살린 고등학생의 사례가 제시되어 있고, (나)에는 질병 관리 본부의 자료를 인용하여 구체적인 수치 자료를 통해 일반인들이 실시하는 심폐 소생술 비율이 매우 낮음을 전달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 사례와 통계 수치는 이 글을 쓸 때 수집된 자료라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전문가의 견해는 해당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에서는 심폐 소생술로 가족을 구한 사례, 심폐 소생술의 중요성, 심폐 소생술 교육의 방법 및 효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심폐 소생술을 배우자라는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② 이 글은 지역 신문이라는 인쇄 매체에 적합한 내용과 형식을 취하고 있다.

④ 이 글은 지역 신문에 실린 글로서 지역 사람들에게 심폐 소생술을 배우자고 설득하고 있다.

⑤ 이 글은 심폐 소생술을 배우자고 설득하는 글이므로 아직 심폐 소생술을 배우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관심을 보일 만한 사람들이 예상 독자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심폐 소생술에 대한 배경지식은 부족하지만 건강과 안전에 관심이 많은 우리 지역 사람들’은 예상 독자라 보기에 적절하다.

07 (가)가 질문과 구체적인 사례를 담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 내용만으로 독자의 태도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가)에 쓰인 질문과 구체적인 사례는 화제에 대한 독자의 흥미를 끌기 위한 글쓰기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

058 정답과 해설

오답 풀이 ② 일반인의 심폐 소생술 실시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도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심폐 소생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③ 심폐 소생술에 대한 배경지식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심폐 소생술 교육이라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④ ‘유사한 상황이 생겼을 때 당황하지 않고 심폐 소생술을 실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와 같이 심폐 소생술 교육의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⑤ ‘~ 응급 환자를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다면 그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는 가정을 통해 심폐 소생술을 배워야 한다는 글쓴이의 주장에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08 <보기>는 일반인의 심폐 소생술 실시율의 증가에 따른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의 증가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따라서 일반인이 실시한 심폐 소생술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도 함께 증가한다는 내용이 있는 (나)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이 자료가 (나)에 들어가면 일반인 심폐 소생술 실시율과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의 관계를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어 심폐 소생술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다.

<서술형 평가 기준>

평가 기준	평가
<보기>가 들어갈 부분 및 시각 자료상의 효과와 심폐 소생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내용상 효과를 모두 정확하게 서술하였다.	상
<보기>가 들어갈 부분을 제시하였지만, 내용상 효과는 제시하지 못하고 일반적인 시각 자료 활용의 효과만을 서술하였다.	중
<보기>가 들어갈 부분만 제시하였고, <보기>를 추가했을 때의 효과는 제대로 서술하지 못하였다.	하

09 ㉠은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어 신뢰성이 떨어진다. 이것을 ‘우리 학교 선생의 말’로 고쳐 쓴다고 해도 친구의 말과 같이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에 불과하므로 신뢰성이 떨어져 근거로 사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이 부분을 삭제하고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근거로 사용하여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④ ㉠은 우리나라의 일반인의 심폐 소생술 실시 비율에 대한 정확한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고 ㉡은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를 근거로 사용하여 ㉠과 ㉡ 모두 신뢰도가 떨어지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②, ③ ㉠은 비율이 ‘매우 낮음’이라고만 제시하고 있는데, 앞부분의 다른 나라의 비율과 비교할 수 있도록 정확한 수치로 나타내어야 신뢰성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10 (가)는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리면 식품 회사의 편법을 막을 수 있고 소비자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며, 특히 고당류 음료를 많이 소비하는 청소년들에게 그 효과가 더욱 확실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의 기대 효과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수치화하여 나타내고 있지는 않다. 또한 비만 학생 비율 추이를 그래프로 보여 주고 있는데, 이는 문제점과 관련된 내용이지, 주장에 대한 기대 효과와는 관련이 없다. (나)는 ‘유사한 상황이 생겼을 때 당황하지 않고 심폐 소생술을 실행할 수 있을 것

이다.’라는 부분이나, 마지막 부분에 심폐 소생술을 배우면 위급 상황에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부분에서 심폐 소생술을 배우자는 글쓴이의 주장에 대한 기대 효과가 나타나 있다. 그러나 이를 수치화하여 나타내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가)는 초·중·고교 비만 학생 비율 추이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활용하고 있으나, (나)에서는 시각 자료를 활용하고 있지 않다.

③ (나)는 ‘응급 환자를 보고 있을 수밖에 없다면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에서 감성에 호소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가)는 사실에 근거하여 주장을 펴고 있다.

④ (가)는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리자는 주장과 그에 따른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고, (나)는 심폐 소생술을 배우자는 주장을 타당한 근거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⑤ (가)는 비만이 심각한 사회 문제라는 점을 들어 독자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나)는 심폐 소생술을 모르면 응급 환자가 있어도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들어 독자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11 (가)에서 찬성 1은 비만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는 현실 속에서 식품 회사의 편법을 막고 청소년의 고당류 음료 소비를 줄이기 위해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리자는 주장하고 있다. 식품 회사들이 ‘무설탕’이라고 홍보하는 것은 소비자들의 설탕에 대한 거부감을 피하기 위해서이므로 ㉠은 (가)를 반박할 수 있는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② 식품 회사의 편법을 막기 위해 반드시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려야 할 당위성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가)에 대해 반박하는 의견이 될 수 있다.

③ 비만의 원인을 당 때문으로 한정할 수 없고 염분 등도 지나치게 섭취할 경우 건강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가)에 대해 반박하는 의견이 될 수 있다.

④ 비만의 원인을 당 때문으로 한정할 수 없으므로 (가)에 대해 반박하는 의견이 될 수 있다.

⑤ 당의 소비량 증가와 비례하여 비만율이 증가했다는 것일 뿐 둘 사이의 인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제시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가)에 대해 반박하는 의견이 될 수 있다.

12 ㉠은 식품 회사에서 설탕에 대한 거부감을 피하고자 고당류 음료를 ‘무설탕’이라 홍보하면서 그 안에 ‘액상 과당’을 사용하는 것을, ㉡은 문맥을 고려할 때 ‘응급 환자를 목격한 상황’을 의미한다.

<서술형 평가 기준>

평가 기준	평가
㉠과 ㉡이 의미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조건)에 맞게 정확하게 서술하였다.	상
㉠과 ㉡이 의미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였으나, 한 문장으로 서술하지 못하였다.	중
㉠과 ㉡이 의미하는 바를 하나만 정확하게 서술하였다.	하

8. 삶 속에 흐르는 한국 문학의 강

본문 181~185쪽

- 01 ③ 02 ③ 03 특정 시구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노래의 흥을 돋움. 각 연을 분절하고 각 연마다 반복되어 구조적 통일성과 안정감을 줌. 'ㄹ, ㅇ' 음을 통해 밝고 경쾌한 느낌을 줌.
04 ⑤ 05 ④ 06 ⑤ 07 ④ 08 ② 09 ① 10 ①
11 ⑤ 12 ⑤ 13 ③ 14 ② 15 ④ 16 ④ 17 ③
18 ④

01 이 시가는 고려 시대 민중들이 내우외환의 혼란한 현실에서 새로운 세계를 지향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불렀던 고려 가요이다. 어려운 한자어를 사용하여 고통스러운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은 사대부가 주 창작층인 한시나 시조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현실을 벗어나 새로운 세계를 지향하고자 하는 데서 창작 당시 화자가 괴롭고 힘든 상황에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② 이 시가는 고려 시대에 창작되어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다가 한글 창제 이후 악서에 기록되었다.

④ 전체 8연으로 각 연이 하나의 주제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상황과 정서가 나열된 분연체 형식으로 구성된 노래이다.

⑤ 고달픈 현실 속에서 민중들의 삶의 애환을 다룬 내용으로 보아 민중이 창작하고 향유하며 불렀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02 이 시가의 화자가 속세를 떠난 좌절한 지식인이라고 할 때 화자가 '물 아래'로 '가던 새'를 본다는 것은 속세에 대해 미련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화자가 속세로 되돌아갈 방안을 찾고 있다는 내용으로 이해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지나친 비약이라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② 이 시가의 화자가 유랑민이라고 할 때 '가던 새'는 '갈던 새' (밭이랑)에서 'ㄹ'이 탈락한 것으로 보아 농토를 잃은 유랑민의 밭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때 '임 무슨 장굴'은 이끼 묻은 쟁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땅을 일고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된 유랑민의 상황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④ 이 시가의 화자가 좌절한 지식인이라고 할 때 8연은 현실의 시름을 달래기 위해 술을 마시며 지내는 지식인의 체념적 태도를 보여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⑤ 이 시가의 화자가 이별한 여인이라고 할 때 '가던 새'는 화자를 버리고 떠난 임으로 볼 수 있으며, 8연의 내용도 술이 임을 붙잡는다고 해석하여 술에게 임을 빼앗겼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03 이 시가의 후렴구는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로 각 연마다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후렴구는 고려 가요의 형식적 특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각 연을 나누는 역할을 하며, 각 연마다 반복되어 구조적인 통일성과 안정감을 준다. 또한 특정 시구가 반복되어 운율을 형성하고, 노래의 흥을 돋우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ㄹ, ㅇ' 음이 사용되어 밝고 경쾌한 느낌을 준다.

〈서술형 평가 기준〉

평가 기준	평가
후렴구의 기능을 세 가지 이상 정확하게 서술하였다.	상
후렴구의 기능을 두 가지만 정확하게 서술하였다.	중
후렴구의 기능을 한 가지만 정확하게 서술하였다.	하

04 화자가 마지막 8연에서 술을 마시는 것은 고통스러운 현실에 체념하고 삶의 고뇌와 시름을 잊고자 하는 행동이므로 의지적인 태도가 드러난다고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멀위랑 두래'는 청산에서 먹을 수 있는 소박한 음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와 대응하는 것은 6연의 '누 무자기 구조개'이다.

② '새'는 화자와 함께 우는 동병상련의 존재로, 감정 이입의 대상이다.

③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없는 밤은 화자에게 절대적인 고독을 느끼게 하는 시간이다.

④ '돌'은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운명을 의미하는 것으로, 돌에 맞은 화자는 의지와는 상관없는 운명에 좌절하고 체념하여 울고 있는 것이다.

05 이 시가에서 '강수'는 술을 의미하는 시어로, 화자가 현실의 괴로움을 잊기 위한 도구라고 할 수 있다. 〈보기〉에서는 화자가 세상 사람들을 모두 취하게(행복하게) 만든 다음에 다시 술을 즐기겠다고 하고 있으므로 여기서의 '술'은 관찰사로서의 화자의 포부를 드러내는 소재로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보기〉의 화자는 현실적 삶에 대한 고뇌와 비애를 느끼지 않고 있다.

② 이 시가의 화자는 현실의 괴로움을 잊기 위해 술을 마신다. 따라서 술을 동경하는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할 수 있게 해 주는 소재로 볼 수 없다. 〈보기〉의 화자도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한 삶을 소망하고 있지 않다.

③ 〈보기〉의 화자에게 '술'은 유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 시가의 화자가 '강수'를 통해 속세에 마음을 붙이고자 한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⑤ 이 시가의 화자는 평민이나 좌절한 지식인 정도로 볼 수 있으므로 백성에게 대한 사랑을 언급할 정도의 위치에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보기〉에서 화자는 좋은 것(술)을 백성들과 나누고 싶어 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데, 이를 통해 볼 때 화자의 애민 정신을 드러내는 소재는 〈보기〉의 '술'이다. 또한 〈보기〉에는 갈등의 요소가 드러나 있지 않다.

보기 작품 이해하기 정철, 「관동별곡」

주제: 관동 지방의 절경 유람과 연군, 애민의 정

감상: 이 가사는 작가가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하면서 관동 팔경과 해금강 등을 둘러보고 여행의 경로와 풍경을 소개하며 자신의 감흥을 노래한 작품이다.

06 (가)에서는 '세한 고절'은 '너'라고 하며 대나무를 의인화하고 있다. (다)에서는 '파리, 두터비, 백송골'을 의인화하여 당대 세태를 보여 주고 있다. 그런데 의인화를 통해 대상을 화자와 동일시하는 것은 (가)뿐이다. (가)는 대나무를 의인화함으로써 대나무를 높은 절개를 지닌 존재로 형상화하여 화자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눈'의 흰색과 '푸른소냐'의 푸른색에서 색채의 대비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서리서리', '구비구비'에서 음성 상징어를 확인할 수 있다.

③ (다)의 종장에서 화자를 두꺼비로 전환하여 두꺼비의 독백을 인용하는 방법으로 사상을 전개하고 있다.

④ (다)에서는 파리에게는 기세등등하다가 백송골에게는 놀라 자빠지는 두꺼비의 행동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며 해학적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07 '두터비'가 두엄 아래 자빠지는 것은 '백송골'을 보고 놀라서 한 행동이므로 민중의 강한 저항에 의해 무너지는 권력자의 모습과는 관련이 없다. 오히려 자신보다 높은 권력자 앞에서 무너지는 또 다른 권력자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두터비’는 파리를 괴롭히는 지배 계층으로 탐관오리에 해당한다.

- ② ‘파리’는 ‘두터비’에게 괴롭힘을 당한다는 점에서 힘없는 백성을 의미한다.
③ ‘두터비’가 ‘백송골’을 보고 놀라는 데서 ‘백송골’이 ‘두터비’보다 힘센 권력을 지닌 존재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백송골’은 중앙 관리나 외세를 의미한다.
⑤ ‘두터비’가 놀라 자빠진 것이면서, 자기가 아니었다면 명이 들 뻔했다고 말하는데, 이는 자신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 자기를 합리화하며 허세를 부리는 것이다.

08 ㉠은 굵어질 절개면 대나무가 눈 속에서도 푸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설의적 표현을 통해 강조함으로써 대나무의 절개와 지조에 대한 화자의 확신을 나타내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대나무에 대한 연민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나무의 절개에 대해 예찬하고 있는 것이다.
③ 의문문을 사용하고 있지만, 염려나 불안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화자의 확신이나 의지를 강조하여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④ 화자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거나 회개하고 있지 않으며, 대나무를 통해 고려 왕조에 대한 절개를 지키겠다는 자신의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⑤ 화자는 한겨울 추위도 이겨 내는 높은 절개를 지닌 대나무에 자신을 빗대어 고려 왕조에 대한 지조를 끝까지 지키겠다는 자신의 굳은 의지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화자가 지향하는 바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낸다고 할 수 없다.

09 ㉠은 추상적 관념인 ‘밤’을 마치 베어 내고 붙일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으로 나타냈다는 점에서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에 해당한다. ㉠에서도 ‘시간’이라는 추상적 관념을 ‘뿔뿔 / 배암의 포아리를 틀고 있’는 구체적 사물로 표현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② ‘고와서 서러워라.’는 표면적으로 모순되는 표현이므로 역설적 표현이 사용된 것이다.
③ ‘같은’, ‘가듯’을 통해 직유법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가을밤같이’에 직유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울음을 ‘차게’라는 촉각적 심상으로 표현한 청각의 촉각화가 나타나 있다.
⑤ 흰 나비를 ‘그’라고 표현한 것에서 의인법을 확인할 수 있으며, ‘흰 나비’에서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다.

선택지 작품 맛보기

① 신동집, 「오렌지」

주제: 존재의 본질 파악에 대한 소망

감상: 오렌지를 통해 존재의 본질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제시함으로써 사물의 본질에 닿을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하는 작품이다.

② 조지훈, 「승무」

주제: 세속적 번뇌의 종교적 승화

감상: 불교의 춤인 ‘승무’를 통해 세속적인 삶의 번뇌를 종교적으로 승화시키는 모습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③ 이상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주제: 국토를 빼앗긴 민족의 비통한 현실

감상: 국권을 상실한 민족의 비극적인 현실과 새로 찾아온 봄의 아름다움을 대비시키며 국권 회복에 대한 염원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④ 백석, 「여승」

주제: 여인의 비극적인 삶

감상: 일제 강점기에 가난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가족이 해체되어 여승이 된 한 여인의 비극적인 삶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이다.

⑤ 김기림, 「바다와 나비」

주제: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동경과 좌절감

감상: 새로운 세계를 동경했던 화자가 냉혹한 현실을 인식함으로써 좌절감을 맛보게 된다는 내용의 작품이다.

10 ㉠은 정든 임이 오시면 베어 이불 속에 넣어 두었던 시간을 이어 붙여서 임과 함께하는 짧은 밤을 길게 늘리고 싶다는 화자의 의도를 나타낸 표현이다.

- 오답 풀이** ② 임이 화자에게 어떤 생각이나 오해를 가졌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다.
③ ㉠은 임을 만난 이후의 일에 관한 내용이다.
④ 이별한 임을 그리워하고 만나기를 소망하고 있지만, 화자가 직접 임을 찾아 나선다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⑤ 임과의 인연을 이어 가고 싶은 마음은 드러나 있지만, 임과 함께 보냈던 시간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은 아니다.

11 이 글에서는 세월이 보국의 애첩을 죽인 일로 인해 부부 사이인 세월과 보국의 갈등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은 나타나지 않는다.

- 오답 풀이** ① (나)에서 남편의 수장이 올린 장계의 내용을 통해 나라가 위기에 처하게 된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② 보국이 “장부가 되어 계집에게 팔시를 당할 수 있겠나이까?”라고 말하는 것에서 가부장적 가치관이 드러나고 있다.
③ 이 글은 여성인 세월을 주인공으로 하여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④ 전지적 작가 시점에 의해 인물과 사건이 서술되고 있다.

12 이 글에는 보국보다 세월의 능력이 모든 면에서 우월하게 그려져 있으나 이는 당시 남존여비 사상에 대한 여성들의 높아진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여성의 능력이 남성보다 뛰어난 경우에도 국난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여성의 능력으로 국난을 극복한 사례가 많았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보국에게 첩 영춘이 있었다는 것으로 보아 당시 사회가 첩을 두는 것을 허용했음을 알 수 있다.
② 보국이 여자인 세월의 부하가 되어 세월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사실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에서 가부장적 사고를 지닌 인물임을 알 수 있다.
③ 다른 여성 영웅 소설들과 달리 이 글에서 세월은 여자임이 드러났음에도 벼슬을 유지하게 된다. 이는 당시 여성들의 남녀평등 및 사회적 자아실현 의식을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④ 천자가 “평국이 전날에는 세상에 나왔으므로 불렀지만 지금은 규중에 있는 여자니 차마 어찌 불러서 전장에 보내겠는가?”라고 말하는 것에서 당시에는 여성의 사회 활동에 제약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3 여공은 예전에 세월을 구출한 조력자이기도 하면서 보국의 아버지이다. 보국이 세월에 대해 불만을 갖자 보국보다 뛰어난 세월

의 능력과 영혼의 잘못 등을 들어 아들을 혼계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여공은 보국의 말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하는 뜻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② 보국이 행한 업적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보국에게 계월에 대한 부부의 도리를 다하라고 조언하고 있는 것이다.

④ 갈등하는 보국과 계월 두 입장의 타협점을 모색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계월의 입장을 중심으로 보국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⑤ 보국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며 계월과 갈등 상황에 놓이지 말 것을 충고하고 있다.

14 ①은 오왕과 초왕의 침입을 알리는 글로서 국가적 위기에 봉착한 상황을 나타낸다. 천자가 이를 보고 계월을 부르고 있으므로 ①은 계월이 규중에 머물러 있다가 다시 사회로 진출하는 계기가 됨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계월과 보국이 오해한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다. 장계를 받은 천자에 의해 출정한 계월이 보국의 목숨을 구하는 사건으로 인해 보국이 계월을 무시했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 하나 오해로 인한 것은 아니다.

③ 장계를 통해서도 장계를 받고 전장에 나가서도 계월이 보국에 가졌던 못마땅했던 감정이 풀리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으며, 제시된 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없다.

④ 계월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 출정한다든지 하는 등의 행동을 후회하는지는 이 글을 통해 알 수가 없다.

⑤ 장계로 인해 여공이 계월에 대해 어떤 확신이나 신뢰를 가지게 되는지는 이 글을 통해 알 수가 없다.

15 ①에서 천자는 계월의 처지를 생각해서 부르기를 주저하고 있다. 즉 천자는 계월이 과거와 달리 혼인을 해 가정에 있는 처지를 두고 계월을 불러들이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천자가 과거와 현재의 계월의 처지가 달라졌으므로 계월을 부르기가 망설여진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여공이 계월을 전장에 보내지 않는다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으며, 여공은 계월의 사회 활동이나 뛰어난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② 혼인 후 계월의 힘이 약해졌다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으며, 천자는 계월이 규중에 있는 여자라서 부르기를 주저하는 것이다.

③ 천자는 계월의 능력이 뛰어남을 인정하여 전장에 보내 나라의 위기를 해결하려는 것이지, 보국을 부를 생각으로 계월을 부르기를 주저하는 것은 아니다.

⑤ 천자가 계월과 보국의 사이가 나쁜 상태인지를 알고 있다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으며, 또한 이로 인해 계월을 부르기를 주저하는 것은 아니다.

16 전장에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전쟁의 긴박한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 환상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계월이 남편 보국과 갈등을 겪는 것이나, (다)에서 목숨을 걸고 적과 싸우는 전장의 상황 등에서 계월이 겪는 위기 상황이 나타나 있다. 한편 (다)와 (라)에서 계월이 적을 무찌르고 천자를 구해 낸 부분에서 위기의 극복을 확인할 수 있다.

② (다)에서 주인공인 계월과 적장인 맹길의 대결과 맹길이 패하는 과정이 나타나 있다.

③ 전장에 나가 적들을 물리치고 천자와 나라를 구하는 계월의 여성 영웅으로서의 뛰어난 활약상이 나타나 있다.

⑤ (라)에서 천자가 계월에게 만 리 변방에서 어찌 알고 자기를 구했다는 질문에 대해 계월이 천자를 구하려 오기까지의 경위를 압축적·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17 계월이 하룻밤 사이에 황성에 다다른 장면은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고전 소설의 전기적(傳奇的) 특성이 드러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장면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작품에 현실성을 부여하는 효과가 있다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나)에서 계월이 여공을 우연히 만나는 장면은 고전 소설의 특징인 우연성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② (나)에서 계월이 천기를 살피다가 천자의 위태로움을 직감하고 천자를 구하기 위해 홀로 떠나는 장면은 계월의 영웅적 면모를 부각하는 장치로 볼 수 있다.

④ (다)에서 전장의 위태로운 상황을 묘사하여 극적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⑤ 계월의 비범한 능력으로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는 설정은 남성의 권위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기존의 여성 영웅 소설의 한계를 탈피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18 대원수가 되어 남편인 보국을 부하로 부리는 것이나 보국의 속 좁음을 비난하는 장면 등에서 계월이 가부장적 가치관을 따르지 않는 인물임을 알 수 있고, 장부가 부인의 말을 들으면 이익이 적고 암탉이 새벽에 우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등의 말에서 사 씨가 가부장적 가치관을 옹호하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계월이 남자가 되지 못한 것이 분해 눈물을 흘리며 세월을 보냈다고 하는 것을 통해 볼 때 여성으로서의 삶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사 씨는 여성으로서의 삶 안에서 유교적 가치를 충실히 받아들이고 있는 인물이다.

② 계월이 자신이 보국보다 능력이 우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국에게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무시당하는 것을 한탄하는 것으로 볼 때 계월은 성별의 구분 없이 능력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 씨의 경우 사 씨가 성별에 따른 능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추측할 만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다. 다만 사 씨는 여성을 수동적인 존재로 인식하여 여성이 사회 활동을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계월은 가부장적 가치관과 같은 유교적 가치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나, 천자에게 충성을 다하는 등 유교적 이념인 충군 사상은 따르고 있으므로, 모든 유교적 가치를 따르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다. 사 씨는 가부장적 가치관을 옹호하고 있으므로 유교적 가치를 중시함을 알 수 있다.

⑤ 계월은 가부장적 가치관을 지닌 남편 보국에게 무시당하면서 자신이 남자가 되지 못한 것에 분해하는 것으로 볼 때 세상을 지배하는 남자의 역할에 관심을 두고 있으므로 평등한 인간관계를 추구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9. 우리 말과 글의 역사 위에서 미래를 보다 본문 187~190쪽

01 ④ 02 ② 03 ② 04 ① ‘무·춤·내’는 현대어로 ‘마침내’인데, ⑤은 모음 조화가 잘 지켜진 단어인 데 반해, 현대어 ‘마침내’는 모음 조화가 지켜지지 않은 단어이다. 05 ⑤ 06 ⑤ 07 독특한 모양과 화려한 색상이 돋보이는 이 상품은 이미 많은 유명 인사가 선택한 최신 유행 상품입니다. 08 ⑤ 09 ④ 10 ④ 11 ② 12 ⑤의 뜻은 ‘가루는 체에 칠수록 고와지지 만 말은 길어질수록 거칠어져 시비가 붙을 수 있고 마침내는 말 다툼까지 할 수 있다.’이다. 이를 통해 꼭 필요한 말만 가려서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교훈을 드러내고 있다. 13 ③ 14 ① 15 ③ 16 ④ 17 ②

01 ‘ㅍ·들’, ‘ㅍ·뭉·뭉’을 통해 중세 국어에서 어두 자음군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어두 자음군은 현대 국어에서 된소리로 바뀌었다.

오답 풀이 ① 중세 국어에는 현대 국어에서는 쓰이지 않는 ‘ㅇ(옛이음), ㅎ(여린하음), ㅃ(순경음 비음), ㅅ(아래이)’ 등과 같은 글자가 존재하였다.
② 중세 국어에서는 조사나 어미가 결합할 때 모음 조화 현상이 잘 지켜졌다.
③ 중세 국어에서는 글자의 왼쪽에 방점을 찍어 성조, 즉 소리의 높낮이를 표시하였다.
⑤ 중세 국어에서는 앞 음절의 끝소리를 뒤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 적는 이 어 적기를 하였다.

02 (가)는 한글을 창제한 세종 대왕이 한글 창제의 목적과 정신을 직접 밝힌 글로, 한글의 제자 원리는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가)에는 백성들이 문자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한글을 창제했다는 창제의 목적이 나타나 있다.
③ (가)는 15세기의 중세 국어의 특징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자료이다.
④ (가)는 「훈민정음 해례본」 서문에 세종이 직접 지은 글을 세종이 죽은 후에 한글로 풀어 쓴 ‘어지’이다.
⑤ 우리말이 중국과 달라 서로 통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에서 자주 정신을, 문자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긴다는 내용에서 애민 정신을, 사용하기 쉽고 편리한 문자로 만든다는 내용에서 실용 정신을 엿볼 수 있다.

03 ‘서르’는 현대 국어에서 형태가 ‘서로’로 변화했는데 의미는 그대로이다. 따라서 의미가 이동한 것이 아니라 형태만 변한 것이다.

오답 풀이 ① ‘말씀’은 중세 국어에서 ‘말’이라는 일반적인 의미였는데, 현대 국어에 와서 ‘말의 높임말’로 의미가 축소되었다.
③ ‘어·린’은 중세 국어에서 ‘어리석은’이라는 의미였는데, 현대 국어에 와서 ‘나이가 적은’으로 의미가 이동하였다.
④ ‘·놈’은 중세 국어에서 ‘보통 사람’이라는 의미였는데, 현대 국어에 와서 ‘남자를 낮추어 이르는 말’로 의미가 축소되었다.
⑤ ‘하·니·라’는 중세 국어에서 ‘많다’라는 의미였는데, 현대 국어에 와서 ‘하다’로 의미가 이동하였다.

04 ① ‘무·춤·내’는 현대어로 ‘마침내’로, 양성 모음 ‘ㅛ’, ‘ㅟ’만을 사용하고 있어 모음 조화가 잘 지켜진 단어인 데 반해, 현대어 ‘마침내’는 양성 모음 ‘ㅛ’, ‘ㅟ’와 음성 모음 ‘ㅣ’가 함께 사용되어 모음 조화가 지켜지지 않은 단어이다.

〈서술형 평가 기준〉

평가 기준	평가
①을 현대어로 바꾸고, 둘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상
①을 현대어로 바꾸었으나, 둘의 차이점을 미흡하게 서술하였다.	중
①을 현대어로 바꾸었으나, 둘의 차이점을 서술하지 못하였다.	하

05 ‘便便(안한·키)’는 현대어로 ‘편안하게’로 해석할 수 있다.

06 (다)에서는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외국어나 불필요한 외래어 사용을 자제하고 고유어나 순화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외국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다)에 따르면 가상 공간에서도 언어 규범에 맞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② (가)에 따르면 세종 학당은 해외에 있는 한국어 교육 기관으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③ (라)에 따르면 국어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가 국어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우리가 국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국어의 미래가 결정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한국어 능력 시험 지원자 수와 세종 학당 학생 수의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를 보면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7 [A]는 외래어나 외국어를 과도하게 사용한 경우로, 이를 순화어나 우리말로 바꾸어야 한다. 따라서 ‘독특한 모양과 화려한 색상이 돋보이는 이 상품은 이미 많은 유명 인사가 선택한 최신 유행 상품입니다.’라고 고쳐 쓸 수 있다.

〈서술형 평가 기준〉

평가 기준	평가
7개의 잘못된 표현을 모두 올바른 표현으로 바꾸어 서술하였다.	상
7개의 잘못된 표현 중 4개 이상 올바른 표현으로 바꾸어 서술하였다.	중
7개의 잘못된 표현 중 4개 미만, 2개 이상 올바른 표현으로 바꾸어 서술하였다.	하

08 [B]는 가상 공간에서 언어 규범에 맞지 않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로, 맞춤법이나 띄어쓰기를 무시하거나 초성만을 쓰는 등 지나치게 줄임말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표현들은 쉽고 빠르게 입력할 수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고, 의사소통을 방해할 수 있으며, 우리말의 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다. 특히 이런 표현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나 세대와는 원활하게 의사소통할 수 없다.

09 (나)를 통해 국제 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과 역할이 커지면서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한국을 알고 이해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에 한국어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커지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시험 직전, 최종 실전 평가 063

오답 풀이 ① 이 글에는 세종 학당의 학생 수는 나타나 있으나, 세종 학당의 학문 수준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② 한국을 알고 이해할 필요가 있어 우리말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지, 새로운 학문에 대한 관심 차원에서 우리말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③ 한글이 다른 언어보다 배우기 쉬운 글자라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⑤ 우리말을 다른 나라에 보급하는 국가 정책이 성공했다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10 첫 번째 내용은 상대방이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듣기, 즉 ‘경청하기’를, 두 번째 내용은 ‘상대방의 말을 신중하게 판단하며 가려 듣기’라는 담화 관습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말의 담화 관습들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경청하되 신중하게 판단하며 듣는 자세를 바탕으로 한다.

11 (가)의 화자는 남에 대해 함부로 말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내가 남에 대해 함부로 말하면 남도 똑같이 나에게 함부로 말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함부로 말하지 말고 신중하게 말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한편 (나)의 속담들은 듣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도 말조심하고, 말이란 같은 내용이라도 표현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 적절하게 표현해야 하며, 꼭 필요한 말만 가려서 신중하게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가)와 (나)에는 말을 중요하게 여겨 불필요한 말을 삼가고, 대화 상대나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말만 조심히 하는 ‘신중하게 말하기’라는 담화 관습이 반영되어 있다.

12 ㉠은 ‘가루는 체에 칠수록 고와지지만 말은 길어질수록 거칠어져 시비가 붙을 수 있고 마침내는 말다툼까지 할 수 있다.’는 의미를 지닌 속담이다. 이는 ‘신중하게 말하기’라는 우리말의 담화 관습이 반영된 것으로, 꼭 필요한 말만 가려서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서술형 평가 기준〉

평가 기준	평가
㉠의 뜻을 밝히고, 이를 통해 드러나는 교훈을 정확하게 서술하였다.	상
㉠의 뜻을 밝혔으나, 이를 통해 드러나는 교훈을 미흡하게 서술하였다.	중
㉠의 뜻을 밝혔으나, 이를 통해 드러나는 교훈을 서술하지 못하였다.	하

13 김 선생은 친구의 잘못을 직설적으로 지적하지 않고 부드럽게 돌려 말함으로써 친구와의 관계를 불편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주인은 친구인 김 선생이 자신의 집을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극진히 대접하지 않고 채소 같은 안주만 내놓았다.

② 김 선생은 ‘닭을 빌려 타고 가려네.’와 같이 말함으로써 자신을 인색하게 대접하는 친구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

④ 주인이 김 선생의 말에 크게 웃고서 닭을 잡아 대접하는 것을 통해 주인이 김 선생의 말의 의도를 이해하고 그의 요구에 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김 선생이 사용한 돌려 말하기 방식은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내용을 완곡하게 돌려 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상대방이 자신의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나 잘못 받아들일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14 김 선생은 자신을 인색하게 대접하는 친구의 잘못을 직설적으로 지적하지 않고 부드럽게 돌려 말함으로써 친구와의 관계를 불편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을 통해 우리말의 담화 관습 중 돌려 말하기의 방법과 효과를 살펴볼 수 있다.

15 ㉠에서 출연자는 자신을 칭찬하는 뉴스 진행자의 말에 대해 ‘과찬의 말씀’이라며 겸손하게 대답하고 있다. 즉 출연자의 말하기 방식에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갖추면서 자기를 낮추어 말하는 ‘겸손하게 말하기’의 담화 관습을 엿볼 수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자신을 칭찬하는 수진의 말에 대답하려는 정연에게는 칭찬하는 말에 동조하지 말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표현을 사용하라고 조언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칭찬하는 말에 동조하고 있으므로 겸손한 태도가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② 수진의 말의 의도를 묻게 되면 돌려 말하더라도 수진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다.

④ 수진의 칭찬에 예의 없이 대답할 우려가 있다.

⑤ 겸손한 태도가 아닌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이게 될 것이다.

16 담화 관습은 사회·문화적 상황에 따라 변화하므로 과거 우리말의 담화 관습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오늘날의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수정하거나 보완하여 계승할 필요가 있다. (가)는 자신을 낮추어 표현하는 겸손한 말하기로, 자신의 장점을 드러내어 상대방에게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하는 면접 상황에는 적절하지 않지만, 전통적 사회에서만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면접 상황이 아닌 다른 상황, 가령 상대방이 자신을 칭찬하는 상황에서는 겸손하게 말하는 것이 좋다.

오답 풀이 ① (가)와 (나)는 모두 자신을 뽐아 달라는 의도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② (가)는 능력이 많이 부족하고 실무 경험도 적은 편이라고 자신을 낮추어 겸손하게 말하고 있다.

③ (나)는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인턴 활동을 하며 실무 경험을 쌓았다고 자신의 장점을 내세우고 있다.

⑤ 면접 상황에서는 자신을 모르는 상대방에게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하므로 겸손하게 말하는 (가)보다는 자신의 장점을 드러내어 말하는 (나)가 더 적절한 의사소통 방법이다.

17 진목은 자신을 칭찬하고 생각해 주는 유슬 엄마에게 인상을 쓰는 등 버릇없는 태도를 취하며 “필요 없습니다.”라고 함부로 말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에서 유슬 엄마는 ‘지난달보다 많이 늘었더라.’와 같은 언어적 표현과 ‘진목의 어깨를 토닥이는’과 같은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 진목을 칭찬하고 있다.

③ 유슬은 진목이 일부러 실수했다고 생각하며 진목을 비난하고 있다.

④ 진목은 자신을 비난하는 유슬의 말에 기분이 상해 잘난 척한다고 유슬을 비난하고 있다.

⑤ 유슬은 ‘별것 아닌 거야.’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진목을 낮추어 말하며 언어 예절을 지키지 않고 있다.